

김주필 주필거미박물관장
"재산은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 아닌 세상에 되돌려 주는 거죠"
12 · 13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4월 16일) ·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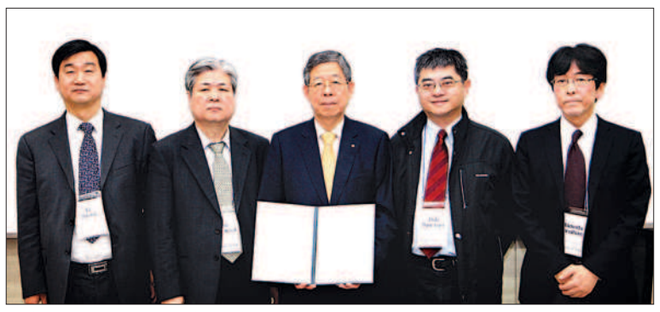
제992호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아함경〉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자기 마음의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다.

서구중심 세계불교학 이제 동아시아가 주도

5월 9~10일 동국대서 제1회 동아시아 불교학 국제학술대회



학술교류 MOU를 체결한 각 대학 대표들. 왼쪽부터 리스롱 북경대 교수, 김종욱 HK 단장, 김희옥 동국대총장, 뚜바오루이 대만대 교수, 시모다 동경대 교수

근대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을 주도해 온 일본, 동아시아 불교 종주국의 중국, 현대 불교연구의 새 장을 열어온 대만, 그동안 각국 자존심 등으로 한데 모이기조차 힘들었던 동북아시아 4개국의 불교학계가 통불교(通佛敎)를 주창해 온 한국에서 세계 불교학을 주도하기 위해 뭉쳤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연구단(단장 김종욱)은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동국대에서 중국의 북경대, 일본의 동경대, 대만의 대만국립대가 참여하는 제1회 불교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108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자리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뺏겼던 불교학 연구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의 장이었다. 자리는 동국대 측이 마련했지만, 각국 불교학계는 체류비 등 일체 비용을 각자 부담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는 4개국이 2명씩 발표자로 나섰으며 브리티시 콜롬비아대와 듀크대 등 서구불교학을 대표한 학자 2명도 추가로 발표했다.

9일 첫 행사로는 김희옥 동국대 총장과 김종욱 인문한국연구단 단장, 리스롱 북경대 교수,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 뚜바오루이 대만대 교수가 함께 4개 대학이 향후 학술대회를 비롯해 워크샵 등 교류 행사를 지속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어 활발한 학술교류를 이어갔다.

제1회 국제학술대회는 '근대불교학의 동아시아 전개'와 '동아시아 불교의 다양한 시선'의 두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리스롱 북경대 교수는 불교연구는 인문학 중 가장 발전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돈황 문서 등 새로 발굴되는 신자료를 활용한 불교연구의 혁신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뚜바오루이 교수는 고전적 학문연구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시키는 불교방법론을 위해서는 실천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경대·동경대·대만대 참여
각국 불교학 연구 동향 논의
"東亞 불교학 잠재력 무궁무진"
격년 국제대회 위한 MOU 체결
7일 동국대 108주년 기념식도

시모다 마사히로 동경대 교수는 불교의 역사를 서사-목판-활판-서적-디지털텍스트라는 매체 발전에 따른 재배치의 역사로 보고 차세대에는 다량으로 제시된 텍스트를 질적으로 비판하는 불교 해석학이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발표자인 김용태 동국대 교수는 "한국의 근대연구방법론이 일본을 통해 들어왔지만 일본 연구 풍토의 영향을 극복했다"며 "한국 불교는 중국, 일본과 다른 고유특성을 가지지만 상호성, 보편성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 중국, 일본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발표자로는 캐나다 콜림비아대의 첸진화 교수가 지난 20년간 서구에서의 동아시아 불교연구 동향을 설명하며 선불교와 불교예술이 학문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불교와 도교 등의 교단관계에 대한 연구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신라 원효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 전통과 교유성을 강조했는데, 고 교수는 원효 화쟁 회통의 논리는 쟁점을 뛰어넘은 통합과 무종파 지향의 성격을 띄며 이것이 한국불교의 전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장은 "동아시아 인문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동아시아의 세계불교학 주도는 이제 첫 발을 뗐다. 격년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순환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는 7일 개교 108주년 기념식을 열고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으로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임헌장 건설관리팀 직원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 또 우수한 업적을 낸 교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동국우수교원상' 29명, '동국우수연구자상' 32명, 동국가족상 2명 등에게 공로상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992호 INDEX



익산 심곡사7층석탑 성보 문화재 보존 처리 완료 2

불자불자들 푸른 눈 수행자 아잔 브라함 방한 4
함께가요 강의실 '미리 준비하는 웰다잉' 6
마음 달라이 라마 '마음 길들이기' 19



조계종은 5월 6일 서울 조계사에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진 제공= 조계종

"다시는 비극 없도록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

박근혜 대통령, 6일 봉축 법요식 참석… 역대 대통령 중 최초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 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5월 6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5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찾아 적폐를 척결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또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월 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무량수 무량광 왕생발원' 영가등 달아
"수장으로서 마음 무겁다"사과 뜻 밝혀

박 대통령은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들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는 부처님의 경구를 상기한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를 척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면서 "국난마다 불교의 가르침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했다. 불교가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상의 왼편에 '극락왕생 무사귀환'이라고 적힌 노란색 리본을 달았다. 또한 조계사 극락전 앞에는 박 대통령 명의의 흰색 영가등이 달렸다.

박 대통령은 이 등에 '세월호 희생자 무량수 무량광 극락정토 왕생발원(목숨이 끝이 없고 빛이 끝이 없어서 번뇌 없는 세상에 다시 오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이라고 썼다.

〈봉축 관련 기사 3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피해 지원위해 자비 희사

종정 진제 스님, 1천만 원 전달… '동행'은 안산사암련 지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세월호 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기탁했다.

진제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월호 여객선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 여러 차례 국민 모두와 함께 아픔을 표시했고,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을 위해 성금을 희사했다.

진제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극락왕생 발원, 무사귀환의 등을 밝혀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자"고 했고,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희망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안산사암연합회에 500만 원을 5월 1일 지원했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이사장 자승 스님을 대신하여 안산에 마련된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해 활동을 격려하고 희생자 애도에 동참했다.

이날 자공 스님은 "유가족과 마음을 함께하며 지원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사장 자승 스님의 말을 전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4월 23일 세월호 침몰 이후 자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도사암연합회에 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현 불 샵 단독입점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 · 사자 · 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촛대(大) 촛대(中) 촛대(小) 향로 향통 다기

품 명		규 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21㎝ (中) 41㎝×21㎝ (小) 35㎝×21㎝
	거북이	(中) 41㎝×21㎝ (小) 35㎝×21㎝
향로	거북 용두	(大) 28.5㎝×34㎝ (中) Ⓐ 21.5㎝×29㎝ (中) Ⓑ 18.5㎝×23㎝ (小) 15.5㎝×18㎝
다기	다기	(大) 26㎝×20㎝ (中) Ⓐ 22㎝×14㎝ (中) Ⓑ 20㎝×13㎝ (小) 17㎝×12㎝
향통	원형	(大) 15.5㎝×7.5㎝ (小) 11.7㎝×5㎝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

석탑 해체하니 신라·조선 불상 한번에



익산 심곡사 7층석탑 해체 보수 과정에서 출토된 불감 내부의 삼존불(사진 왼족)과 기타 불상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보존 처리를 완료했다.

문화재보존센터, 심곡사석탑 출토유물 보존처리 완료

익산시 2012년 塔 해체 · 보수
불상, 불감 등 10여 점 수습
당대 양식 변화 알게 하는 단초

2012년 해체 보수 과정에서 수습된 전북 익산 심곡사7층석탑 내의 유물들이 통일신라부터 조선 초기의 조성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김용한)는 5월 8일 "전라북도유형문화재 제192호 '심곡사칠층석탑' 에서 수습된 금동 불감과 불상 등 총 10점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따르면 익산시는 2012년 6월 미륵산 기슭에 있는 사찰인 심곡사의 칠층석탑에 대해 수리를 시행했고, 해체 과정에서 기단 중대석 내 사리공(舍利孔, 탑 안에 사리를 모시기 위한 공간)에서 불상 2점, 하부 지대석 내 사리공에서 불감 1점, 불감 내에서 금동불좌상 7점을 발견했다.

발견 유물에 대해 보존과학센터는 "이 탑은 백제, 고려, 조선의 탑 양식을 모두 간직한 조선 시대 초기의 석탑으로 불감 역시 같은 시기로 보여지나, 기단 중대석에서 출토된 불상 2점은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발견 당시 불상을 모셔두는 전각인 불감(佛龕)은 사리공에서 발견된 불감 내에는 삼존불을 비롯해 총 7점의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이 불감은 높이 18.8㎝로 유물수습 시 전각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으나, 고정되지 못해 불안한 상태였다. 또 전면의 양쪽 문은 파손돼 탈락했고, 파편은 사리공 바닥에 쌓인 흙에 흩어져 있었다.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불감이 발견되자마자 현장 수습을 하였으며, 보존처리를 위해 센터로 이송해 CT(Computerized Tomography, 컴퓨터단층촬영법)와 X-ray 투과 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감실과 불상은 금동제로 밝혀졌며, 삼존불 내부에서는 후령통(候鈴筒, 복장물을 넣은 통), 사리호, 한지 등이 확인됐다. 본존불 두상 내에서 2점의 종이뭉치가 발견됐는데, 한지의 훼손이 심해 판독은 어려운 상태이며 현재 보존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금도금층과 섬세한 문양이 드러났으며,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보존처리를 통해 금도금층과 섬세한 문양이 드러났으며 전체적인 윤곽과 형태를 유추할 수 있게 됐다"며 "심곡사칠층석탑 조성 당시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대석 사리공의 불감은 조선 시대 초기 불감과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단 중대석에서 출토된 불상은 통일신라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인문학 만나 사회를 성찰하다

시민행성 주최 '불교인문학 · 21세기 교판' 강좌 연이어… 조성택 고려대 교수 강의



불교와 인문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갈등에 한국불교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지 논의하는 강좌가 잇달아 개최된다.

실천적 인문공동체 시민행성은 공동대표인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강사로 나서는 '불교인문학', '화쟁아카데미- 21세기 한국불교 교판' 두 가지 강좌를 선보인다.

시민행성 봄 강좌 '마음우주' 부문의 **'불교인문학'** 첫 번째 강좌는 5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민행성 자체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조성택 교수가 강의하는 불교인문학의 세부 강의 주제는 △샤키야무니 붓다(Shakyamuni Buddha) 등장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붓다(Historical Buddha)의 재구성: biography vs. hagiography △붓다 출현 그리고 '불교'의 문명사적 의의: 귀환과 출가 △근대 유럽이 바라 본 '붓다' : 부처님은 '영국신사' 인가 '맑시스트' 인가? △신앙으로서의 '부처님' : 부처님은 '경쟁 중' △우리 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등이다.

이후 9월과 11월 '불교지식'의 인문학적 이해와 불교의 역사적 이해를 주제로 불교인문학 강좌는 시리즈로 이어진다.

불교인문학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불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박제된 종교'가 됐다"면서 "강좌의 목표는 '박제된 제도'로서의 불교를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어 '지금, 여기'의 인문학적 사유로 읽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인문학은 불교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불교적 사유를 통해 근대 이후 오늘날 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면서 "지금 여기 나의 눈으로 '불교'를 바라보며, 또한 불교를 통해 '나'를 성찰하고자 하는 것이 불교인문학이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불교인문학'이 현대시대의 불교가 지향하는 큰 밑그림에 대한 강좌라면, 조 교수가 **화쟁아카데미 강좌**로 진행하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 강좌는 한국불교의 상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석이다.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11시에 열리는 '21세기 한국불교를 위한 교판' 강좌는 △시민보살, 21세기 한국불교의 새로운 주체 △우리시대의 붓다, 그리고 부처님 △원효의 화쟁론과 우리시대의 화쟁 △깨달음의 세계와 생활세계 등 총 4번에 걸쳐 진행된다.

조 교수는 "이제 한국불교는 다양한 지역 불교 전통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존하면서 새로운 불교의 역사를 써 나가야 한다. 지금 한국불교가 맞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21세기 새로운 교판과 교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한국불교는 21세기 세계불교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강좌 문의: 강민지(사무국장) 010-9245-3412
시민행성 홈페이지(http://citizenplanet.tistory.com)

진각종, 중국불교 교류 사업 본격화

진각종, 中 숭덕사와 1일 우호 양해각서 체결

진각종이 중국 숭덕사와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우호관계를 통해 긴밀한 합작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불교 발전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와 한방명 중국 하북성 숭덕사 관리위원회 수석고문 겸 차하얼 학회 주석은 5월 1일 오후 1시 진각종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에서 '진각종과 중국불교 숭덕사 합작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진각종과 숭덕사는 '종교의 생활화', '인간불교', '불교종단 및 사찰의 혁신적인 재무관리'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국내의 대학교 또는 과학연구기구 등과 종립 위덕대학교가 우호대학으로서 긴밀한 합작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중국불교는 진각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숭덕사와의 MOU를 통해 진각종이 70여 년동안 발전해 온 역사들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중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가면서 한국, 중국 양국불교가 공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방명 수석고문은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 불교계의 교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진각종과 MOU를 체결하고 우호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오늘을 계기로 밀접한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국 불교문화교류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가자"고 했다. 협약시 후 숭덕사는 진각종에 황재신 탕카 한 폭을, 진각종은 전승원 모형 등을 선물했다.

숭덕사는 청나라 숭덕원년(1636)에 첫 불사를 시작했으며 청나라 순치10(1653)년 5세 달라이마가 '라쑴세줍링(삼학강수주)사찰'이라는 명칭을 하사한 곳으로 티베트 불교 거루파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육원장 경당 정사, 총무부장 덕정 정사, 사회부장 호당 정사, 장명주 중국 숭덕사 관리위원회 상무위원, 송기출 (사)한국국제문화교류원장 등이 배석했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사진 왼쪽)와 한방명 중국 하북성 숭덕사 관리위원회 수석고문 겸 차하얼 학회 주석은 5월 1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진각종과 중국불교 숭덕사 합작 MOU'를 체결했다.

서울 보타사 마애불 보물 지정된다

문화재청 지정예고…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普陀寺 磨崖菩薩坐像)'은 개운사 암자인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상으로 마애보살좌상 오른편에 새긴 신중패(神衆牌)가 보살상의 조성 시기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상은 보물 제1820호 '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과 함께 여말선초에 유행한 보살상의 한 형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 꼽힌다.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대전 비래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大田 飛來寺 木造毘盧遮那佛坐像)'은 사람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불상으로 전체적으로 차분하고 단정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불상의 밑면에 쓰여 있는 기록을 통해 1651년(효종 2)의 정확한 제작 시기와 조각가를 알 수 있어, 17세기 불교조각 연구에 기준자료가 된다.

이번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는 30일간 기간 이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 재 형 박사 직강
최면지도사협회장
심리상담 전문가
최면상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 에서 최면학 강의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월 첫째주 월요일 개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세월호 참사는 共業… 뼈아픈 참회 필요”

서울 조계사 등 전국 사찰 6일 봉축 법요식서 애도

박근혜 대통령 최초로 법요식 참석
진제 스님 “말 한 마디에 신중하라”
팽목항 법당 법회… “부처님 가피를”


조계종은 5월 6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원로의장 밀운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왼쪽)이 아기 부처님 관욕을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은 5월 6일 세월호 침몰 현장인 진도 팽목항 법당에서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서울 종로 조계사 등 전국 사찰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기 위한 법요식이 봉행됐다.

조계종은 5월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요식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봉축법요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一人傳虛(일인전허)에 萬人傳實(만인전실)’ 이라는 가르침을 전했다.

진제 스님은 “이는 ‘한 사람이 거짓된 말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를 사실처럼 전하게 된다’ 는 가르침”이라며 “한 마디의 말을 듣고 전하는 데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세상을 맑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애도하자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진도 앞바다에서 우리의 가족이요, 나의 한 몸과 같은 많은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나갔다”면서 “세월호 참사의 모든 희생자들이 영원한 진리의 낙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산승도 진리의 등불을 하나씩 선사하고자 하오니, 모든 영혼들께서는 이 등불을 가지고 극락세계에 왕생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교가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봉축사에서 “세월호 사고는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이며,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우리 모두의 공업이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뼈아픈 통찰과 참회가 있어야 한다”면서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소통과 화합, 지혜와 힘을 모아 안전한 사회,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요식은 불법 홍포와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올해 수상자로는 김동건 불교포럼 대표,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대학교 명예교수, 탤런트 선우용여 씨가 선정됐다.

특히 올해 법요식에는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와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이웃종교인과 카망 상라마(Kanman Singh Lama) 네팔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 김민수 청년유니온노조 위원장, 홈리스 활동가 조성래 씨, 서울시 복지대상 수상자 황화익 씨, 새터민 가족 등이 참석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에서도 부처님의 오신 뜻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무사 생환과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석이 열렸다.

조계종은 진도 팽목항 법당에서 6일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자원봉사자, 실종자 가족들이 참석했다.

진관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실종자들은 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고, 희생자들은 재난과 고통없는 세상에서 편히 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을 딛고 평상심을 어서 빨리 회복해 예전의 모습처럼 건강하게 사는 것을 돌아가신 영가들도 바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침몰 사고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어린이날 맞아 천진불 106명 탄생

봉은사 제3회 유아수계법회… 200여 명 참석

“오늘 참석한 아이들이 슬기롭고, 자비로운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인연 지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성장해 가길 기원합니다.”

어린이날을 이틀 앞둔 5월 3일, 봉은사에서 천진불 106명이 탄생했다. 제 3회 유아수계법회가 열린 것.

이날 봉은사 법왕루에는 복중 태아에서부터 3세에 이르는 영 · 유아들과 미취학 아동 106명과 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수계법회는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전국사찰의 물을 하나로 합하는 합수의식을 시작으로 관정의식과 산화의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과 함께온 가족들 외에도 임산부 등도 참석해 수계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어릴 때부터 바르게 자라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계식 이후 일생동안 아이들이 불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참석한 김정연 씨는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착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 수계법회에 참석했다.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서울 강남 봉은사는 5월 3일 제3회 유아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원학 스님이 유아에게 마정수기를 내리고 있는 모습.

파주시, 민추본 ‘도담도담’에 3천만원 전달

이인제 시장 “시민모금운동 확대해 꾸준히 지원”

경기도 파주시가 4월 30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추본)에 기금 3천만원을 전달했다. 민추본이 진행하는 북녘 어린이 영양지원 캠페인 ‘도담도담’에 자체적으로 조성해온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기부한 것이다.

기금전달에는 이인제 파주시장의 적극적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지난 3월 29일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도담도담 캠페인 선포식에 참가, 총무원장 자승 스님 등과 민통선 지역을 걸으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를 ‘도담도담’ 캠페인 지원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리적 위치상 북한과 인접한 파주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만들어 기금을 조성해오고 있었으나 민간교류가 끊긴 상황이라 기금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며 “도담도담 캠페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위원회에 취지를 설명하고 기금전달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숨은 이야기를 밝혔다. 이어 “파주시에서도 캠페인 모금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진행해 꾸준히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추본을 대표해 기금을 전달받은 자승 스님은 “약속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기금전달식에는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스님과 이인제 파주시장을 비롯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복록 부위원장, 김경선 위원, 조재열 위원과 파주시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허정스님이 참석했다.

‘도담도담’은 영양결핍과 질환으로 힘들어하는 북한 아이들을 위해 영양식과 의약품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민추본과 아름다운 동행(대표이사 자승)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민추본은 앞으로 다양한 모금캠페인을 진행, 올해 안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구충제와 수액세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4월 30일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 북한 어린이 지원 캠페인 후원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 불교 1번지 예의없는 타종교인들

예수재단, 조계사 인근서 노상 전도… 몰지각 행위



기독NGO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행위를 해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지뿌리게 했다.

부처님오신날은 불자들에게는 1년 중 가장 큰 명절이다. 하지만 일부 개신교도들이 부처님오신날 분위기를 훼손하는 몰지각한 행동으로 불자와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들었다.

예수재단은 5월 6일 조계사 인근 공평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전도 행위를 했다. 그들은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등의 노상 전도를 했다.

조계사에서 200여m 떨어진 곳이라고 해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사를 찾기 위한 불자와 시민들의 이동 경로에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이웃종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위였다. 실제, 조계사로 오는 불자들이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도리어 불자들을 나무라며 갈등을 빚었다.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이다. 다른 곳에서 하라”고 제지하자 예수재단 측은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있다. 절차에 맞춰 집회신고했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사찰의 연등이 왜 길거리로 나오냐. 연등회에 왜 국가 예산이 지원되냐”고 예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관할서 경찰관과 사복경찰이 있었지만 부처님오신날을 망치기 위한 집회에 대한 특별한 제지가 이뤄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이 같은 집회가 문제가 없냐”고 묻자 “집회 신고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잘라 말했다.

매년 부처님오신날마다 이어지는 연등회 폄훼, 연등 훼손 등 종교 갈등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증오방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사회국장 덕운 스님은 “한국 사회는 다문화, 다종교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이로 인해 문화, 종교적 갈등의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후보자 시절 불교계에 제시한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사 방필석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은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남을 구제한다는 것은 반드시 남을 구제할 날이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濟人은 必無濟人之日이요
▣여유 있기를 기다린 후에 개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개명할 때가 없을 것이다.
待有餘而後 改名은 必無改名之時라

★ 갑오년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신생아 작명 개명·아호·상호

역학개인지도

세상 만물이 난조(暖燥) 및 한습(寒濕)의 조화에 의하여 이루어 지듯이 인간도 자연의 조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방필석 대내외활동
前 대통령 손녀딸 작명
前 대통령 영식 아호 찬명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前 스리랑카수상과 함께 청와대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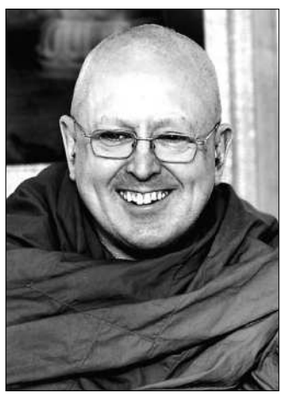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5년 작명 국가 공인 한자 1급 7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www.8259.co.kr 국내외 우편발송
작명보시금 20만원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견지동)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

“생각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 옵니다”

명상지도자 아잔 브람과 함께하는 ‘세계명상힐링캠프’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아잔 브라흐마 스님(사진 · 이하, 아잔 브람)이 지난해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다. 5월 22일~25일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세계명상힐링캠프 ‘사흘간의 집중수행’을 위해 방한하는 스님은 ‘행복의 길’ 안내자로 대중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예정이다.

참불선원(선원장 각산)과 BBS불교방송 공동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명상수행의 중요성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예정이다. 일정은 첫날인 5월 22일 오후 3시 입소 저녁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다음날인 23일부터 25일까지 사부대중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아잔 브람의 명상 요약본 〈멈춤의 여행〉을 교재로 집중수행에 들어간다.



“수행의 참된 목적은 모든 것 놓아버리는 것”

영국 케임브리지대 물리학도로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던 아잔 브람은 오스트레일리아 보디냐나 수도원을 세워 명상을 지도하고 〈성난 물소 놓아주기〉,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등의 저서를 내놓기도 했다.

아잔 브람이 지도하는 세계명상힐링캠프는 초기경전의 원전을 근거로 선정과 지혜의 통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초기불교의 핵심을 전해줄 예정이다. 수행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마음관찰– 호흡관찰–호흡의 전체보기–감미로운 호흡–빛니미따의 체험–선정(禪定)– 지혜–열반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중에서 수행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음관찰과 호흡관찰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행사를 주최하는 참불선원의 선원장 각산 스님은 “수행의 첫 번째 단계인 ‘마음관찰’은 알아차림의 확립으로 위빠사나의 기본이다. 또한 선정과 지혜를 성취하는 사마타 멈춤과 평온, 위빠사나 지혜의 기초수행이다. 이는 일상생활의 매 순간을 알아차리는 객관화 훈련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 아잔 브라흐마 스님이 5월 22일~25일 설악산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세계명상힐링캠프 ‘사흘간의 집중수행’ 지도를 위해 방한한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장면.

마음관찰의 두 번째 방법은 현재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는 현재에 일어나는 생각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다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아는 단계를 말한다.

각산 스님은 “명상 수행은 마음의 평안,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강화, 업무 능력 향상을 가져온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더욱이 우울증과 공황 장애와 같은 심리적 질병 치료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수행의 이익”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숲속의 수행자 효암 스님, 원담 스님 그리고 초기불교의 대가 미산 스님, 힐링멘토 마가 스님, 도심 속의 위빠사나 스승 김재성 교수의 자문과 준비로 진행된다.

아잔 브람은 “지금 당신이 그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이미 다른 많은 사람이 직면해 극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런 장애들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곧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약들의 사용법을 잘 기억해 둬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스님은 수행의 참된 목적은 ‘잃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행의 참된 목적은 당

500여 대중 행복의 길 안내

5월 22일~25일 만해마을서

신이 친구들에게 자랑할 만한 근사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제대로 명상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잃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집착을 잃어버린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는다. 그들은 진정 최고의 루저들이다.”

아잔 브람이 오랜 명상으로 터득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는’ 마음훈련법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로 대중들을 안내해줄 것이다. 1577-3696

정혜숙 기자

미주 포교 30년 경암 스님 입적



미국 워싱턴 보림사 주지 해봉 경암 스님〈사진〉이 5월 3일 입적했다. 세수 70세.

암투병 중이었던 경암 스님은 5월 3일 장시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입적했으며 “맑고 향기롭게 살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942년 제주에서 출생한 경암스님은 마곡사에서 출가해 지난 1984년 도미, 워싱턴 보림사를 창건했으며 대원불교대학 미주분교장, 미주불교신문 발행인, 워싱턴 보림사주지, 태화산 아란야사 주지 등을 맡으며 미국내 한국불교 포교에 앞장서왔다.

경암 스님은 동양화가이자 시인으로서 활발한 활동도 펼쳤다. 지난 2012년 제9회 국제선서화전을 통해 달마도를 비롯 거북 용 코끼리 등 민속화까지 다채로운 작품세계를 선보였다. 그 해 11월 서울 국회의사당과 조계사 나무갤러리에서 선화전을 열었고 2013년 3월과 4월에는 부산과 제주에서, 5월에는 캐나다, 7월에는 일본 오사카 8월에 미국서 순회전을 열기도 했다.

신성민 기자

해인사 승가대학장 원철 스님 임명



신임 해인사 승가대학장에 원철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해인사승가대학 운영위원회는 1일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원철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임명했다.

원철 스님은 법전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와 은해사승가대학원을 졸업한 후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 · 박사를 마쳤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실상사 화엄학림 강사, 해인사 승가대학 교수, 불교문화대학 선학과 강사, 월간 〈해인〉 편집장, 포교원 신도국장, 총무원 기획국장, 총무원 재정국장, 교육원 불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대강 생태강 될 때까지 순례”

자전거로 참회순례하는 부산 현정사 주지 보승 스님

“최근 4대강 유역에 자전거 길이 잘돼있다고 하여 가보았습니다. 길은 잘 나있는데 반해 물에선 썩은 내가 나더군요. 우리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 뭇 생명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참회순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4대강에 생태환경이 조성하자는 분위기가 이뤄질때까지 자전서 순례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로 4대강 참회순례를 하고 있는 한 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부산 현정사 주지 보승 스님. 스님은 4월 15일부터 3일 동안 인천 아라뱃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순례를 한데 이어 5월 9일부터 하안거 전인 14일까지는 북한강을 거쳐,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에서 자전거 순례를 진행했다.

“평소 사찰에서만 막연히 알고 있었던 문제를 직접 보니 심각하더군요.”

스님이 자전거로 순례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도보로 하는 순례가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였다. 스님은 “자전거로 하다보니 인천에서 5명의 불자들, 섬진강에서는 8명의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동행했다”며 “운동과 순례를 함께 하며 일반인들도 직접 체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부산 삼광사 봉축 전야 점등대법회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알리는 ‘봉축 전야 점등대법회’를 5월 5일 3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효원정사, 천주교 글라넷 선교 수도회 원장 주낙길 수사, 김대선 원불교 평양교구장 등 90여명의 내빈들은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한 헌화와 부처님의 탄생을 알리는 관불의식을 진행했다. 또한, 희생자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촛불 점화가 이어져 엄숙하면서도 경건한



전야제가 펼쳐졌다.

주지 무원 스님은 이날 내빈으로 참석한 새터민 30여명에게 쌀 6kg씩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전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조계사 보리수 새싹학교 동자승 환계식

서울 조계사는 5월 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의 환계식을 진행했다.

동자승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리수 새싹학교’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부터 동국대학교 불교아동연구소와 함께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가족과 떨어져 절에서 생활한 동자승들은 그동안 훌쩍 성장해 의젓하고 얌전한 자세로 환



계식에 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佛紀 2558年 甲午年 Buddha’s birthday

‘세상에 희망을 마음에 행복을’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가
저 바다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염불선수행종단

(사)한국불교 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 총무원 : 어림산 복원사
경북 경주시 현곡면 내태리 58
TEL 054)745-3646
FAX 054)742-3646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중·고등학교
능인학원 상 아 유 치 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아 용
능인고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764-0807
FAX 053)763-1807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6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5월 중
◆ 개강일시 : 2014년 5월 중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5월 26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 東 佛 教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부처님 품에서 푸른 꿈과 희망 키우자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 가정의 달 맞이 행사 다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어린이 · 청소년 포교단체들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연다.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전통예술경연,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할 계획이다.

(사)청소년교화연합회(총재 현성, 이하 연합회)는 5월 17일 오후 2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6회 청소년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불교진흥원, 도선사, 동국대, 옥천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6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 본선 진출을 한 10개 팀이 경연을 펼친다.

연합회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심을 증진시키고, 그들의 잠재된 예술적 소양을 고취, 건전한 여가 문화 보내기 운동 전개와 청소년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에는 100만원의 장학금과 여성가족부장관상이 수여되며, 그 밖의 최우수 · 우수 · 장려 · 인기상에게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상과 본회총재상이 상금과 함께 수여된다.

또한 올해 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위원 참여뿐 아니라 연합회 전통경연에 수상실적(대상)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해 보다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심사위원의 자리를 갖는다. 더불어 인기상은 경연을 관람한 청소년 관람객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수여할 예정이다. (02)735-8165

전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성우)는 5월 24일 오전 9시부터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제18회 전북 청소년 모악축제'를 개최한다.

전라북도 중 ·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백일장(운문, 산문) 및 사생대회(한국화, 서양화, 만화 그리기), 전통음악과 춤 경연대회가 열린다. 이 밖에 '짜장스님'으로 잘 알려진 선원사 운천 스님이 직접 점심을 제공하며, 이후 금산사 경내에서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화재 바로알기 △문화재 바로알기 도전 골든벨 △청소년 한마당 잔치 등이 열리며, 경품권 추천을 비롯한 각종 시상식이 이어질 계획이다. (063)251-4942

전북파라미타 회장 성우 스님은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 의식과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제30회 전국연꽃문화제' 예선 대회를 전국 10개 도시에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어린이 불자들이 글짓기 · 그림으로 표현하는 축제인 연꽃문화제는 4월 17일 대구 신천둔지에서 열린 대구 연꽃문화제를 시작으로 강원(26일), 광주(26일), 전남(26일), 경남(26일), 제주(5월 3일), 울산(5월 6일), 밀양(5월 11일) 등지에서 열렸다. 서울 · 경기지역은 5월 18일 청계사에서 예선이 펼쳐진다. 올해 시제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 '어머니' '칭찬'으로 10개 지역에서 릴레이로 예선이 열리며 동련 사무국으로 행사지역 개최일 3일 전까지 직접 우편 접수 가능하다. 동련은 각 지역 연꽃문화제 예선 참가자들의 작품을 당일 심사해 시상을 하며, 작품수집 후 본선 후보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동련은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하고 사찰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연꽃문화제를 기반으로 전국어린이, 더 나아가 다문화어린이들에게 천진불의 향기를 알려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051)864-4569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관장 보련)은 5월 16일부터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의 재능기부특강 '서화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화교실' 프로그램은 붓으로 배우는 글과 그림으로, 소외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무료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원학 스님은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청남 오제봉(서예), 우계 오우선(남종화)을 사사, 국전입선과 6회의 개인전을 연 전문 경력을 갖고 있다. 스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건강한 마음과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련관은 17일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연감수성을 키우는 '흙사랑 희망농장'을 경기도 이천시 도자기 체험장에서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도자기 이해하기, 머그컵 그리기, 흙가래 체험 및 물레체험 등 다양한 도자기공예 체험으로 마련됐다.

보련 스님은 "도심 속 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하는 흙사랑 희망농장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의 마음을 되새기고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550-3600



역삼청소년수련관은 5월 17일 자연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감수성을 키우는 '흙사랑 희망농장'을 진행한다.

청소년교화연합회… 5월 17일 전통예술경연대회

전북파라미타… 5월 24일 금산사서 '청소년 모악축제'

사단법인 동련… 5월 18일 청계사서 연꽃문화제

역삼청소년수련관… 5월 17일 흙사랑 희망농장 체험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어르신들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카네이션 행사

울산 선암호수노인복지관(관장 종선)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복지관 임직원들은 우리꿈나무어린이집 장애아동과 함께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자원봉사자와 손마사지를 해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복지관은 이날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에 위치한 멘토어린이집, 꼬모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의 원아와 함께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동요를 부르며 음악에 맞춰 율동을 선보이는 재롱잔치를 선보였다. 배현진 기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임직원들은 우리꿈나무어린이집 장애아동과 함께 복지관을 찾는 어르신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열었다.

생명나눔, 나눔걷기 대축제 열어

5월 17일 동국대서… 5월 환우로 박승기 씨 선정

생명나눔본부(이사장 일면)가 오는 5월 17일 제7회 '생명존중 나눔걷기 축제'를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만해광장에서 출발해 남산순환로 4㎞ 걷는 코스로, 코스 중간 명상체험 구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 건강 증진을 도울 예정이다.

만해광장 현장에서는 장기기증 희망등록 부스를 설치해 홍보와 동시에 장기기증을 접수받는다. 자살예방부스도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자가 측정을 한 뒤 풍선 터뜨리기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에게 엽서를 쓰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그 밖에 부대행사로 페이스페인팅, 포토존, 펀치, 두더지게임, 혈압 및 혈당 체크, 체지방 측정,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준비한 도형심리학, 우울증 자가진단 체험관과 자비명상에서 마련한 명상관련 홍보관 등이 열린다.

기념식 사회는 개그맨 문세윤이 진행하며, 아웃사이더와 팝핀현준 등이 출연하는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나눔걷기 축제는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아이패드 · 디지털카메라 · 자전거 등 경품추첨도 이어진다.

한편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치료비 환자로 간세포암종을 앓고 있는 박승기(50세)씨를 선정했다. 간세포암종은 흔히 간암으로 알려졌으며 간 절제술이나 간이식 수술이 시급한 병이다.

박 씨는 토목설계사로 일하며 가족에게 연이어 닥친 병마로 치료비를 마련하던 중, 발병소식을 접했다. 수술에는 최소 2천만원이 필요하지만 박 씨는 치료를 포기한 상태다. 대장암을 앓는 어머니와 뇌병변장애 5급 판정을 받은 아내 치료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박 씨 어머니가 대장암 투병을 시작했고 간병을 하던 아내마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박 씨의 불행도 시작됐다. 그 때부터 어린 자식이 있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기 시작한 박 씨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치료비와 생활비, 학비에 알뜰살뜰 마련해온 적금통장 마저 해지했다. 그러던 중 만성B형 간염을 갖고 있던 박 씨의 건강도 나빠진 것이다.

박 씨의 두 아이는 치료비만 모인다면 자신들의 간을 기증해서라도 아버지를 살리겠다고 말한다. 박 씨 역시 얼른 나아서 사회로 복귀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고생한 아내와 다시 행복하게 살고 싶다 희망을 모은다.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서울숲 탐방하며 사회 적응력 높여요

본동복지관, 특수학급 청소년 대상 진행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은 지난 4월 24일 강현 · 국사봉 · 남성 · 상현중학교 등 총 4개교 특수학급 청소년 13명과 함께 서울 숲 체험을 다녀왔다.

특수학급 청소년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숲 해설가와 함께 서울숲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다.

참여학생들은 서울 숲의 다양한 꽃과 나무, 곤충과 구조물을 둘러보며 생태적 감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꽃사슴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만져보는 순서도 마련돼 특수학급 청소년들이 동물과 교감하는 기회도 주어졌다.

본동복지관측은 "참여 학생들에게 일상적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 탁 트인 자연을 만나게 하고 싶었다"며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새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 사이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수학급청소년의 사회성발달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현진 기자



특수학급 청소년들이 서울숲 해설사의 말에 귀기울이고 있다.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도모집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종 정
명진 석법운 대종사

귀의 삼보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 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은 본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원로의장 보 운
원로총무 수 덕 원로위원 해 산
원로위원 월 각 원로위원 혜 담
원로위원 홍 원

총무원장(대행)
행정원장 도 경 사정원장 법 륜 문화원장 진 송
교육원장 청 담 포교원장 동 화
비구니원장 법화 청명 비구니부원장 설 봉

총 무 원
총무부장 (대행) 재무부장 월 산
교무부장 선 각 문화부장 한 담
규정부장 혜 오 법규위원장 설 산
환경위원장 혜 득 신도회장 조태흠
사업부장 이재철

종 무 원
경북1종무원장 월 정 경북2종무원장 성 덕
경북4종무원장 해 산 대구2종무원장 해 산
대구1종무원장 광 덕 경기1종무원장 원 담
충청1종무원장 계 현 전라1종무원장 법 도

법계고시 공고
◆일 시 : 불기 2558년 5월 25일(일)(음 4월 27일) 오전 11시
◆장 소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호 ☎054)974-2605
◆법계고시 위원장 : 법운 / 위 원 : 수덕, 동화, 도견, 진송, 법화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 입종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등록 신청서 1부
● 반 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총본산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호 동명사 ☎ 054)974-2605 / fax 054)974-2705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4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진정한 웰다잉은 현재를 잘 사는 것

Well-dying

불교아카데미 리더스 클럽 강좌

이범수 교수(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 웰다잉 분야에서 통용되는 말이다. 삶의 마무리가 정갈해질 때 삶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이범수 웰다잉본부 교육위원장은 죽음 준비 교육을 받으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삶의 방식을 고민하며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4월 24일 열린 불교아카데미 마이 리더스 클럽 강좌 네 번째 시간은 삶을 반추해보는 웰다잉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이범수 교수는 … 동국대학교에서 응용불교학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 육군 2군 사령부와 경기도 지방경찰청 경찰관 상담전문위원을 지냈다.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며 을지대 장례지도과 외래강사다. 2009년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운동본부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 감사와 불교상담개발원 자문위원이며 한국불교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죽음의 불안과 공포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첨단 의료기계에 둘러싸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이 죽음이라는 것을 각인시킨다. 사람의 수명 역시 줄기세포 등의 발전덕분에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뭔가를 상실하리라 여기기 때문이다. 죽음은 인간이 가진 가장 심오한 불안의 원천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으로 시작한 죽음에 대한 심리는 죽음에 다가서면서 충격,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허탈 등의 복합적인 갈래로 변화된다. 다만 이는 차례대로 발현하지 않으며 죽음의 순간까지 희망도 포기하지 않는다.

죽음의 실체

그렇다면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신봉하고 의지하는 종교가 수시로 "삶과 죽음은 하나" "이 세상에서 삶을 누리는 순간부터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죽음을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등의 말을 해도 애써 그를 외면한다.

삶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고 죽음은 애써 외면하고 사는 듯 보이지만 정작 우리는 죽음에 대한 주의를 거둔 적이 없다.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는 자신을 부정하고 망각하는 것이며 중심 자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는 실존과 소멸을 동시에 지닌 유기체라는 한계성을 가지고있다. 따라서 죽음을 외면하고 추방하려는 것은 우리를 부정하고 소멸시키는 행위이며 그러한 삶의 방식에 진정한 삶이 깃들 여지는 없는 것이다. 의미 없이 머물다 가는 방식일 뿐이다.

웰다잉 교육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이반일리치의 죽음〉에서 판사 이반 일리치는 그의 삶에 나타난 모든 존재를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거나 방해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피어난 꽃들과 사람들은 아름다운 존재로 그의 삶에 위치하지 않았다. 그가 맺은 주변과의 사회적 관계는 공허한 것이었고 도구로서의 관계는 그 효용성이 종료된 시점에서 항상 해체돼 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당연하고 자명한 일이라고 여겼지만 '일반 인간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죽는다' 는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내 나는 산을 오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내가 산을 오르는 것으로 보였겠지. 그러나 내 삶은 사실은 항상 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을 뿐이었어, …… 그리고 이제 벌써 …… 죽음이야!'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불치병에 걸리면서 죽음이라는 한계상황에 놓여져, 본래(本來)가 아닌 삶이 붕괴하는 것을 보게 되고 공허함에 직면하게 된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추종했던 관습과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처럼 그는 죽음을 통해 본래의 삶을 찾게 되는 것이다.

웰다잉 교육은 이반 일리치가 삶의 끝자락에서 얻을 수 있었던 본래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교육수련 과정이다.

웰다잉의 목표를 이루려면 웰다잉 전문가가 되는 것이 그 지름길이다. 이는 웰다잉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교육과정들이 그 과정을 이수하고 익혀서 해당되는 영역에 접목해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웰다잉 교육은 학습 과정 자체가 그 목적이기 때문이다.

> "죽음을 외면하는 것은 우리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 죽음의 공포 제거하는 웰다잉 공부 통해 삶의 본질 되찾아야"

웰다잉 교육의 목적은 말기 환자와 사별 유가족의 애도를 돕고, 죽음과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데 있다. 또한 죽음과 연관된 윤리, 법, 의학적인 문제들을 착오 없이 처리하고 장례식 등에 관한 일을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웰다잉을 위한 첫 걸음

1)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열 가지를 열거하십시오.
2) 그중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싫은 것을 첫 번째로 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번호를 붙여보십시오.
3) 이어서 실제로 당신이 지금 자신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적어 보고 1), 2)와 비교해보십시오.
4) 만일 같은 항목에 똑같은 순서라면, 당신은 지금 매우 조화로운 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5) 그러나 만일 중요한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가정의 단란함을 거론했으면서도, 지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야할 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잃어버리기 싫은 것	자신의 삶의 목적
1			
2			
3			
4			
5			
6			
7			
8			
9			
10			

웰다잉 교육의 17가지 목적

1) 죽음의 개인적인 철학을 탐구한다.
2) 종교가 가르치는 죽음의 해석을 탐구한다.
3) 개인의 죽음을 인식하고 사색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성취한다.
4) 죽음에 대한 극단적 공포를 제거한다.
5) 죽음을 터부시하는 생각을 바꾸게 한다.
6) 임종심리 6단계를 이해한다.
7) 자살을 예방한다.
8) 환자의 알권리를 인정하고 말기 환자와 소통을 배운다.
9) 안락사 등의 죽음에 과정과 연관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다.
10) 의학, 법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11) 장의(葬儀)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12) 타인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슬픔과 괴로움의 과정을 습득한다.
13) 사별의 슬픔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14) 시간의 귀중함, 가치관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15) 죽음의 예술을 배워 제3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16) 사후 생명의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한다.
17) 노년의 삶의 질을 높고 풍성하게 만든다.

웰다잉 교육 과정은 죽음에 관한 철학, 종교, 심리, 의학, 임종과 호스피스, 장례, 사별애도, 회상과 영성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의사소통 등의 심리 훈련이나 사념처수행, 자애명상, 불교의 '사자의 서' 에 대한 교육, 죽음명상과 같은 내용도 추가된다.

좋은 죽음(Good Death) 12조

다음은 미국의 리차드 스미스(Richard Smith)가 제시한 좋은 죽음을 위한 조건 12가지이다.

1) 죽음이 다가 오고 있다는 것과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2) 일어나는 일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3) 고통완화와 다른 여러 증상에 대해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4) 존엄성과 개인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5) 어디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이 어떤 종류이건 접할 수 있어야 한다.
7) 영적인 지지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 그것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8) 병원 이외에 어디든지 완화의료적인 돌봄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9) 곁에 누가 있어야 하고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발언권이 있어야 한다.
10)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11) 자신의 원하는 바가 존중된 사전의료의향서 또는 유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12)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삶을 공연히 연장시키지 않고 갈 수 있어야 한다.

위 조건들은 언뜻 보기에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위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웰다잉 교육에서 제시한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교육수련이 필요하다. 죽음은 삶의 거울이다. 우리 실존의 타고난 본성이기도 하다. 인간으로서 타고난 이토록 큰 명제를 눈여겨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개학일이 정해진 방학 기간에 숙제를 하지 않고 빈둥대는 철없는 아이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금생(今生)의 숙제(宿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웰다잉 하려면 오히려 정말로 투철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가격 : 215,000원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
(구입하시는 불자님들께는 보시자의 이름을 하단에 넣어드림)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완도 장보고 유적지 복원 다시 불 지펴

최홍 작가 "운주사 천불천탑, 장보고 추모 유적지" 주장

'천년의 비밀, 장보고대사와 화순 운주사' 특별강연이 지난 5월 7일 완도문화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특강은 '천년의 비밀 운주사' 라는 책의 저자 최홍 씨가 "운주사를 천불천탑의 불교 유적지가 아니라 장보고 추모 유적지"라고 주장한 것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1부는 최홍씨의 특강으로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장보고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길' 이라는 주제로 마광남 장보고연구회 회장 강의 및 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을 주관한 사단법인 '완도문화21' 이사장 법일 스님(완도 신흥사 주지)은 "장보고대사에 관한 많은 연구와 업적 재조명, 기념사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결과가 미진하다"면서 "이번 강연이 장보고대사 연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홍 작가는 이날 강연에서 "운주사(雲住寺)는 사찰 이름이 구름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배가 운항하는 절이란 의미인 운주사(運舟寺)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주사가 불교 신앙의 유적인 '천불천탑의 성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낳은 불세출의 해상 영웅 장보고를 추모하기 위한 유적지"라고 밝혔다.

특강 주최측, 장보고 연구 재개해
유적지 복원 앞장서는 계기 돼야



'완도문화 21' 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5월 7일 '장보고 유적지 복원 관련 협약식' 을 맺었다.

특강이 끝난 후 주관단체인 '완도문화21' 은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장보고 연구 및 업적 재조명 · 유적지 복원과 관련한 협약식' 을 갖고, 이번 특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장보고 연구와 유적지 복원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완도는 장보고대사의 고향이자 활동 본거지로, 1997년부터 장보고 유적지가 본격적으로 발굴조사 되면서 장보고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보고가 동북아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중국의 산동과 일본의 교토 등 국제적 연구 작업도 활발히 전개됐다. 그 결과 장보고대사가 창건한 중국 산동의 적산 법화원과 제주 법화사가 복원되었지만, 완도 법화사의 경우 발굴 조사중 고려시대 유물이 나옴에 따라 조사 · 발굴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동원사, 제1회 영유아 수계산림

영 · 유아, 어린이들을 위한 수계산림이 개최돼 지역 불교계의 큰 관심을 끌었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와 어린이 청소년공동체 나무숲은 지난 5월 3일 동원사 대웅전에서 '제1회 나무숲 어린이수계산림' 을 개최했다.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열린 이번 행사는 '2014 빛고을관등축제 봉행위원회' 후원으로 영 · 유아와 어린이 87명과 학부모들이 수계의식에 참여했다.

이날 의식은 동원사 회주 지각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3사 7증사의 스님들이 증명법 사로 참여해 삼보사찰의 정한수 합수의식, 오계설법, 관정 의식, 수계증 수여, 어린이 수계 발원 등의 순으로 봉행됐다.

이날 참가 어린이들은 이마에 청수를 뿌리는 관정과 연비의식을 치른 뒤 수계와 법명을 받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며 살 것을 다짐했다.

수계산림 갈마아사리를 맡은 증심사 주지 연광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부처님의 계율은 사람을 더욱 행복하게 하는 첫 약속이다"며 "수계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복덕, 지혜의 씨앗을 심어, 어린이들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불자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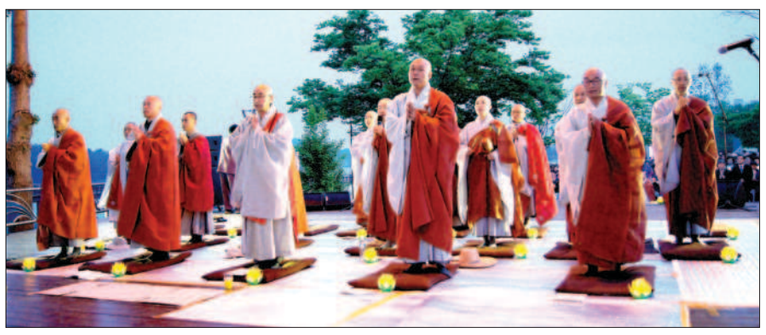
한편 이날 어린이수계산림은 침체에 빠진 영 · 유아 어린이 포교에 새로운 모델 프로그램으로 환영받을 전망이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젊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광주지역 포교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행사는 높은 호응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장 연광스님이 유아 어린이에게 5월 3일 수계연비를 하고 있는 모습

봉축법요식, 세월호 추모법회로 치러져

군부대 · 사암련 · 일선 사찰 등 동참


전북 군산사암연합회 소속 스님들이 5월 2일 군산 은파공원서 추모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전국 곳곳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예정됐던 연등제가 세월호 참사로 인한 범국민적 애도에 동참한다는 의미의 추모법회로 대체됐다.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스님. 상주사주지)는 5월 2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군산 은파공원 특설무대에서 열린 법회에서 사부대중 3백여명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구조, 생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염원했다. 도연스님은 대회사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한다" 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생존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회를 마친 사부대중은 촛불을 들고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은파 물빛다리를 왕복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를 기원했다.

한편 전북 임실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3일 부대 장병들의 안전과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법회는 200여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군 복무중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장병들과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재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보살님께 기원하는 자리였다.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류화산)에서도 세월호 희생자 추모 대법회를 부처님오신날 전야 봉축점등식과 함께 5월 6일 봉행했다.

법회에 참석한 2천5백명의 대중들은 봉축등이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수행과 포교는 새의 양 날개와 같다"

부산 부경대 제주 약천사 회주 혜인스님 초청 법회


혜인스님과 부경대 불교교수회, 동문회와 학생회 회원들이 법회 후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 부경대 불교교수회(회장 배종일)와 불교동문회(회장 한태수) 및 학생회(회장 임종윤)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5월 3일 제주 약천사(주지 성원스님) 회주 혜인스님을 모시고 '알아차림과 어울림(수행과 포교)' 이라는 주제하에 대강연회를 열었다. 이번 대강연회는 제15회째로 부경대 대학본부 대강당에서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배종일 부경대 불교교수회 회장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혜인 큰스님의 높은 법문을 청하게 되어 기쁘다. 참석하신 분들께 법향이 가득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경대학교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목종스님(대광명사 주지)은 "혜인스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력 대보살이시다. 전법과 포교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있는 혜인스님은 평소 내가 존경하는 큰 스님으로, 멀리서 여기까지 와주셨다. 동참하신 여러 인연들께도 스님의 원력이 함께 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혜인스님은 "수행과 포교는 새의 두 날개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수행만 잘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교만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가 양 날개가 없으면 날 수 없고 수레가 두 바퀴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수행과 포교는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르침을 전했다. 혜인스님은 이어서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45년 동안 포교에 애쓰셨다. 우리도 개인의 수행에서 나아가 불법을 전하는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무등산 원효사 김치나눔행사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의 봉축행사가 개최되어 화제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는 지난 5월 3일 '행복한 봄 김치나눔' 행사를 갖고 광주 북구지역 독거노인과 영광지역 재활기관인 난원 등 복지시설에 김치 200상자, 튀밥, 무김치 등을 전달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진행된 이날 나눔은 원효사 신도회, 공옥진나눔밥차, 청년회, 명선차회 소속 봉사단원이 직접 김치를 담아 전달했다.

현지 스님은 "행복은 나눌수록 즐거워지고, 나눔은 실천할수록 복덕이 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효사 주지 현지 스님과 봉사단원이 직접 김치를 담그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구 법왕사 27회 백고좌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5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100일간 100분의 고승대덕들을 초청, 큰법당에서 국가안녕과 호국,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27회 백고좌대설법회' 를 봉행한다.

성열 스님(강남포교원장)의 입재 법문을 시작으로 8월 20일에는 前 해인사 율원장인 혜능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마무리된다.

백고좌(百高座) 법회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백일 동안 매일 한분씩, 1백인의 큰스님을 모셔 설법케 하는 법회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기 613년 신라 진평왕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 들여 설법한 것이 처음이었다.

배현진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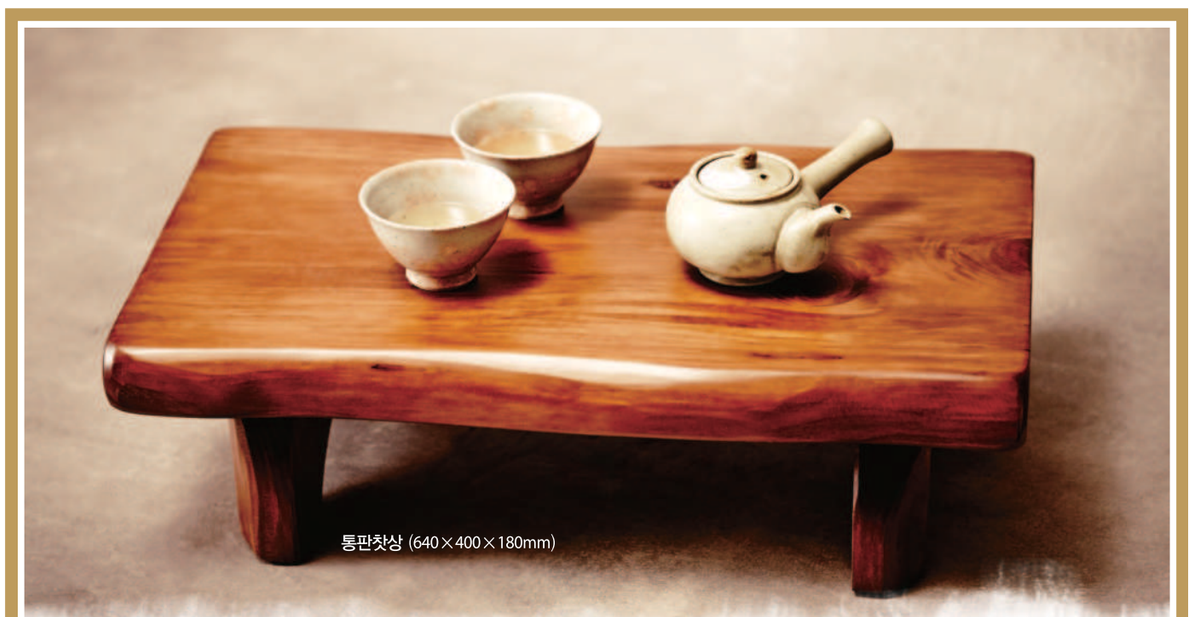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통판찻상 (640×400×180mm)

아름다운 자연의 향기와
전통가구의 정겨움을 담은 수풀림 통판찻상

100% 국내제작

소나무 원목을 사용하여 전통가구 장인이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한 튼튼하고 자연스러운 나뭇결의 아름다운 문양이 살아 숨 쉬는 고급스러운 찻상입니다.
■ 늘 곁에 두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
■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소나무 나뭇결 문양
■ 낙동법을 사용한 전통가구 제작기법으로 제작하여 튼튼한 내구성 보장

입금계좌 농협 121078-56-121535 (류정애) 정가 ~~150,000원~~ 할인가 90,000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기술이전업체
수풀림숯침대(주)
www.supullimbed.co.kr
친절상담 · 주문전화 ▶ 080-999-1080

마하연 투 어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 대만 불광사 공승제 4박 5일
1,190,000 출발 8월 16일

* 중국 지장도량(구화산 황산) 5일
1,090,000 5월 28일

* 중국 지장도량 + 관음도량 6일
1,390,000 5월 9일, 23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고) 5일
899,000 6월 7일, 11일

* 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 바간 헤호) 5일
1,490,000 5월 28일, 6월 11일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5일
1,290,000 ~ 6월 4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4일
990,000

【중국 정통 4대 불산 성지순례】
- 지장도량 (구화산) 5일..... 요금문의
- 관음도량(보타.낙가산) 5일.....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7일..... 요금문의
-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조주 관음원 6일..... 요금문의
- 보현도량 아미산 낙산대불,구채구 황룡 6일..... 요금문의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바간 만달레이 헤호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품격 성지순례】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직항) 7일..... 요금문의
- 은둔의나라라오스성지순례(직항) 5일..... 요금문의
- 인도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 민족의 영산 백두산 성지순례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BORYEON 보련기획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3×6사군자 (7.4ϕ×14.5㎝)

3×6식물성사군자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연꽃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나비양초 – 화이트 / 핑크 / 옐로우 / 살구 / 그린 / 개나리 (7.4ϕ×29㎝)


한봉밀납양초 – 4호 / 3호 / 2호 / 1호 / 밀대전사자 / 돈타레전사자 / 원기둥전사자



수공예예술양초 – 밀납 / 약쑥야광연봉연꽃양초 / 약쑥1호예술연꽃양초 / 야광 연꽃초

100% 핸드메이드 자수방석

사이즈 및 소재 맞춤으로 작업가능하며,
전화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상품으로 제작해드립니다.
수공에 전화상담 : H/P 010-3766-0242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한국의 구법승

10. 황룡사 9층탑 건립 기반 다진 안홍 스님

“황룡사탑, 이웃나라와 대등한 외교 방편”

‘만약 용궁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1층은 일본(日本)이요, 제2층은 중화(中華)요, 제3층은 오월(吳越)이요, 제4층은 탁라(托羅)요, 제5층은 응유(鷹遊)요, 제6층은 말갈(靺鞨)이요, 제7층은 단국(丹國)이요, 제8층은 여적(女狄)이요, 제9층은 예맥(穢貊)이다.’

신라 황룡사 9층탑 당시 건립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글이다. 황룡사 9층탑 건립은 당대 최고의 불사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위상을 널리 펼친 국가적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안홍(安弘) 스님의 건의에 의해서며 건립의 당위성을 표한 이 글도 안홍 스님이 지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삼국유사〉에서는 황룡사구층탑조에서 안홍 스님이 지은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에는 위의 내용이 나온다.

“신라 제 27대에는 여왕이 임금이 되었는데 비록 도리는 있으나 위엄이 없어 9한이 침노하였다. 만약 용궁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1층은 일본(日本)이요, 제2층은 중화(中華)요, 제3층은 오월(吳越)이요, 제4층은 탁라(托羅)요, 제5층은 응유(鷹遊)요, 제6층은 말갈(靺鞨)이요, 제7층은 단국(丹國)이요, 제8층은 여적(女狄)이요, 제9층은 예맥(穢貊)이다.”

뒤이어 〈삼국유사〉 마한조에도 〈해동안홍기(海東安弘記)〉를 인용해 황룡사구층탑조와 유사하게 구한(九韓)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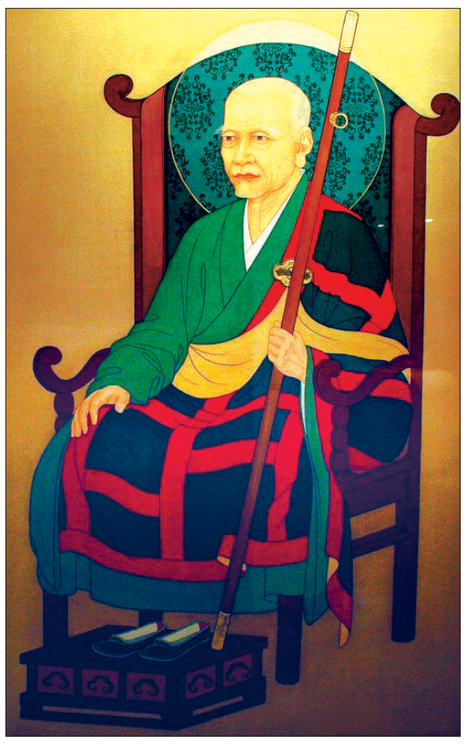
안홍 스님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각훈(覺訓) 스님이 지은 〈해동고승전〉에 나오는데 〈해동고승전〉에서는 안홍 스님을 흥륜사금당십성에 속하는 안함 스님과 동일인물로 이해하고 있다.

안홍 스님, 즉 안함 스님은 〈삼국유사〉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조에 흥륜사 금당에 모셔진 10명의 성인 중 아도(我道), 염촉(猒　), 혜숙(惠宿), 의상(義湘) 스님과 함께 동쪽 벽에 앉아 서쪽을 향해 안치돼 있었다고 전해진다. 서쪽 벽에 앉아 동쪽을 향해 안치돼있던 인물은 표훈(表訓), 사파(蛇巴), 원효(元曉), 혜공(惠空), 자장(慈藏) 스님이었다. 안홍 스님은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중 한명으로 당시도 성사(聖師)로 숭앙받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해동고승전〉에 안홍 스님에 대한 부분은 먼저 안홍 스님이 출가한 내용과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행적을 기록하고, 최치원의 〈의상전〉과 〈신라본기〉 인용을 통해 안홍 스님과 안함 스님이 동일인물인 점을 추정한다. 또 안홍 스님이 신라에서 참서를 지었으며 선덕왕(善德王) 9년인 640년에 입적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한림(翰林) 설모씨가 왕명을 받들어 찬했다는 스님의 비명(碑銘) 내용을 덧붙인다.

안홍 스님은 속성이 김씨로 시부(詩賦)인 이찬(伊湌)의 손자로 태어났다. 스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았고, 성품이 맑고 허심탄회하였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의지가 굳고 깊었다고 한다.

스님은 일찍부터 중생교화에 나섰는데 진평왕 22년인 600년에는 혜숙(惠宿) 스님과 도반(道伴)이 돼 배를 타고 중국 수나라로 향하다 풍랑으로 되돌아왔다. 이듬해 스님은 칙명에 다라 수나라 사신과 함께 수나라에 당도해 수 분제(581~604)를 알현하고 대흥사(大興寺)에 머물게 된다.



흥륜사 금당에 모셔졌던 안홍 스님 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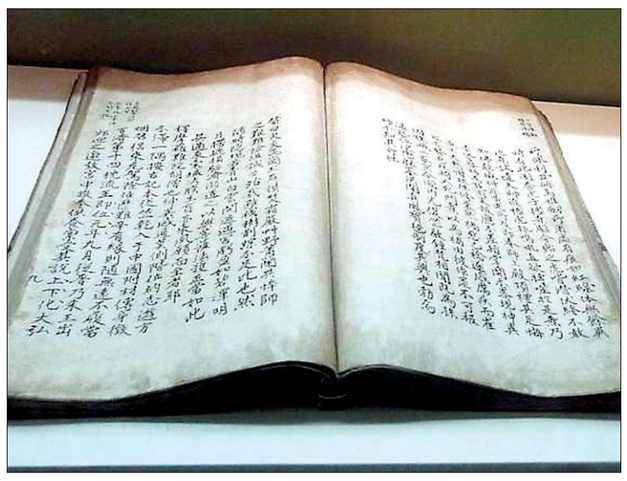


안홍 스님이 건의한 황룡사 9층탑 조감도. 안홍 스님은 대형탑 불사를 통해 신라의 위상을 높이길 주문했다.

〈동도성립기〉에 9층탑 당위성 전해
수나라 유학, 대흥사서 불교 익혀
신라 10성(聖) 중 한명으로 추앙

비마진제 등 서역승 신라 최초 동행
밀교 경전 번역 ‘해동명현’으로 꼽혀
〈참서〉 지어 신라의 국정 방향 제시





각훈 스님이 쓴 〈해동고승전〉. 여기에는 안홍 스님의 일화가 담겨 있다.

스님은 이 소식을 듣고 수나라 문장국(烏　國) 비마라진체(毗摩羅眞諦)의 나이는 44세, 농가타(農加陀)의 나이는 46세, 마두라국(摩豆羅國) 불타승가(佛陀僧伽)의 나이는 46세였다. 52국을 경유하여 비로소 중국에 갔다가 드디어 해동으로 와서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栴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해 내니, 신라의 승려 담화(曇和)가 받아썼다. 얼마 지나 중국 승려들이 표를 올려 돌아가기를 청하므로 왕이 허락하여 돌려보냈다.’ 고 전해진다.

〈삼국사기〉에는 안홍 스님이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불법을 구하러 수나라에 갔다가 비마라(毘摩羅) 스님 등과 함께 귀국하며 〈능가경(楞伽經)〉 〈승만경(勝　經)〉 등 경전과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온 것으로 나타나있다.

다소 연대의 차이는 있지만 안홍 스님은 수나라 문제(文帝)에 의해 582년 세워진 국가종교 근본사원이었던 대흥사(大興寺)에 머물렀으며 신라로 귀국하며 불사리를 전하고 황룡사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황룡사 9층탑의 경우 대흥사에 있었던 사리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홍 스님은 신라에서 참서(讖書) 한 권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신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었다. 그 글자가 흩어져 있어 만든 사람을 알기 어렵고, 그 종지가 깊이 숨겨져 있어 이치를 찾는 사람이 연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스님은 참서에서 △신라의 첫 번째 여자 임금을 도리천(　利天)에 장사지낸다는 것(선덕여왕의 죽음일화) △천리 밖에서 전쟁하던 군사가 패했다는 것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왕자가 고국으로 돌아온 해(김인문이 귀국함) △대군(大君)이 성명(盛明)한 해(신라 통일전쟁 종결 시점)를 예언했는데 모두 어긋남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해동고승전〉에 소개된 참서는 일부 원문이 있지만 대개는 후대에 일어난 사건을 대입한 해석문이다. 원문은 빠른 시일 내에 겪을 이웃나라로부터의 침공과, 그 해결책으로 중국에 대한 적극적 외교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 할 수 있는 논리로써 신라 선덕왕(善德王)이 살고 있는 신라가 곧 불국토(佛國土)임을 주장했을 터다.

안홍 스님은 선덕왕(善德王) 9년인 640년 9월 23일에 만선도량(萬善道場)에서 향년 62세로 입적했다고 한다. 한림(翰林) 설 모 씨가 왕명을 받들어 찬한 비명에는 ‘황후를 도리천에 장사지내고, 천왕사(天王寺)를 세웠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아침에 죽었다.

왕자가 관문을 건너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뵙고, 5년 동안 외지에 있다가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윤전(輪轉)을 피아(彼我)가 어찌 면하겠는가. 나이 62세에 만선에서 입적함에,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스님을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 고 전해진다.

학계에서는 신라 10성 중 한명인 안함 스님과 안홍을 같은 인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안홍 스님이 수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비마라(毗摩羅) 등 두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稜伽經)〉과 〈승만경(勝　經)〉 및 부처님의 사리를 바쳤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돼있는데 안함 스님은 이보다 늦은 진평왕 23년인 601년에야 중국에 갔다고 하므로 연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근본주의자, 남아시아서 종교분쟁 주도한다"

허핑턴포스트, 남아시아 불교 민족주의 집중 보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아시아 불교 국가들이 '종교 민족주의' 색채를 강하게 띠며 이슬람교 등 타종교를 위해하고 있으며, 그 경향의 중심에는 '불교 근본주의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온라인 저널리즘으로 주목받고 있는 〈허핑턴포스트〉 지가 최근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교와 이슬람교 간의 유혈 갈등에 주목하고, "이들 세 나라의 '불교 민족주의'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핑턴포스트〉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종교적 폭력을 서양에 알리고 있는 마웅 자르니(Maung Zarni) 씨의 런던대학 특별강연을 인용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나라에서 불교는 주류 종교로서 '종교적 민족주의' 성향은 물론 '독단적'이고 '호전적'인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불교는 '명상과 요가를 통해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이지만, 이들 세 나라에서는 실상 그렇지 않는 셈이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도인 스리랑카의 경우, 보두 발라 세나(Bodu Bala Sena, 이하 BBS)가 '종교 민족주의'의 정점에 서있다.

스리랑카 이슬람 위원회(Sri Lanka Muslim Congress)에 따르면 BBS는 2013년도에만 241명의 이슬람교도, 61명의 기독교도에게 위해를 가했다. 지난 2012년 스리랑카의 불교문화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설립된 '보두 발라 세나'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목적과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미얀마에서는 작년 한 해만 300여 명의 이슬람교도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사망했다. 이들 이슬람교도들은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의 후손인데, 집단 학살 방지를 위해 설립된 비정부기구 '제노사이드 감시(Genocide Watch)'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이주민들이 미얀마 땅을 밟은 이래 지금까지 불교도와의 갈등으로 300만여 명이 사망했다.

〈허핑턴포스트〉 지는 미얀마 종교 분쟁의 중심으로 '불교 근본주의자'인 아신 위라투(Ashin Wirathu) 스님을 주목하고,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 이주민 자체를 '이슬람교도의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전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의 빈 라덴'으로 불리고 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타임즈(Times)〉 지의 커버스토리에 개제된 인물이기도 하다. 당시 〈타임즈(Times)〉 지는 'The Face of Buddhist Terror'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타임즈(Times)〉 지의 커버스토리에 게재된 인물인 아신 위라투 스님. 태국 종교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로, "태국 내에서 이슬람교도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사진 왼쪽). 스리랑카에서 종교 갈등은 '보두 발라 세나(Bodu Bala Sena)' 등 '종교 민족주의'를 주총하는 불교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불교도의 이슬람 사원 공격을 계기로 벌어진 이슬람교도의 항의 집회.

마웅 자르니…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의 종교폭력 서양에 알려
"불교가 종교적 민족주의, 독단 · 호전적 모습보여"
스리랑카… 인구 70% 불교국, 종교 민족주의 '정점'
미얀마… 아신 위라투 스님 중심으로 이슬람 폭력 조장

당시 아신 위라투 스님은 "급진적인 스님으로 불리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남겼고, 미얀마 정부는 〈타임즈〉 지의 해당 판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태국에서는 불교도의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5000여 명의 이슬람교도 사상자가 발생했다.

〈허핑턴포스트〉 지에 따르면 태국 불교계에서는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조직은 없지만, '자신의 믿음에 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법(blashemy law)이 종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국가 종교로 공인된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사실상 타종교인에 대한 불교도의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들 세 나라에서 '불교' 또는 '불교도'란 의미는 '내 믿음' '내 민족' '내 조국'일 뿐"이라고 지적한 마웅 자르니 씨는 "세 나라 모두 비 불교도에 대해 '불교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태국은 불교도 중심의 급진적 인종차별주의로까지 번진 미얀마와 스리랑카와는 다르다"고 분석하고, "태국 불교계가 향우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며 여운을 남겼다.

스리랑카, 미얀마에는 소위 '안티 다르마 불교 네트워크(anti-Dharma Buddhist network)'라고 부를만한 조직들이 있으며, 전염성이 강한 독감과 같이 태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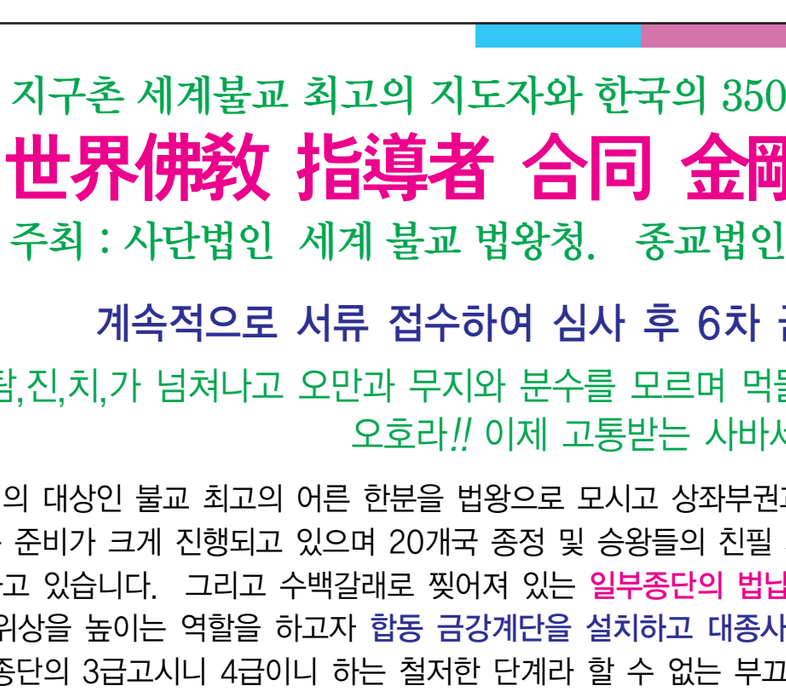
〈허핑턴포스트〉 지는 "근본주의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을 설명할 때 덧붙였지만, 이제 불교나 불교도를 설명할 때도 적극 인용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마웅 자르니 씨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불교와 이슬람교의 적대적인 관계는 13세기 인도를 침략한 투르크 군이 나란다 대학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수천의 스님들을 학살했고, 200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이 바미얀 대불을 폭파했다는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답습되고 있다는 데서도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태국 불교계의 프라마하 본추아 도자이(Phramaha Boonchuay Doojai · 치앙마이 불교대학 수석 교수) 스님의 분석도 인용하며, "지금이야 말로 불교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불교운동'이 전개되어, 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분쟁의 막을 내려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비보이 춤으로 뉴욕 사로잡은 티베트 스님들

불심 깊은 아담 요크 추모… 티베트 독립 염원



2014 MCA DAY를 맞아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4명의 젊은 티베트 스님들이 브레이크댄스를 선보이며 2년 전 타계한 불심 깊은 비보이 아담 요크(Adam Yauch)를 추모하는 한편 '티베트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

티베트의 젊은 스님들이 미국 심장부 뉴욕을 비보이(b-boy) 춤꾼으로 나서 대중의 서선을 사로잡았다.

〈웹프로뉴스〉 지는 6일 "2014 MCA DAY 행사에서 4명의 젊은 티베트 스님들이 브레이크댄스를 선보이며, 세계 각국의 춤꾼들은 물론 행사 관람을 위해 거리로 나선 뉴욕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보도했다.

'MCA DAY'는 세계적인 힙합 그룹이었던 비스티 보이즈(Beastie Boys)의 리더 아담 요크(Adam Yauch · 1964~2012)를 기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춤꾼들이 뉴욕에 모여 추모식과 경영대회를 진행하는 행사다.

〈웹프로뉴스〉 지는 "바비(Bobby), 크리스토퍼(Christopher), 스테판(Stephen), 그로엘(Groelle)로 자신들은 소개한 티베트 스님들은 티베트 불교에 깊이 심취했던 아담 요크를 추모하고, 그가 항상 기원했던 '티베트 독립의 염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연을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中 젊은이들, 불교서 '조화 · 균형' 찾는다

〈인민일보〉, 불자 선언 트렌드 확산

중국 대륙 최대 경제 도시 상하이의 불심이 깊어지고 있다. 영국의 국제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 지는 5월 6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Shanghai)의 젊은 화이트 컬러들이 '불자임을 선언'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또한 "상하이 부유층들이 스트레스를 다스리기 위해 속속 불교에 귀의한 것이 첫 단초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회적 '조화'와 '균형'을 기원하는 첫 걸음으로 귀의하는 화이트 컬러의 예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지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100km 떨어진 양쳉(Yangcheng) 호수 인근 총위안(Chongyuan) 사원의 석가탄신일 기념법회는 변화되고 깊어지는 '상하이의 불심'을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이날 미아오치(Miaoci) 스님 등 50여 명의 양쳉 사원의 스님들이 새벽 4시 30분부터 서두른 석가탄신일 기념법회 준비과정에는 사원의 재적 신도가 아닌데도 기념법회 준비에서 성료까지 함께 한 젊은 불자들이 있었다. 중국의 최대 보험회사 사원들이었다.

"그들에게 상사는 부처님"이라고 말한 미아오치 스님은 "보험회사 대표가 독실한 불자이기는 하지만 총위안 사원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며 "젊은 화이트 컬러 불자들이 이곳에서 석가탄신일 기념법회 자원봉사에 나선 것은 회사에서 가까운 거리의 사원 중에서 규모가 큰 사원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2013년 자신을 불자로 선언하는 트렌드를 앞서는 트렌드는 없었다"는 〈인민일보(People's Daily)〉 지의 보도를 인용하고, "상하이의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무한 경제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속속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는 〈글로벌타임즈(Global Times)〉 지의 보도에 힘을 실었다.



중국 상하이의 젊은 화이트 컬러들 사이에서 자신이 불자임을 선언하는 유행이 일고 있다.

또한 〈파이낸셜타임스〉 지는 "불교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다"며 "그들의 신심에 부흥해 활기찬 불교를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미아오치 스님은 말을 인용하고, "석가탄신일 당일 총위안 사원의 기념법회에 참여한 500여 명의 재가불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이라도 하듯 20대부터 60대까지 고른 분포를 보였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지구촌 세계불교 최고의 지도자와 한국의 350여 종단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불교 지도자들의 법석

世界佛教 指導者 合同 金剛戒壇 & 法王廳 中央政府 閣僚 任命式

주최 :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계속적으로 서류 접수하여 심사 후 6차 금강계단 (일시 추후결정) 지속적으로 봉행함

승가의 탐,진,치,가 넘쳐나고 오만과 무지와 분수를 모르며 먹물 옷을 입었어도 자신을 잃어버린 불쌍한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
오호라!! 이제 고통받는 사바세계를 환하게 밝히는 광명의 해가 솟아 올랐도다.

드디어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인 불교 최고의 어른 한분을 법왕으로 모시고 상좌부권과 대승권 각각 승왕 두분을 모시게 되었으며 각 나라 불교대표이신 승가회 회장 큰스님들을 대승정에 모시는 준비가 크게 진행되고 있으며 20개국 종정 및 승왕들의 친필 싸인 서명을 확보한 정통 세계불교 법왕청입니다. 고승 및 각종단의 종정 및 총무원장을 모시고 각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갈래로 찢어져 있는 일부종단의 법납조차 무시한 진흑탕속의 품수체계와 품수를 내세워 후원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고 승가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자 합동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대종사, 종사, 대덕, 중덕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품수를 수여하는 의식까지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모 종단의 3급고시니 4급이니 하는 철저한 단계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화하고 걸른다는 측면에서 세계불교 지도자 합동 금강계단을 봉행하고자 하며 일체의비용이 없습니다. 이제 각 종단차원의 모든 종도들을 동참시키시어 합동 금강계단의 증명 법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세계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 및 승왕 추대 1080인 위원회

AGGA MAHA SADDHAMMA JOTIKAD HAJA

종단 종정 고승단, 종단 대종사 자문단 추진위원장 SANGGALAJA 대승정 목탁 합장

* 대법원에 등기된 허가번호 2013-82 . 고유번호 101-82-23205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이사장 목탁스님)이란 명칭은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단 하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도매인 세계불교법왕청.com입니다. 이외 사용하는 곳은 이유를 불문하고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명칭도용 임의단체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았다 해도 세무관계 에서만의 명칭사용은 가능하나 대외활동에서의 명칭사용은 위법입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시절인연에 맞는 공부 방편 내놔야

새말귀(新話頭) ①

앞으로도 백년 후 천년 후 만년 후에도 출가라는 법은 있을 겁니다. 그럼 출가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에요.

우리가 똑 같은 중생인데 어떤 분은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서 팔자 좋게 공부를 해. 그러나 중생들은 팔자가 좋지 못합니다. 공부할 팔자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의 고집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다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다. 부처님도 포기한 것 아닙니다.

일체 중생이 개유 불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한 지가 약 이천 년 삼천 년이다 하는데, 그동안에 중생들은 발전해 나가.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전과 같이 그리 안 하더라 해도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부처님이 만약 요새 세상에 오셨다면 방편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방편, 하나도 없앨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도 만약 객관적 여건이 된다면 이전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성을 발견하기 위한 방편, 이것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바탕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바탕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여기 앉은 그대로 온 누리의 사실을 엄숙하게 우리가 알거든요. 안다는 것은 허공성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말이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온 누리에 벌어진 일체만법이 다 허공성이라고" 이렇게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허공성이라는 요 말마디만 알았어. 허공성이라는 걸 딱하게 알게 돼. 그래서 그 실감이 생겨. 다른 것이 실감이 납니다. 그럼 솔직한 말로 우리가 공부하나 안 하나, 지금 현재 미했다 할지라도, 온 누리가 허공성이라는 것, 태양도 허공성, 달도 허공성, 별도 허공성. 그 국토에 있는 만약 다른 세계에 초목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있다면 그것마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은 태양계에 속해 천체 그 속도 알아. 태양의 속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알아. 다시 말해서 이 누리가 있다면 누리의 속도 알아. 꿰뚫어버려. 이거 허공성이라는 말은 그거 아닙니까?

이 말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이 싱겁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거 싱거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벌써 여러분은 부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겁니다. 만약 부처의 지견이 영 메말랐다면 이거 말은 그럴듯해도 곧이 듣겨지질 안 해. 그러나 여러분

> **24시간 화두 드는 건**
> **스님들을 위한 수행법**
> **입산수도를 못하면**
> **그대로 방편 있기 마련**
>
> **일반 사람들은**
> **화두 가지면 안돼**
> **생업전선에 뛰어든**
> **재가자들에게 맞는**
> **새로운 수행법 필요**

들이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안다 말이지. 과학적으로 딱 맞는 얘기를 거부할 필요는 뭐 있냐 말이여. 거부 안 하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 말이지.

부처님 가신 삼천 년 후에 우리는 입산수도를 못해. 입산수도를 못하면 못한 그대로 방편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것이 선지식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업이 중했든지 어쨌든지 입산수도를 못했어. 가정을 가지게 됐어. 자손을 길러야 돼. 사회사업을 해야 돼. 참말로 결단심이 있는 분들은 머리털 깎아 버려. 이 까짓 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여. 깎아 버려. 그래서 가족도 인연을 끊고 홀연히 말이지 출가를 할 수 있지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영웅적이 못 돼. 그러면 영웅적이 못 된다고 하여서 말이지 아야 하고 죽는 거만 기다리느냐 말이여.

여러분도 똑같이 성불을 해야 된다. 불도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부처님의 뜻 일진대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노. 선지식들이 져야 된다. 과거에 숱한 선지식들이 있었지만 요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외치는 사람이 없어. 다른 거야 삼계를 흔든 선지식들이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선지식이 나와야 돼. 나와서 이 시절 이 인연에 맞는 수단과 방편을 세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스님네들은 이십 사시간 전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스님과 같이 되는 것 아닙니다.

좌우간 요새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요 시절에 맞는 이론과 방편, 시절인연에 맞는 방편을 내놔야 돼요. 천년이나 이천년 전, 백년이나 이백년 전에 쓰던 방편, 그 방편은 요새 안 맞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화두. 화두 좋습니다. 지금 화두 가져야 돼. 그런데 요새 화두를 가진다는 건 죽 계속해서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화두 갖는 거 나는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가장 편한, 좋은 계기가 된다 말이죠.

그러나 이 시절 이 인연에 따라서 화두를 가진다는 건, 화두는 스님네들이 갖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두를 가지면 안돼. 왜 그러느냐.

화두는 스님네들 처럼 이십사 시간 전부 가져야 되거든. 순일하게 가져야 되거든. 보통사람들은 회사 나가지 농사짓지 장사하지 자식 키우지 밥 지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끊어져. 그런데 요새 스님네들은 스님네 자기 공부하듯이 시키고 있다 말이죠. 이것이 안 된다 말입니다. 조계사에서도 신도들에게 말한 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님이 와서 들었습니다. 그때 웃습디다. 그때 내 뭐라고 말했냐면, 스님네들 말 듣지 마소 이랬습니다. 스님네들은 스님네들을 위한 말이지 일반인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말이여. 일반인들을 위한 말이라 할 테면 뭣인가 달라야 돼.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과 귀 열려야 상대의 '덕성' 본다

10. 행원례 (行願禮)

② 칭찬여래(稱讚如來)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
於一塵中塵數佛 各處菩薩衆會中
無盡法界塵亦然 深信諸佛皆充滿
各以一切音聲海 普出無盡妙言辭
盡於未來一切劫 讚佛甚深功德海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앞에서 언급을 보류하였는데 서방아미타불이라는 데서 서방(西方)이란 어떤 의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방위로 말한다면 동서남북의 사방이 있고 상중하방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서방이라고 하느냐, 그 까닭은 무엇이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다.

방위를 서방으로 정해 놓은 이것을 불교학 교리에서는 지방입상(指方立相)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다 돌이켜야 되는 것일까? 집중할 방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동서남북, 상중하,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정신이나 행동통일을 할 것인지, 초입자(初入者)에게 뿐만 아니라 숙달된 사람에게도 당황한 노릇인 것이다. 그래서 서방이라는 방위를 못박아 놓았다.

그럼 왜 기어코 서방이라야 하는가? 서방은 고요한 곳이다. 만뢰(萬籟)가 구적(俱寂)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즈너기 가라앉혀 준다. 해는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진다. 동방은 능동적이고 모든 것이 새로 비롯하여 움직이는 아침을 상징한다면 서방은 이와는 반대로 하루의 노동이 끝나고 모든 번뇌와 투쟁과 생활이 움직임을 거두어들여 조용한 휴식으로 들어가는 밤을 가리킨다. 황혼과 밤은 우리가 이마에 땀을 씻으며 조용히 가라앉는 마음으로 사색과 명상에 잠기는 때다. 공초 오상순(空超 吳相淳)은 '아세아의 마지막 밤 풍경'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은 아주 훌륭한 시며 우리 동양의 모든 사상의 근원이 밤을 사랑하는데 있음을 노래하였다. 밤은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니르바나를 준다.

그리고 칭찬여래(稱讚如來)하는 여래에 대하여 다시 말한 것은「이와 같이 오셨다」는 것, 세존이니 불타니 하는 성스러운 어른으로서야 오고 가는 것이 없을 터인데 여래라고 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법하다는 그것이다. 앞에서 선서라고 하였을 경우로 본다면 여거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며, 또 우리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이 머물러 계시다고 한다면 여주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 예는 없다. 우리를 편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우리 죄 많고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을 건지려고 '이렇게 오셨구나' 참말 고맙고 반가운 일이다. 하는 우리들의 신앙 본위에서 나온 사상이라고 본다. 여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한결 정답다.

그러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려고 이와 같이 오신 여래를 우리는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여기서 먼저 칭양하고 찬탄하는 그 일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칭양과 찬탄을 하는데는 무

> **남의 훌륭한 점 발견하고**
> **칭찬할 줄 아는 사회는**
> **그것만으로 위대하다.**
> **남의 덕 알아보지 못하면**
>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
> **남을 업신여기고**
> **중상 모략하면**
> **눈과 귀 · 총명이 막혀**
> **불행이 당도한다.**

엇보다도 대상자의 덕을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또 그 덕에서 나오는 말을 잘 가려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한다.

이 칭찬여래가(稱讚如來歌) 사절 중의 전반은 '눈'으로 보는 진수불(塵數佛), 티끌속에 충만한 제불(諸佛)을 노래하였으며 후반은 '귀'로 듣는 음성해(音聲海)와 묘언사(妙言辭)를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가 중도를 얻어 유(有)와 무(無)의 두 극단에서 벗어나 운명론에 빠지지도 않고 절망에 허덕이지도 않아, 끝내 니르바나에 도달하였을 때는 즉 붓다를 깨쳤을 경우에는 또 눈과 귀가 열리어 잘 보고 모든 것을 환히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눈이 바로 꿰뚫고 보고 귀문이 열리어 스스로 깨친 행동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어 각행이 궁만해진다. '눈이 뜨이어 귀문이 열리어' 하는 싯귀(詩句)라도 읊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상자의 덕을 알아보는 눈과 또 알아듣는 귀를 가진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평하기는 쉽다. 더욱이나 중상하고 모략한다면 그것은 대상자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덕을 보는 안목도 없고 귀도 막혔다는 것이 된다.

그런 사람은 총명이 막혔다고 할 수 밖에 없으니 불행이 당도해 있는 것이며 아주 경계해야 할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다. 남의 훌륭한 점을 발견하고 알아 보고 칭찬할 줄 아는 사회와 민족은 그것만으로도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남의 덕을 알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특성을 발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흔히들 무심결에 부족한 생각을 가진다.

스스로는 별 신통한 공부도 노력도 하지 않고 공연히 남을 업신여기는 수가 항상 있다.

이러다가도 강한 사람의 압력에는 쉽게 굴복하고 빌붙는다. 어쩌다 부강한 외국 이야기라도 듣게 되면 그만 사대주의에 꽉 차서 제 정신 못차리고 격에 맞지도 않는 외국풍을 피우려고 드는 것이다. 사대주의(事大主義)와 당쟁(黨爭)은 우리 국사(國史)의 치욕적인 결함이지만 이것이 고려말로부터 조선의 전 역사를 통해 두드러진 원인은 우리가 적을 만들어 내어 서로 싸울 줄만 알았지 상대방이(비록 적일지라도) 얼마나 장점이 있으며 훌륭하다는 것을 알아내어 포섭한다는 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쟁이란 것은 아주 비열하게 중상과 모략으로만 일관하여 서로 잔학한 살육을 일삼았으며 빈번히 국가, 사직 조차도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 넣었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6〉

"누가 도를 모르리오"

제자 탄허에게 보낸 답서 (1)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족히 도(道)에 향하는 정성스러움을 알겠노라. 나이가 젊고 기운이 넘쳐서 일을 함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때에 능히 장부의 뜻을 세워 위없는 도를 배우고자 하니, 숙세(宿世)에 심은 선근(善根)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오. 찬탄하고 찬탄하노라.

그러나 도(道)는 본래 천진(天眞)하고 정해진 장소가 없는 것이니, 실로 따로 배울 게 없네. 만일 도를 배운다는 생각이 있다면 문득 도를 모르게 되는 것이니, 다만 그 사람의 한 생각이 진실함에 달려 있을 뿐이다. 또한 누가 도를 모르리오 마는, 알고도 실천을 하지 않으므로 도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네.

예전에 시인 백락천(白樂天)이 조과선사(鳥?禪師)에게 도(道)에 대하여 물었더니, 조과선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하였다네. 그러자 백락천이 말하기를, "그런 말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라고 하였네. 조과선사가 말하기를,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비록 말은 할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이라도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으니, 이 말은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으나 그 가운데 심오한 도리가 있네. 심오한 도리는 원래 별 것 아닌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굳이 시끄러움을 피하여 고요한 것을 구하거나 속됨을 버리고 참됨을 구할 필요가 없네. 항상 시끄러운 데서 고요함을 구하고 속됨 속에서 참됨을 찾아서, 구하고 찾음이 없는 데 이르면, 시끄러운 것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요, 고요한 것이 고요한 것이 아니며, 속됨이 속됨이 아니요, 참됨이 참됨이 아닌 것이네.

폭지(爆地), 졸지(猝地)에 일체 생각이 다 끊어질 것이니, 이러한 시절을 무어라고 말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한 사람이 허(虛)를 전함에 만 사람이 실(實)을 전하는 도리(一人傳虛 萬人傳實)라는 것이네. 그러나 간절히 바라노니, 잘못 알지는 말게나. 한 번 웃노라.

한 암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제자 탄허스님에게 보낸 답서이다. 탄허스님 나이 20세 때로 이 때는 탄허스님이 아직 입산하기 2년 전이다. 다시 말하면 탄허스님은 입산하기 2년 전부터 한암선사와 서신을 통하여 문법(問法)했던 것이다. 2년간 약 30통 가량 왕래했다고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두 편에 불과하다. 이 편지는 그 가운데 첫 편지이다.

한암스님은 무상도(無上道, 佛法)를 배우고자 하는 탄허스님의 기개를 칭찬한 다음, 도(道)는 고상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으므로, 시끄럽다고 조용한 곳을 찾거나, 속(俗)을 버리고 진(眞)을 찾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진속(眞俗)이 둘이 아니라는 것[眞俗不二]이다. 그러므로 시끄러운데서 고요함을 찾고 속(俗) 속에서 진(眞)을 찾아서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가 진정으로 진망(眞妄)을 떠난 참된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불법의 진리는 고상한 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세속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므로 입산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도 들어 있다. 또 깨달음이란 졸지, 폭지 즉 한 순간에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탄허스님 입산 전 문법(問法)서신
2년 동안 30통 주고받아
2통 만 전해져, 그 중 첫 편지
원본 없고 탄허스님 외워 전한 것

불법 배우고자 한 탄허 칭찬
"도는 일상 속에 있는 것,
세속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

일인전허 만인전실(一人傳虛 萬人傳實)이란 원래 불법이란 공(空)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것(虛)인데, 한 사람(부처님)이 있다고 전한 결과 만인이 그것을 실(實)로 전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불법(佛法)의 위대성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다. 금강경에 "無有定法 名아욕다라삼먁삼보리"라는 말처럼 있다고 한다면 관념의 집착이 된다.

이 편지는 원본이 남아 있지 않다. 제자 탄허스님이 외우고 있다가 화엄경 특강 때 알려 준 것이다. 또 이 편지는 언제 보낸 것인지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그런데 탄허스님 법어집인 〈방산굴법어〉 연보 1932년에 보면 "이 해 음력 8월 14일에 처음으로 방한암스님에게 서신을 보내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한암선사의 이 답장은 1932년 9월경 보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재산은 후손에게 물려 주는 것 아닌 세상에 되돌려 주는 거죠"

주필거미박물관 김주필 관장 (前 동국대 교수)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재산이 있다고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저도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없거든요. 그러니 이 생에 모은 재산이라면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어요. 어느날 자식들한테 선언을 했죠. 공부는 마음대로 시켜줄 수 있지만 유산은 결코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재산은 세상과 나눌 거라고 말이죠. 이 생에서 누리는 것이 온전히 제 것인게 없잖아요. 세상에서 받은 거지. 그러니 당연히 불자로서 나누는 것이 큰 행복이죠."

김주필 주필거미박물관장(前동국대 교수)은 나누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누구나 나누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김 관장은 2009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박물관과 수석전시관 도서관 동물사육실 등 부속시설을 모두 동국대 기증을 확정했다. 거미 표본과 관련한 화석 곤충 표본 광석 등 25만여점과 부동산과 건물 전시물을 합치면 그 가치는 200억원에 달한다.

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고자

그가 이렇게 큰 재산을 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세상에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제가 장학금 수혜자에요. 고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모두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나도 돈 벌면 꼭 제가 받은 걸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기금이 모아지면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선발해 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청소년 시절, 가정형편 때문에 아버지가 교사로 재직하던 농고에 들어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서울로 가출, 1년을 방황하다 배재고에 입학했다. 이후 서울대 동물학과에 들어가면서 삼성 故이병철 회장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다. "당시 한 학기 등록금이 6~7천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당 장학금이 3만 8천원 나왔어요. 그 돈이면 책 사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죠. 나는 한번도 그 분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평생 그 분을 잊지 못합니다. 나를 대학에 다니게 해준 분이고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분이죠."

이렇게 장학금으로 공부한 김 관장은 앞으로 장학기금을 모아 동국대 우수학생 10명을 선정 학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5천만원 정도 기금이 모여 있어요. 목표 금액인 5억이 모아지면 전액 장학생은 물론 한국의

장학금 수혜자로 학업 마치고
20대 시절 백양사서 고시공부 중
조실스님의 조언으로 진로 변경
외교관 꿈 접고 학원 강사로

40대에 동국대 입학
100여국 다니며 30만 마리
거미 채집하며 박사학위 취득
2004년 남양주에 거미박물관 설립
박물관과 전시관 거미 표본 등
200억원 재산 동국대에 기증

"거미박물관 기반으로 기초과학
학습장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

생물학도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단 한명이라도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교수의 나누는 마음은 지난 2010년 거미박물관 내에 오픈한 연미술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미술관은 신인작가들이 작품을 무료로 전시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장소다. "신인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싶어도 그만큼 여유가 없잖아요. 이곳에서 마음껏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3억원을 들여 조성한 연미술관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어느날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다가와 '선생님' 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조각 하던 친구였는데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는 인사차 아직도 미술하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 친구를 돕기로 마음 먹었어요. 재료비를 대주겠다고 했어요. 자신의 작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이죠."

그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앙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게 되었고 상금으로 프랑스 파리 유학 기회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학생은 비행기표값이 없어 망설였다. 김 관장은 학생이 감사의 뜻으로 그에게 전한 작품을 되돌려주었다.

"그 친구가 상을 받으니 작품 값이 열배가 뛰었어요. 그러니 그거 팔아서 비행기표 사고 생활비도 쓸 수 있을 만큼 큰돈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작품을 팔아 그 돈으로 유학을 갔고 이제는 한 대학의 어엿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관장은 가난한 예술가들이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작품 활동을 접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박물관 내에 무료공간을 만들었고 자신의 소장품도 미술관에 기증, 나눔 공간을 만들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만난 불교

김 관장은 매일 아침 일어나 30분 정도 좌선하며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미션스쿨을 다니며 자연히 기독교 신자가 되었던 그가 불자가 된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제가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외교학과로 편입을 했어요. 외무고시에 합격해서 해외로 나가고 싶었어요. 1960년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어 보였거든요. 암울했어요. 그냥 무작정 도망만 가고 싶었죠."

그렇게 외무고시 공부를 하러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백양사였다. "3개월쯤 공부 하고 있는데 조실스님께서



주필거미박물관은 거미 표본과 거미사육실 화석 등이 전시되어 있다.



관람 온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설명해주는 김주필 관장



석좌교수 임명 당시, 오영교 前동국대 총장과 함께



천비록 天秘錄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 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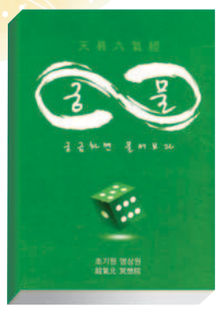
지비록 地秘錄
(수도사가 쓴 한인·한웅·단군 이야기)
대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뿌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수도사가 쓴 대한민족의 고대 7,000여 년 역사이야기
값 15,000원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웹진 인비록 http://www.ddblog.co.kr
값 15,000원

도서구입문의 : 전화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예스24/
철도문고/불광문고/홍문당/보문불교/중앙출판/세원출판/처용서림
경주불교/영광도서/세기서림/홍지서림/탐라도서 등 절찬리 판매중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물어 알게됩니다



天易六氣經
궁물
궁금하면 물어보라

◆천역육기경은 우주삼원에서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삶의 돌파구!

운기 · 사업 · 소원 · 결혼 · 매매 · 대인 · 실물 · 가출인 · 출산 · 소송 · 여행 · 취직 · 시험 · 이사 · 질병 · 지능 (직업)

이들을 알고자 하시면 육기주를 두 번 굴리세요.
문제에 답이 풀립니다!
누구나 쉽게
궁물할 수 있습니다.



"책" 궁물은 영원한 동반서!!!

주문처 : 1588-5654. 010-3743-9943
정가 10만원 / 계좌 : 농협 195-02-157774 박규화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며, 주문시 즉시 배송하여 드립니다.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직인 개인(改印) 공고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직인을 다음과 같이 개인합니다.

1.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새직인



2. 직인 개인 일자 : 2014년 5월 1일
3. 직인 개인일 이후로부터 과거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직인은 무효임을 알립니다.

2014년 5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봉서사 주지 도산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

부르시더니 다짜고짜 절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제 짐까지 싸놓고 말이지요. 이유를 알 수 없어 제가 뭘 잘못했냐고 물었죠. 스님께서는 제가 재복은 있는데 공직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직생활 하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다 봐주다가 쇠고랑 찬다는 거에요. 듣고보니 맞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짐 싸서 나왔지요."

그렇게 절에서 내려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그는 무작정 종로 거리를 걷게 된다. 그런데 마침 이전에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학원원장을 만나게 된다. 학원원장은 학원강사 일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게 된다.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로 하던 학원강사를 직업 삼아했어요. 종합반이 잘 됐는데 누군가가 단과로 바꿔 볼 것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딱 한 시간만 시간을 내 하게 됐어요. 그때 엄청나게 학생들이 모이면서 인기강사가 됐어요. 단과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죠. 당시 삼성 비서실에 근무하던 친구 월급이 1만 5천원이었고 교사 월급이 7~8천원이었는데 제가 월 170만원을 벌었어요. 이후 학원을 경영하게 되면서 큰돈을 벌었죠.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 백양사 조실스님이 생각났어요. 한번 찾아뵈려고 마음을 먹으니 이미 입적하셨더라고요. 늘 죄송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있던 그는 정계 쪽에서 제안이 올 때도 절대 돌아보지 않았다. "국회의원 등 정치가로서 제안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나이 마흔이 될 즈음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학원운영을 접고 동국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청정지역에만 살아 환경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미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박사과정을 밟고 1990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전 세계 100여 국을 다니면서 거미 30만 마리를 채집했어요. 나중에 학위를 받고 나니 이걸 전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박물관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불자와 거미박사 사이에서

그는 동국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불자로서 동물을 채집해 실험한다는 것에 대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박사과정 시절, 마곡사에 가서 방 하나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지 스님께서 살생하는 사람 쓸 방은 없다고 가라고 호통을 치셨죠. 제가 '인간을 위해 거미 연구를 한다' 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 한 스님께서 나서서 이를 중재해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동국대 재단이사장 진경 스님이셨어요. 스님의 도움으로 마곡사에서 머물 수 있었죠."

김 관장은 거미가 환경지표이며 이를 통해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비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미래에는 생물유전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콩, 벼, 보리 등 오리지널 표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엄청난 재산이 될 것입니다. 한국 거미는 대부분 수명이 1년인데 죽기 전에 보관하는 것이 먼 미래를 봐서는 살생이 아니라 기초과학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해요. 이렇게 보면 살생이라는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죠."

89년 진경 스님과 독일에 간 일은 그가 불교의 위대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계 학계 저명인사 대담을 했어요.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불교는 심오한 철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종교와 학문으로서 모두 다 손색없이 훌륭하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죠."

이후 불교 관련 서적을 읽어 나갔고 동국대에서 진행되던 불교학개론 수업을 찾아 듣기도 했다. "당시 권은주 교수가 불교학 개론 강의를 했는데 무척 쉽게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교수인 제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들어오니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분이 곧 나올 책이라며 미리 가본 자료를 건네며 공부하라고 권했죠. 그 책이 정말 불교를 쉽게 풀어 설명해서 일목요연하게 불교를 알 수 있었죠." 이처럼 그는 불교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었고 삶을 내려놓는 지혜도 얻을 수 있었다.



김주필 교수는 … 1943년 황해도 연백군에서 출생했다. 1967년 서울대 동물학과를 졸업했고 거미 연구로 1984년 동국대 이과대에서 생물학과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동국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4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에 거미박물관을 건립 2009년도에 박물관과 부속건물, 도서관 등 200억 상당의 유산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저서로는 〈거미생물학〉〈거미박사 김주필〉〈유용거미류〉 등이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김 관장은 박물관을 다녀간 학생들이 순수기초과학의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래서 생물, 물리, 천문학을 아우르는 종합학습장으로 박물관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김 교수의 꿈이다. "박물관 인근이 동국대 학술림 부지라 박물관과 연계해 다양한 용도로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물관이 앞으로 기초과학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시설을 더욱 보완한다면 서울 인근의 학생들이 찾아와 관람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초과학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주필거미박물관이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전법일기

총 겨눈 베트콩에게 설법하다

군승으로 임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월남전에 참전한 나는 직접 총을 쏠 일은 없었지만 전투부대에서 병사들과 동거동락을 함께 했다.

틈나는 대로 각 부대를 찾아다니며 전투로 지친 장병들에게 설법을 하기도 했고, 불가피한 살생이 아니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워낙 전투가 치열했기에 불법을 전하는 시간보다 죽거나 다친 장병들을 천도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러던 중 월남에서 한 스님을 따라 월남 한 사찰을 방문했다. 그러던 중 사단이 발생했다.

느닷없이 군복입은 사나이가 나를 향해 총을 내밀었다. 베트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비록 스님 신분이었지만 전투복 차림이었기 때문이다. 누가봐도 나는 그들의 적이었다. 더구나 겉으로 봐서는 장교 차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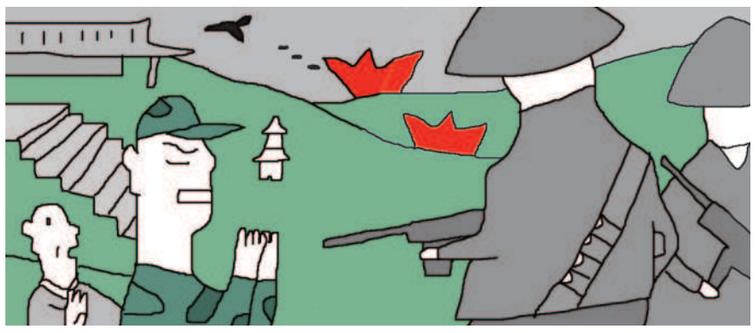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베트콩들이 들이닥치자 순간 아득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군생활 내도록 한시도 잊은적 없는 부처님의 제자라는 생각이 용기를 나게 했다.

월남 스님이 나섰다. 이분은 군인이 아니라 스님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을 가로막았다. 월남에서 스님의 사회적 지위는 베트콩이든 월남군이든 절대적이었다.

그래도 베트콩들은 날 죽이겠다고 총구를 들이댔다. 하는 수 없이 월남 스님에게 통역을 부탁하고 내가 직접 나섰다. 생사의 순간이었다.

"이 옷 때문에 날 죽이려는가? 이 옷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를 죽이려 한단 말인가? 난 살육이 그치지 않는 월남 땅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온 한국의 스님이다. 군인들을 따라 월남에 왔지만 난 여기 계신 스님과 똑같은 수행자다. 보다시피 총도 갖고 있지 않잖은가? 부처님의 제자까지 죽여가며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가? 수행자까지 죽여야만 얻어지는 좋은 세상이 있다면 어디 한번 죽여보시게. 내가 죽어 당신들이 바라는 세상이 찾아올 수 있다면 마땅히 죽어주겠네."

그러자 그들은 총구를 내렸다. 그들의 불심은 한국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다. 월남은 인근 태국이나 캄보디아, 미얀마 등지처럼 불교신앙이 생활화 돼있는 나라다. 그래서 사찰이나 승려만은 결코 건드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불문율이었다.

베트콩들은 그 무서운 표정을 거두고 얌전해지더니 내게 합장을 하고는 물러갔다. 월남 스님과 나는 차를 마저 마시고 나누던 법담을 계속 할 수 있었다.포성이 진동하는 월남에서 이런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국내에서도 이런일은 있었다. 그 무렵 삼청교육대라는게 있었는데 군승들은 이 부대 입소자들에게 인격, 정신순화 교육을 맡았다. 문제는 어느날 도로작업에 동원된 교육생 두명이 지나가는 버스를 향해 담배를 달라고 외쳤는데, 승객 중 누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담뱃갑을 던져 주면서 발생했다. 담배를 피워 물자 군에서는 규정위반을 엄격히 대응했으며 옥신각신하는 과정에 이 교육생이 기간병이 가진 총을 뺏어 들고 막사에서 대치한 것이다. 한밤 중 호출에 웃옷을 벗호 러닝셔츠 차림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일시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필경 실패자가 되고 만다. 모두 털어버릴 것은 털고 당당히 벌을 받자"는 말에 총은 모두 수거됐다.

베트콩의 총구 앞에서, 분노에 찬 삼청교육대 교육생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처님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불법 앞에서는 베트콩이나, 나나, 월남 스님이나, 모두 공업 중생이었다. 우리는 서로 죽고 죽는 전쟁터의 아군과 적군이 아닌 동체대비의 한 몸이 될 수 있었다.



자광 스님
(前 군종교구장 · 용인 반야선원 주지)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에서 5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영산불교는 왜곡되고 왜소화된 세계불교를 바로잡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갑니다.





■ 세계 어느 불교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불법의 정수를 영산불교대학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 부처님께서는 시공과 유무를 초월한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십니다.
▷ 왜곡된 무아론을 바로잡고, 영혼체가 인간의 본체이며 윤회와 해탈의 주체임을 주장합니다.
▷ 사후에 가는 지옥 등의 육도윤회세계와 극락 등의 해탈세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 인간과 우주탄생의 깊은 비밀을 인류사상 최초로 밝히고 있습니다.
▷ 칭명염불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정통성 있는 수행법입니다.

■ 영산불교대학에서는 다양한 과목과 체계적 교과과정, 우수한 강사진을 통해 깊고 방대한 부처님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수준 높은 불자 양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 입학을 통해 교학과 신심, 그리고 수행으로 이어지는 불자님들의 신행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입학처 및 연락처

대전분원 : 042)525-5325, 042)525-5345
춘천본사 : 033)243-1787
고성분원 : 033)681-5515
제주도 제2본산 : 064)783-5355
서 울 분 원 : 02)453-5953
부산분원 : 051)554-5150
대구분원 : 053)654-5557

2014년도 영산불교대학 5기 수강생 모집 안내

■ 모집인원 : 1 · 2 · 3 · 4학년 각반 150명 선착순 모집
■ 입학자격 : 제한없음. 처음 입학하시는 분은 1학년만 입학가능.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순서로 매년 승반
■ 수업일정 : 2014년 5월 24일 ~ 2014년 11월 30일
월 2회 – 격주 토요일 (4시간 강의)
■ 입학일시 : 2014년 5월 24일 10시
■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1392
■ 교육과목

1학년	부처님의 생애, 신불교사상, 칭명염불수행법, 금강경사경, 불교예절, 찬불가, 특강
2학년	지장경, 천수경, 반야사상, 정토학, 신불교학개론, 찬불가, 특강
3학년	법화경, 아함경, 열반경, 금강경, 세계종교비교 I , 특강
4학년	보현사상, 문수사상, 신불교학과 철학, 세계종교비교 II , 특강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삶의 가치는 생각·말·행동의 질에 있어



타인이라는 여행

틱낫한 지음
진현종 옮김
RHK펴냄
1만3천원

상대를 아주 잘 알고, 꿰차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눈빛만 봐도 알지"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한번쯤 되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나는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하고 말이다.

이 책은 타인과의 인간 관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혹은 관계를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한 소통의 기술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는 책이다.

저자인 틱낫한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영성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90평생 가까운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성자가 되어버린 투사'에 가깝다. 정치적 탄압으로 조국 베트남을 떠나 프랑스로 망명한 삶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이번 책에서는 개인의 마음챙김서 한걸음 나아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기존 그의 저서들이 명상과 마음 다스리는 법에 초점을 뒀다면 이 책은 타인, 더 나아가 사회와의 소통에 좀 더 비중을 뒀다. 어떻게 보면 '평화 액티비스트(activist)'로서의 그를 가장 잘 드러낸 책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 소통은 몸과 마음을 살찌우는 좋은 음식과 같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로운 대화는 독소를 섭취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나쁘고 불안전하게 만드는 불통의 상황에 노출돼 있다.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서 누군가가 내뱉은 욕설, 직장에 출근해 인사 했는데 대꾸조차 없는 상사, 그리고 개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뜻밖의 재앙들과 이를 여과 없이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다양한 매체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건은 나와 타인, 사회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자각한 재난이었다.

저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머니와 아버지, 조상, 사회, 국가의 고통이 함께 들어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개인의 마음챙김서 더 나아가 가족, 친구, 직장, 국제적 갈등 속에서 올바르게 소통하고 관계 맺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인 틱낫한 스님에 따라붙는 수식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가 무엇보다 종교를 넘어서 '이 시대의 뛰어난 소통자'로 불리는 이유는 특유의 전달력에 있다. 우선 초등학생이면 이해할 정도로 메시지가 쉽고, 간결하다.

이 책에서도 그런 그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우리가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인식하지 못했던 '불통의 비밀'을 들추어내는 저자의 예리한 혜안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은 프랑스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상흔과 칠십여 년을 수행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에 대한 치열한 통찰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모든 가르침에는 네 가지 규범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세상의 언어로 말한다. 세속적 방식으로,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쓰고 사물을 보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미 생각이 같은 사람들하고만 소통할 수밖에 없다. 둘째, 듣는 이의 마음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말해야 한다. 셋째, 질병에 맞는 약을 처방한다. 세속의 언어를 쓰되 닥치는 대로 막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의 기술 노하우 전해줘
"진실을 말하되, 요령 있게 말하라"
소통은 타인과 유대관계 강화시켜

네 번째 규범은 사물에 대한 심오한 견해, 즉 절대적 진리를 반영한다. 이는 추상적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깊숙이 살피거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함께 논의할 스승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의논할 수 있다. 그가 말하는 규범들은 공개석상서 전문용어를 쓰는 교수나 전문가들, 민감한 사회 이슈를 다루는 매체 관계자들이라면 한 번쯤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다.

저자는 이 책에서 지금 바로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섯 가지 주문도 소개한다. 어떤 미사여구도 없지만 그렇기에 담백하게 더 와닿는 말들이다.

첫 번째 말인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어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다. 두 번째 "나는 당신이 함께 있음을 알기에 행복해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존재가 우리에게 중요함을 알려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소에 혹은 중요한 순간에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세 번째 말인 "나는 당신이 괴롭다는 것을 알기에 여기 있어요"는 상대방이 괴로워함을 인지했을 때, 그 괴로움을 줄여줄 수 있다. 네 번째 "괴로우니 제발 도와주세요"는 괴로움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을 때 힘들겠지만 사용하라고 말한다.

특히 네 번째 말은 자존심이 높은 사람에게는 힘든 말일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주문 "지금이야말로 행복한 순간입니다"는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불러오는 말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가 몹시 운 좋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문인 "일리 있는 말입니다"는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겸손함과 정직함을 지켜주는 말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성(佛性) 가진 당신에게 던지는 화두

누가 불두에 황금똥 쌌나?

고준환 지음 | 본각선교 펴냄 | 1만8천원



불두착분(佛頭着糞)이란 말이 〈경덕전등록〉에 전해진다.

최상공이라는 사람이 한 절에 갔다가 참새가 불상 머리 위에 똥싸는 것을 보고 주지스님에게 물었다.

"참새에겐 불성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놈들은 부처님 머리에 똥을 쌉니까?"

"그럼 저놈들이 왜 독수리 머리에는 똥을 싸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늘 새똥을 뒤집어 쓴 모습으로 오신다. 그걸 알아본 참새에게 왜 불성이 없겠는가. 그후 중국의 구양수가 책 신오대사를 완성했을 때, 사람들이 서문을 지려하자, 왕안석은 "부처님 머리 위에 어찌 똥을 바르겠는가?" 하고 비웃었다. 그 뒤 '불두착분'은 '남의 책에 부족한 서문을 붙인다'는 뜻도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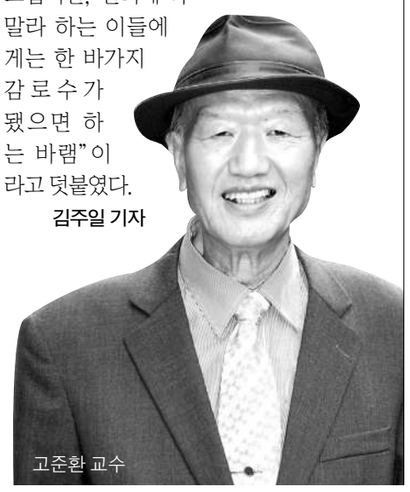
저자인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본각선교원 원장)는 서울대 법대 1년 시절인 1961년, 부처님오신날 서울법대 법불회 법회서 청담 스님의 마음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을 접했다. 그로부터 '나'와 우주의 진리에 관한 관심은 늘 저자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후 '명심견성 성불제중(明心見性 成佛濟衆)'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 탄허 · 설송 · 혜암 스님을 비롯해 김동화 교수 등 수많은 선지식들에게 배웠다. 그 덕분으로 저자는 선정을 비롯해 신선도 · 초월명상 · 아바타코스 등 다양한 수행 체험도 하게 됐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주는 본각이고, 불이중도며, 적멸이고 부처니, 중생이 본각으로 살아가려면, 신해행증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각은 중생을 떠난 적이 없고, 새로 깨달은 시각이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닌 본각이요, 구경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생이 선교일치(禪敎一致)로 크게 깨달아 중생불(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하는 일이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저자의 본각론이다. 이에 저자는 반 백년이 넘는 불교공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로 이 책을 현대에 맞게 저술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제목인 '누가 불두에 황금똥 쌌나'는 독자에게 드리는 저자의 화두인 것이다.

저자는 "제자로서 탄허 스님 열반 30주년을 맞아 살아생전 선교일치의 체험적 불교개론서를 쓰시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열반에 드신 스승의 뜻을 기리고자 출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저자는 "이 책이 개안종사들에겐 쓸데없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지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는 한 바가지 감로수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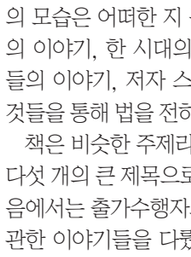
고준환 교수

김주일 기자

불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설법을 듣는다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법현 지음 | 프로망스 펴냄 | 1만5천원



2005년, 50여년 된 전통시장 건물 2층, 도량 자리로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 저잣거리에 '열린선원'이란 전법도량을 열고 불법을 전하고 있는 법현 스님이 그 동안 치열한 전법을 펴며 남겼던 글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세상에 모든 것은 덧없으니 그것은 곧 나고 죽는 이치일세" 사람 잡아먹는 귀신 나찰이 게송를 읊었다. 나찰의 게송을 들은 청년은 다음 구절을 듣기 위해 나찰에게 목숨을 건다. "나고 죽음이 없어지면 고요하고 쉬어 즐거움이 되리" 청년은 나머지 게송을 듣고 환희심이 나서 다음 사람을 위해 바위 위에 게송을 새기고 약속대로 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던졌다. 그러자 나찰이 청년을 받아 모셨다. 나찰은 제석천이었고, 설산동자라고 불리는 청년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이었다.

책은 "이렇게 부처님은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얻으면 금방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철저한 구도 정신으로 수행을 하셨다."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지 묻는다. 책은 부처님의 이야기, 한 시대의 스승이었던 선지식들의 이야기, 저자 스스로 겪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 법을 전하고 있다.

책은 비슷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섯 개의 큰 제목으로 묶었다. 첫 번째 묶음에서는 출가수행자의 향기와 자세 등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뤘다. 두 번째 묶음에서는 수행에 관련된 글들을 주로 묶었다. 세 번째 묶음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자기계발서처럼 준비하는 글들을 묶었다. 네 번째 묶음에서는 사회적 소통에 관해 다뤘고, 다섯 번째 묶음에서는 불교와 사회적 메시지가 만나는 글들을 모았다.

저자인 법현 스님은 주로 태고종 총무원, 종단협의회 등에서 오랜 세월 동안 행정의 소임을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며 수행과 전법에 생각을 모아왔다. 스님이 저잣거리에 도량을 연 것은 저잣거리에서 하루하루 근근덕신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깊은 산문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견성성불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스님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의 사무국장을 맡아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고, 불교문화 및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국제포교사나 외국인 스님들에게 시행하고, 남부불교 교류 및 한중일 불교 교류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며, '열린 절'이라는 카페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 인터넷 포교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불교문화포교의 일환으로 〈불교차례의식 정립에 관한 고찰〉, 〈불교화혼법회고〉 등의 논문을 쓰기도 했을 뿐 아니라 현장에 직접 적용한 행사들을 마련해오고 있다. 스님은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불교를 공부하고 유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저잣거리 포교'라는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재래시장 건물에 '열린선원'이라는 포교원을 개원해서 '열린 불교아카데미 3개월 기초 1,2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불교의 교육방법론에 입각한 포교 방편을 제시하기 위해 각 분야의 중견 전문가를 모아 '선교방편연구소'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법현 스님

저잣거리에 '열린선원' 열고 전법
각자의 의미 바라보게 하는 법문

스님은 누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게 접해서 깨달음을 얻어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교육과 포교 및 마음공부 하는 법을 제대로 연구하고 실행하는 기구와 문화포교의 전당인 수련원과 학교를 설립하는 꿈도 가지고 있다. 이번 책은 스님이 그동안 길 위에서 펼친 전법실천의 한 가지이며, 더 먼 길을 가기 위한 중요한 점검의 기록이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세상에 다녀가시고 나서 그 동안 법다운 법 없이 살았던 중생들은 각자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됐고, 그 의미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얻게 되었다. 축복이었다. 부처님 열반 이후 그 법의 소중함을 남다르게 생각한 이들이 있어 그 법은 잊히지 않고 지금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후대를 위한 여러 형태의 전법불사는 계속되고 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법'이 곁에 있다는 것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해의 바다에 던져진 중생에겐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법현 스님의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역시 한 시대를 바라보며 써내려간 법문이다. 점점 더 불성의 의미가 소중해지는 시대다. 각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바라보고, 잊었던 불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설법의 시간이다.

박재완 기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값 30,800원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법화경 7만자 돌 위에서 꽃 피다

서예가 김정호 씨 법화석경 전시

〈법화경〉 7만자가 돌 위에서 피워 올랐다. 서예가 김정호 씨가 법화석경 513만 장을 완성 5월 11일~31일 나무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돌 위에 핀 법의 꽃'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전시는 98년도부터 사경을 시작해 석판 위로 옮긴 작가의 불심을 한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7mm의 글자 한 자 한 자를 돌에 새기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작가는 15cm×30cm 크기의 돌 위에 하루 300자씩 법화경을 새겨 513개의 석판을 완성해 냈다. 작가는 술과 담배를 멀리했고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108배를 하고 등산을 한 후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수행과도 같은 작업이었다고 작가는 말한다. "오전에 5시간 동안 한 판을 완성하고 휴식 후 밤 10시까지 한판을 완성하면 하루에 300자를 새기는 작업이 되죠. 오로지 여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고된 수행의 길이었지만 하루하루 작업을 하며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면 손가락과 팔목에 고통이 오지만 신심을 잃지 않으면 어느새 환희심과 기쁨이 올라온다고 그는 전한다. "법화경을 사경한다는 것은 보통 신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부처님을 믿게





서예가 김정호 씨(사진 오른쪽)가 법화석경 513만 장을 완성 5월 31일까지 나무갤러리에서 전시를 연다.

5월 11일~31일 나무갤러리서
화엄석경 복원 발원… 이미 시작

되는 과정이죠. 물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평생 돌봐준 아내도 어느날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하지만 신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10여년 사경을 하고 돌작업으로 들어갈 즈음 후원자가 생겨 돌을 구할 수 있었죠.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을 해요."

그를 법화석경의 길로 이끈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스승 여초 김응현 선생이다. 〈천자문〉 사경을 20여회 한 것을 스승에게 보여주니 그때부터 법화경 사경을 해보라고 권했다고. "1989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의 인연으로 여초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선생님께 천자문 작업을 보여드렸더니 작은 글씨에 능한 것을 알아보시고 사경을 권하셨죠. 그때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화경〉 작업을 끝낸 김 씨는 앞으로 〈화엄경〉 작업에 도전할 예정이다. 화엄경 약찬게를 이미 샘플 작업해본 그이기에 이를 바탕으로 화엄석경을 복원하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또다른 과업이 된 것이다. "화엄석경을 완성하면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4m 공간에 들어 갈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외출도 삼가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겠지만 일생일대의 숙명으로 알고 이 작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010)9163-8448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동서양 어울림 무대… 아기부처 탄생 '봉축'

부처님오신날 KBS 방영
'불교음악페스티벌' 눈길

불교유일의 오케스트라 니르바나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행복바라미와 함께하는 '불교음악페스티벌' 이 부처님오신날인 6일 KBS1에서 방영됐다. 동서양 음악이 어우러진 2시간의 공연은 환희심이 넘쳐 흘렀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손색이 없었다.

이날 무대는 칸타타 담마파다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 공연은 물론 소프라노 정행 스님, 한복을 차려 입고 나와 대중을 즐겁게 한 소리신동 염경관이 판소리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선사한 '행복'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안숙선 명창이 공연한 '아기부처님 강생' 은 대중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이 곡의 탄생은 87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안성 도피안사 송암 스님의 발원으로 안숙선 선생의 작창과 김재영 법사의 작사로 부처님 일대기 '불타전' 이 완성됐다. 공연 시간은 무려 두 시간. 이번 공연을



대중들의 가장 큰 호응을 받은 힙합& 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공연.

국악 · 힙합과 만난 오케스트라
판소리 · 팝핀, 불교음악 방향 제시

위해 첫 대목인 '강생' 부분을 작곡가 김대성 씨가 편곡, 오케스트라와 판소리가 만나 8분 가량의 '아기부처 강생' 으로 재탄생시켰다.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공연은 힙합& 팝핀과 오케스트라 'YO! 난다' . 20여명의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이 출연 난다의 수행과정을 춤으로 풀며 신나는 무대를 펼쳤다. 바리톤과 오케스트라의 융합으로 새로움을 더한 이 공연은 '신선하다' '새롭다' 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봉은사 상도선원 능인선원 등 13개 연합합창단과 중앙대 학생 등 330명이 장엄한 무대를 펼쳤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를 연주한 정윤은 국회 불자모임인 정각회 정병국 위원장 아들로 이번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불교음악페스티벌은 총 제작비 1억 5천만원의 대형무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찬불 음악이 설자리가 너무나 좁은 것은 사실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불자들이 불교 음악에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혜숙 기자

삼춘의 풍광이 사계절을 독점하니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⑳ 강진 백련사 (上)





대웅보전 내부. 완쪽벽에 걸린 현판 여섯글자가 신라명필 김생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다.

동백과 다산의 얼이 스민 고찰

"전라도 강진현(康津縣) 남쪽에 산이 있어 우람차게 일어나 맑게 빼어나고 우뚝하여 바다 기슭에 접하여 그쳤으니, 이름은 만덕산(萬德山)이요, 산의 남쪽에 사찰이 있어 통창하고 광활하여 한 바다를 굽어보니, 이름은 백련사(白蓮社)다. 세상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에 창설되고 고려 원묘(圓妙)국사가 중수하였으며, 11대를 전하여 무외(無畏)국사에 이르도록 항상 법화도량(法華道場)이 되어 동방의 명찰이라 일컬었다."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를 살다간 윤회(尹淮 1380~1436)가 쓴 '만덕산백련사중창기(萬德山白蓮社重創記)' 의 도입부다.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문선〉 제81권에 실려 있다. 이 중창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강진 백련사(白蓮寺)는 신라 고찰이고 고려의 원묘국사가 백련결사를 맺어 수행을 하던 곳이다. 그 수행전통에 의해 이름에도 절[寺]이 아닌 결사의 사[社]를 쓴 것이다. 이후 산 이름을 따 만덕사(萬德寺)라고 부르다가 다시 백련사(白蓮寺)로 고쳐 불러 오늘에 이른다.

역사적으로 백련사를 상징하는 것이 '백련결사' 의 수행전통이라면 일반인들에게는 백련사는 동백 숲과 다산초당 가는 숲길 등이 백련사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절의 만경루에서 멀리 내려다보이는 강진만 구강포 앞바다의 풍경도 인상적이다.

강당의 용도로 지어져 지금은 템플스테이 교육장으로 쓰이는 만경루와 대웅보전의 현판은 원교 이광사(員嶠 李匡師 1705~1777)의 글씨이고 대웅보전 안 좌측 벽에 걸려 있는 '만덕산 백련사' 현판은 신라 명필 김생(金生 711~?)의 글씨를 집자한 것이라 한다.

결사수행의 전통이 전해지고 동백꽃 숲길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의 체취가 어려 있는 백련사는 소중한 문화공간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절에 깃든 선비들의 시도 맑고 곱다.

화발엄풍삭설중(花發嚴風朔雪中)
심홍만수사문동(深紅萬樹寺門東)
사시독점삼춘색(四時獨占三春色)
조물어금각말공(造物於今却未公)

꽃이 눈 쌓였던 땅 찬바람 끝에 피어나니
절 동쪽 산 온통 진홍빛이로다.
삼춘의 풍광이 사계절을 독점하다니
조물주도 여기엔 공정치 못한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7에 소개되고 있는 성임(成任 1421~1484)의 시다. 제목은 '백련사시(白蓮社詩). 성임은 세종 20년에 과거에 합격하고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조보감〉 〈경국대전〉 등의 편찬에 참여한 상당히 학식이 높은 선비였다. 문장도 빼어나고 글씨도 잘 써서 경복궁의 전각 편액과 왕실의 사경 등에 솜씨를 발휘했다.

백련사를 묘사한 그의 시는 매우 단호하다. 그의 시심이 백련사 동백의 붉은 빛에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삼춘의 풍광이 사계절을 독점한다' 는 표현을 했을까? 그도 모자라 조물주도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하다고 단정한다. 백련사의 동백이 주는 인상을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한 시는 드물다.

도량 감싼 고요한 선의 경지

시대의 풍운아 백호(白湖) 임제(林悌 1549~1587)가 문과에 급제해 제주도로 부친을 뵈러 가는 길에 백련사에 들러 지은 시라고 한다. 제목은 '백련사차자관운(白蓮社次子寬韻)' 이며 〈백호집〉 1권에 실려 있다.

성격이 활달하고 문장에 걸림이 없는 임제답게 백련사를 그윽한 풍경 속 깊은 선정에 잠긴 도량으로 그려내고 있다. 함련에 나오는 하의(荷衣)는 연꽃잎을 말려 만든 옷이라는 뜻이지만 속세를 떠나 도를 닦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다. 수행도량을 찾아 온 현사(賢士)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결국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다.

말을 타고 그윽한 수행도량에 찾아와 하룻밤 내내 법담을 나누니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런데 시내조차 얼어붙었다는 표현으로 만물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고요, 열반적정의 경지가 열려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과연 임제다운 어법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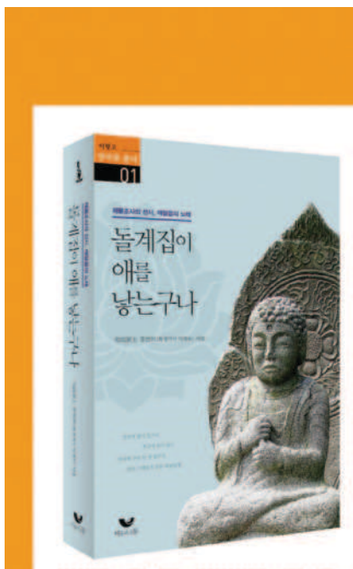
고성담석조(孤城淡夕照)
운해벽뇌람(雲海碧 藍)
옥타봉천만(玉朶峯千萬)
하의객이삼(荷衣客二三)
련편방백사(聯鞭訪白社)
일야종현담(一夜縱玄談)
경희선관정(更喜禪關靜)
계류동설음(溪流凍舌)

외로운 성에 저녁놀 엷게 깔리고
구름바다 쪽빛으로 푸르네.
옥이 솟은 봉우리 천 길인데
하의 입은 나그네 두 세 사람.
나란히 말을 타고 백련사 찾아
하룻밤 마음껏 현담을 나눈다네.
더욱 좋을시고! 선관이 고요하다.
시내조차 얼어붙어 벙어리 되었으니.

차수송간일납요(叉手松間一納邀)
금릉고사정소소(金陵古寺靜蕭蕭)
범의수영회청도(帆依樹影回晴島)
산포루광범만조(山抱樓光汎晩潮)
석로공정상취적(石老空庭常翠滴)
지고위증욕풍요(地高危磴欲風搖)
천년육자김생필(千年六字金生筆)
유작은포만벽쇄(猶作銀鉤挽碧霄)

소나무 사이로 스님이 합장하며 맞으니
금릉(강진)의 옛 절 쓸쓸하여 고요하다.
돛은 나무 그림자 사이로 비쳐
섬을 돌아가고
산은 누각의 빛을 안아 늦은 조수에 떴네.
빈 뜰 늙은 바위엔 비취빛 항상 적시고
지경이 높아 가파른 돌계단 바람에도
흔들리겠네.
천년을 전해 온 김생의 글자 여섯
아직도 은구인양 푸른 하늘을 당긴다.

이 시의 제목은 '산포루광(山抱樓光)' 인데 다산 정약용이 편찬한 〈만덕사지〉에 실려있다. 시를 지은 사람은 정재원(鄭載遠 1730~?)으로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재산과 권력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 학문에 힘썼다.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 · 전법게 · 열반송 · 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 · 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우주의 주인공, 걸림없는 대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의지함이 없는 도인(無依道人)으로 사는 법
임제록 강설 덕산 역해 | 46판 | 흑백 | 432쪽 | 15,000원
'선어록의 왕'으로 일컬어지는 임제록은 당나라 때의 고승 임제의현(臨濟義玄)선사의 독특한 가풍(고함지르는 할 · 喝이 대표적)을 보여주는 어록으로서, 실천적인 선(禪)의 진수를 설파한 명저다. 임제스님은 조계종의 선맥(禪脈)이기도 하며 일본 임제종의 연원이기도 하다. 덕산스님은 선(禪)의 세계를 바로 알리고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유와 행복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어와 선문답 등을 쉽게 풀이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5번째 저서 출간!
신간!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은 현재 총 65권의 저서를 출간하셨으며 포천 서울 부산 광주에서 매월 선사님의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www.zenparadise.com 참조
바로보인 천부경
1986년 5월 15일, 당시 단군선양회를 이끄시던 안호상 박사님과 김경수 참의원님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즉석에서 현토하고 설했던 것을 1997년이 되어서야 출간하였다.
이 책에는 삼부경인 천부경, 교화경, 치화경이 함께 실려 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혜안의 통찰력으로 밝힌 우리 조상만의 사상, 인류를 선구적으로 이끈 자랑스러운 봉화적 역서, 삼부경!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 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가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법회 문의 031)534-3373 도서출판 바로보인

붓다의 물리학

7. 다양한 요인들에 기인한 물질들

“있는 그대로 통찰할 때 탐욕 사라져”

업, 마음, 온도, 또는 영양분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들에 관한 공부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는데 유익하다. 우리의 일상 경험과 몸의 기능에 대한 조건을 공부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단지 마음과 물질 뿐이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이것은 다시 있는 그대로 실재들을 알 수 있도록 알아차림을 둘 수 있게끔 우리를 일깨워준다.

이 인간계에서는 봄, 들음과 같은 오감을 통한 경험이 되풀이해 일어나며 이것들은 몸이 없다면 일어날 수 없다. 오문인식은 육체적인 발생장소로서 적합한 감각토대(왓투)를 가지며 이것들은 일생동안 업에 의해 생성된다.

다른 모든 마음들은 그 육체적 토대로 심장토대(하다야왓투)를 가지며 이런 종류 물질은 생의 첫 순간부터 업에 의해 생성된다. 마음과 물질이 있는 존재계에서는 마음은 육체적 토대가 필요하며, 몸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다.

생명기능물질(지위띤드리아루빠)도 생의 첫 순간부터 업에 의해 생성된다. 그것은 업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들 그룹의 다른 물질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으로 태어나든 간에 업에 의해 생성된다. 여성기능(잇틴드리야)과 남성기능(뿌리신드리야) 물질들은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것들은 우리의 외관, 행동, 행 · 주 · 좌 · 와, 목소리, 직업,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조건 짓는다. 이러한 종류들의 업에 기인해 생성된 물질들은 그룹으로 일어나며 항상 8원소 기본물질과 생명기능을 항상 포함하고 있다.

어떤 종류들의 물질은 전적으로 업에 의해 생성되며, 어떤 종류들, 예를 들면 몸짓의 암시(까야윈냐띠)와 말의 암시와(찌윈냐띠) 같은 것은 전적으로 마음에 의해 생성된다. 어떤 종류들의 물질은 업, 마음, 온도 또는 영양분에 의해 생성된다. 마음은 일어나는 재생의식을 연결하는 생명연속체의식(바왕가찟따)의 순간부터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물질들의 그룹들을 생성한다.

다음 세 가지 물질 종류들은 때로는 마음에 의해, 때로는 온도에 의해, 때로는 영양분에 의해 생성된다. 이것들은, 부양성 또는 경안성(라후따), 유연성(무두따), 적응성(깜만냐따) 으로 인해 우리 몸은 무겁거나 침체되지 않게 된다. 유연성 때문에 휘기 쉽고, 탄력성이 있고 뻣뻣하지 않다. 적응성 때문에 순응성이 있다. 몸을 움직이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성질들이 필수불가결하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몸에서 생기며 죽은 물질에는 없다. 이들 세 가지 물질들은 고유한 본성을 가지지 않은 물질들(아사바와루빠)로 그들은 즉 변화가능한 물질(위까라루빠) 성질이 있다. 〈앗타살리니〉 (2, 2권, 1부, 3장, 326)에 이 세 가지 물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물질의 부양성’ 은 침체되지 않음을 그 특성으로 하고, 물질적 대상의 무거움을 없애는 역할을 하며, 변화의 민첩성으로서 드러나며, 활기있는 물질이 가까운 원인이다. 다음의 ‘물질의 유연성’ 은 경직됨이 없음의 특성을 가지고, 물질적 대상에 경직됨을 없애는 역할을 하며, 그 자체의 유연성으로 인해 모든 행동에서 대항함이 없음으로 나타나며, 유연한 물질을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 ‘물질의 적응성’ 은 작업하기 적합함 즉 몸의 행동에 유리함이 그 특성이며, 작업불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그 역할이며, 약함 없음으로 나타나며, 작업할 수 있는 물질을 가까운 원인으로 한다.”

〈앗타살리니〉에 또 이들 세 가지 특성들은 “각자 서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기술돼 있다. 그들 중 하나가 일어나면 그 이외의 것들도 동시에 일어나야만 한다. 그들은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기본물질들’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가벼움, 유연함 그리고 적응성의 성질들이 같이 일어나지만 그들은 각자 서로 다르다.

〈앗타살리니〉(같은 절에)에서는 그들의 차이점들을 설명한다. 부양성은 침체되지 않는 것으로 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과 같다. 유연성은 잘 두들겨진 가죽같은 대상의 유연성이며 다루기 쉬운 성질로 구별된다. 적응성은 광택이 나는 금과 같은 대상의 적응성으로 모든 몸의 행동에 대한 적합성으로 구별된다. 사람이 아플 때 몸의 성품들은 불안정하게 되고 그래서 몸은 가라앉고, 뻣뻣해지고 그리고 적응성이 없게 된다. 〈청정도론〉(8장, 28)에 사대물성의 불안정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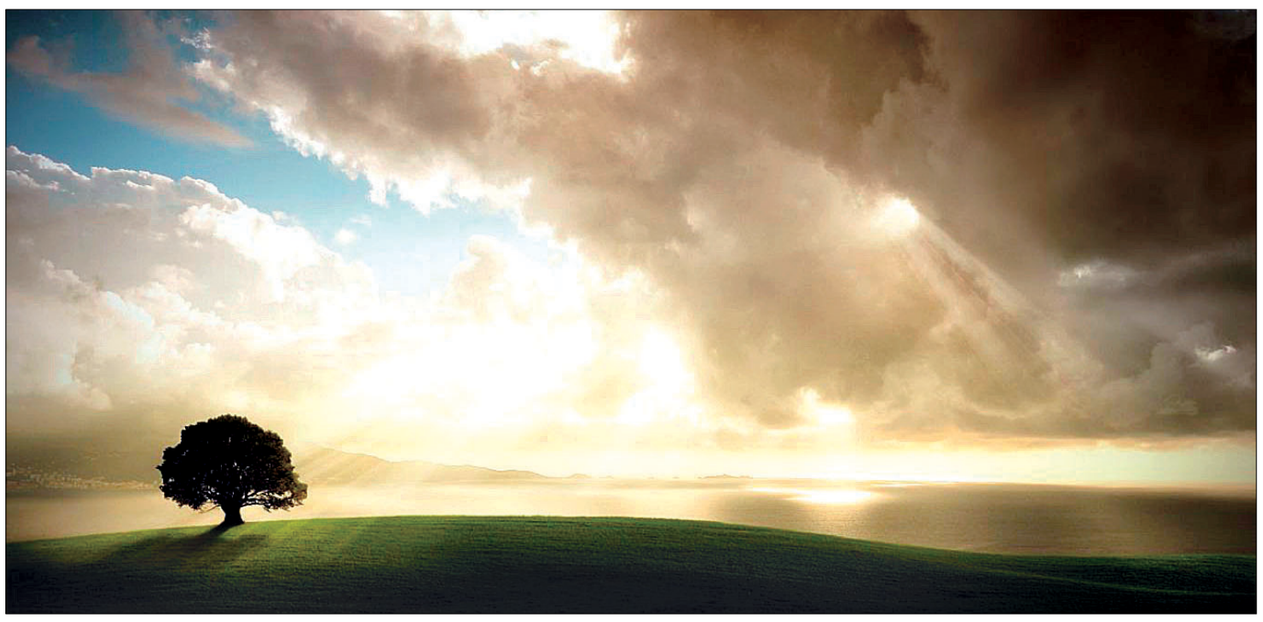
“…그러나 만약 땅 성품의 부조화로 그의 몸이 경직되거나 또는 만약 물 성품으로 시작하는 등 사대 중 한 성품의 부조화로 그의 몸이 축 늘어지거나, 이 질에 걸려 설사를 많이 해서 몸에서 심한 악취가 나거나 하는 등, 또는 만약 지독한 열병에 걸려 초췌해지거나 또는 사지 관절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한다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의 생명도 끝나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건강할 때는 몸의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을 위한 조건들이 있게 된다. 〈앗타살리니〉에 이들 세 가지 특성들은 업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마음, 온도 또는 영양분에 의해서는 만들어진다고 기술되어 있다. 주석서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같은 절, 327)

“…이 같이 금욕주의자가 말하기를, ‘오늘 우리는 만족할만한 음식을 가졌고…오늘 우리는 적합한 날씨를 얻었고…오늘 우리 마음은 일념이 되었고, 우리 몸은 가볍고, 유연하고 그리고 다루기에 적합하다.’ ”

음식이 알맞고 온도가 적당할 때 우리가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몸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음식과 온도 뿐 아니라 유익한 마음 역시 우리의 육체적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정신적인 발전에 몰두할 때, 이것이 몸을 유연하게 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이같이 우리는 논장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증명할 수 있다.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나긋나긋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말할 때 이것들은 말하는 기능을 나긋하고 ‘실행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몸의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이 있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그것들은 마음, 온도나 영양분에 조건 지워진 물질의 특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일상경험 · 몸 기능의 조건 공부할 때
> 인생이 마음 · 물질 뿐임을 이해하고
> 있는 그대로 실재 알아차릴 수 있어
>
> 인간계는 오감 통한 경험 되풀이
> 오감은 몸 없으면 일어날 수 없어
> 마음은 생의 첫 순간부터 업에 의해 생성
>
> 마음 · 온도 · 영양분에 의해
> 부양성 · 경안성 · 유연성 · 적응성 생기고
> 정신적 발전에 몰두할 때 몸 유연해져
>
> 몸 안의 허공을 소중히 여겨 집착하지만
> 통찰지혜로써 있는 그대로 보면
> 허공 또한 하나의 물성임을 깨달아
> 탐욕으로부터 깨끗하게 돼

물질들은 항상 최소한 여덟 개 물성들, 기본 8원소 물질들로 구성된 그룹(깔라빠)으로 일어난다. 이 여덟 가지 이외의 다른 물질들도 있으며, 이들은 기본 8원소와 함께 한 그룹으로 일어난다. 우리 몸은 다양한 물성들의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그룹은 아주 작은 공간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허공이라고 불리는 물질(아까사)이다. 같은 그룹 내의 물성들은 견고하고 결합되어 있어 분리될 수가 없고, 그래서 허공물질은 다른 그룹들을 서로 다르게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그것의 기능은 다른 물질그룹들을 분리하거나 경계를 지우는 기능을 하므로 그것은 경계 짓는 물질(빠릿체다루빠)로도 불린다. (빠릿체다의 의미는 한계 또는 경계) 허공물질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이 없는 물질(아사바와루빠)이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물질그룹과 동시에 일어난다.

〈앗타살리니〉(2, 2권2, 1부, 3장, 326)에 허공은 긁거나, 자르거나 부러뜨릴 수 없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것은 ‘사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허공은 건드릴 수 없다. 〈앗타살리니〉는 허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허공요소는 물질대상들을 경계 짓는 특성을 가지며, 경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그들의 범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사대에 의해 건드릴 수 없는 상태와 그들의 구멍과 빈자리로 표출된다. 가까운 원인은 분리된 대상들이다. 그것은 우리가 분리된 그룹들을 ‘이것은 위, 이것은 아래, 이것은 맞은 편에 있다’ 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허공은 업, 마음, 온도와 영양분에 의해 생성된 물질 그룹들이 각자 서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한다. 만약 다른 물질 그룹들 사이에 공간이 없다면 이들은 모두 결합되어 서로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허공은 업, 마음, 온도와 영양소에 의해 생성된 물질 그룹들을 둘러싸는 것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그것은 이들 네 가지 요소들로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요소의 분석 경〉 (맛지마 4, 140)에서 붓다는 뿌꾸사띠 비구에게 사대를 설명할 때 허공요소에 관해서도 말씀했다. 이 경은 허공의 표출로 우리가 이미 읽었던 허공과 빈자리에 관하여 언급한다.

“…그리고 비구여, 허공의 요소는 무엇인가? 허공의 요소는 내부에도 외부에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비구여, 몸 안의 허공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허공이나 넓은 것은 무엇이던지 개별적인 것이건 파생된 것이건 간에 안에 있는 것, 예를 들면 귓구멍과 콧구멍, 씹고 마시고 먹고 맛보고 하는 구강의 문, 그리고 그것이 남아 있는 위장, 그것이 몸에서 통과하여 내려가는 곳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개별적이건 파생된 것이건 간에 안에 있고, 허공이며 넓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안의 허공요소로 불린다. 안의 허공요소가 무엇이든지간에, 밖의 허공요소가 무엇이건 간에 이들은 그냥 허공요소다. 완전한 통찰지혜에 의한다면, 이것은 실재 있는 그대로 다음과 같이 알아야만 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완전한 통찰지혜로 실재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볼 때 허공요소를 역겨워하고 마음이 허공요소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경(숫따)에 귓구멍과 몸의 다른 구멍과 열린 것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귀의 공간은 들음(이식)의 조건들 중 하나이다.’

우리는 몸 안의 허공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집착한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 또는 자신으로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나의 물성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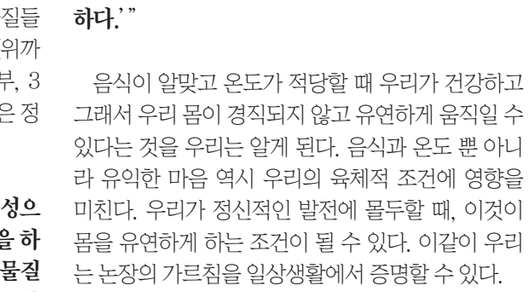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 입 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부모님 효도 선물로 강력추천!!!
건강과 사랑을 함께선물하세요.

함양군 HAM YANG GUN



보리빕과 약재 부산물,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100ml*90팩 = 449,000원



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80ml*60팩(1박스) = 109,000원



지리산자락의 헛개열기와 잎, 열매를 넣고 천연지하암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
100ml*60팩 = 89,000원

5월 어버이달 특별 이벤트
“파격 판매행사”

★결제계좌: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http://shop.7-star.net
(네이버,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는 (주)홍국농산
- 판매처:칠성상회 (02-879-2007)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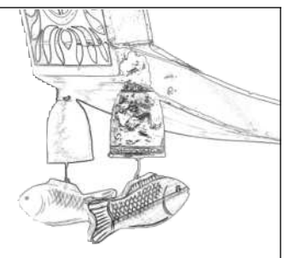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머리카락이 희어졌다고 해서
덕 높으신 어른이라 할 수는 없다.
속절없이 그저 나이만 먹었다면
그는 어른이 아니라
늙은이에 지나지 않는다.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31)585-4626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60대 신심깊은 독신자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울진)
011-9571-6559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60세이하)
010-6575-1719

아름다운 인연

소승은 70세 된 시각장애자
심안으로 달마상과
황금용주도를 남은여생
나누어 드리려 합니다
무소유, 머무를 곳을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010-9003-7783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자성 천도 사십구재 제사 전문도량 바라, 회심곡

02)483-1566

빈 암자나 빈 토굴 혹은 빈 외딴 시골집 관리하여 드립니다

50대 후반의 선방 수좌
(토굴에서 함께 용맹정진할
도반을 찾습니다)
010-2897-6144

각 전각 예불 및 제의식 능통한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대, 경북 문경)
010-8819-8988

참신하고 신심 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010-6582-3137

제주도 사찰

청정도량 적멸보궁에서
몸과 마음을 가꾸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스님 한분, 사무장, 상주인원
두사람, 보시금 전화상담
주지스님 010-3696-8500

중풍, 예방 할 수 있음

(10년 경험)
010-5096-9870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할 능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보시금은 없습니다
이외 비용문제 상담
출가 남녀 행자도 찾습니다
(강원지역)
010-9421-0730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상처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 배우실 분은 한번만 오시면 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불사 준비하는 60세 비구입니다

절,신축,수리,조립식 등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저렴하게
시설해 드립니다
010-4570-4899

스님이 안계신 절이나 어렵고 가난한 절을 무보시로 도와 드립니다

불사를 헌신적으로
도와드립니다
010-4882-383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부부,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시설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화요일 저녁반, 목 · 금요일 오전반
- 실참(기도, 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 사찰, 포교당 운영이 힘든 곳. 운영 관리해 드립니다.
- 국내 최초 획기적 사업 투자자 모집 (변호사, 공무원, 불자 대환영)

○ 달해스님 (불교 및 13년 법률전문가 고문)
불교통신대, 동 대학원 4년졸업 등 경전해석
대한불교본조계종. 사단법인 가수. 영화배우. 대한불자가수회
염불, 독경 국내 승려트롯트 가수 제1호. 트롯트, 염불, 독경 출시
저는 단독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후 선진규 장례위원장의 청에 의한
마을회관과 영구차 및 정토원 대법당에서 천도제를 봉행함(SBS 인터뷰생방송)

임시수행처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21
각종행사 연락요망 : 02)547-2587 / 010-5742-2587
스님 010-4883-9026 (꼭 이리 연락)
국민은행 계좌 : 057-21-1749-081 (예금주 : 양환우)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풍수계 최초 밝혀낸 명당의 실체와 신통발복력!

태극혈맥풍수

반드시 발복흥성 유지되는 혈맥음양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덕숭산승 지천공
010-4600-7399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동막길 83-7 절로암

사주·기문

■2012 박대통령 적중, 2014년 서울시장 예측(2개월전 분석), 2013, 14년 국운분석 거의 적중, 2012 국회의원선거 10명 모두 적중, 취업시험, 공무원 시험, 사업 성공 여부, 학생 공부 잘 할지 여부 등 모두 적중, 이 모든 내용들을 보시려면 홈페이지에 전부 있으며 세밀하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인당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역학사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적중률이 높은 이유는 분명히 있으니 공개강좌 때 오시면 할인업에 참고가 될 많은 내용과 적중률이 높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사주,기문 초,중급반 -5개월	월	사주명리반 (월20만원)	18:30-21:30	天의 학문은 사주학이요, 地의 학문은 기문둔갑이라, 인당에서 2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선정. 두 과목 청강시 5개월 165만원 (일시불, 2개월 분할 가능, 책값 포함) ▶사주프로그램(130만원) 무료 드림 ▶사주,기문 5개월 수업내용 담은 USB를 무료 드림 ▶사주,기문 재강의 비용은 없음
	화	기문둔갑반 (월20만원)	18:30-21:30	
실전반 -5개월	수	사주, 기문 최고급 이론 1시간30분, 나머지 시간 사주+기문으로 문제풀이 (월25만원)	18:30-21:30	▶한 과목 청강 시 매달 25만원이며 실전,창업 두과목 동시 청강시 5개월 165만원(일시불,2개월분할가능,책값포함) 사주 초,중급이 이미 공부가 된 사람은 바로 실전반에서 공부하면 됨. ▶타학원 출신들이 많다.
창업반 -5개월	목	사주+기문+자미두수로 실전문제풀이반 (월 25만원)	18:30-21:30	
타로카드 -5개월	일	마르세유 타로 (월20만원)	10시-12시	오픈하려면 타로는 꼭 공부를 해야한다. 수시 접수함.

● 홈페이지 "인당명리" 로 검색하면 된다. 격일제 근무자도 가능

공개강좌	5월 17일 (토), 18일 (일) : 14 ~ 17시	1회만 오면 됨

사주, 기문, 실전 USB로 쉽게 공부(홈페이지 참조)
지방에 있는 분,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USB를 제작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USB는 수업 시간을 그대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정말 편하다. 현재 많은 분들이 USB로 공부하고 있다.
◆사주 초,중급 + 기문 초,중급 = 150만원(사주프로그램 130만원 무료 드림)

■인당학원 : 2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양지사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층
인당역학연구소 (사주감정 받을 분 전화주세요) 02) 929-631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부처의 깨달음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모든 중생의 마음(心行)에서 구해야 할 것 입니다."

- 유마힐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생수공장, 황토공장)
- 위치 : 구례군 지리산 온천 부근
- 총부지 : 1150평, 도로 8m 접
- 건물 : 42평, 남향(별장 및 전원주택)
- 지하 200m 암반수 : 일일 취수량 500톤
- 양도금액 : 평당 20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4동 (법당 50평,요사채40평,산신각,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목포시 중심사찰 양도
- 기와편백법당70㎡, 황토요사채 90㎡
- 잘지은 2층사찰. 토지 230㎡
- 아파트,주택,관공서지역사찰.주변산
- 가액 : 3억원 9천만 조정불가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61)282-9873 (창건주님)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요양원,연수원,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 부지 : 1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40평, 차량진입
- 양도가 : 11억 8천
- 위치 :서울 한강 이남
- 대지 : 150평
- 법당 : 40평,목조기와
- 요사 : 60평, 2채
- 양도가 : 33억 8천

※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암자,토굴,포교원,사찰부지,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대폭인하)

010-7466-7701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 남쪽 산자락
- 1층 본요사채 45평, 황토벽돌로 조성, 2층 법당 25평
- 주차장 완비 총 171평 외 토지 80평과 별요사채 1,2층 30평, 저온창고 2.5평
- 가액 : 4억 5천 직접거래

010-3743-9943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9천5백

010-3645-1361

사찰 토지 (급)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장치리 765
- 지목 : 전(관리지역) 1,014평(한필지)
- 전망 : 뒤에는 삼면이 산으로 감싸고 앞은 탁트인(남향) 바다를 보고있음 뒷산 8부능선 기도처 완비
- 가액:2억3천만원절충가능)융자:육천오백만원
- 도로, 전기, 토목, 조경공사 완료, 건축허 가능

010-2002-1000

암 자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읍 북면 화악산 줄기 청정 수월 도량
- 명산지대이며 산세 수려하고 좌청룡 우백호 도량 자리
- 청정 자연물 큰 내가 24시간 흐름
- 평수 총2,530평 하천부지 2천평 사용 가능
- 가액: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 불사하실분 환영하고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바랍니다

010-5009-1772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 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청동불상 포함 3,900만원 부처님 빼면 2,500만원

010-2251-3378

포교원(급)안내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7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대지 110평, 건물80평, 인법당 10평,
- 포교원 요양 수행 힐링처
- 별장식 별궁으로 용도 가능한곳
- 가액 : 2억 3천만원

011-9917-703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아양로 15길 15 대구 파티마 병원 옆
- 1층 약 25평
- 관음보살님2자1위, 소불 10위
- 가액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300만원

010-8786-614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진구 전포동 (놀이터시장 입구)
- 2층 건물 2층 법당, 방 2개, 20평, 시설 완벽
- 위치 좋음,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보증금 6백만원, 월 25만원
- 답사후 절충

010-8872-1326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 아파트 주거 밀집지역
- 교하기 좋은곳, 주차가능
- 신도분들 오시기 편안함,
- 시설 깨끗한 약 10년가량 된 사찰
- 대지 708㎡ • 건평 250㎡
- 법당, 공양간, 종무소
- 가액 : 5억5천만원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5346-41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수익성 건물 안내
- 기도도량하면 참 좋습니다
- 상권, 유통, 의료, 교육, 교통 조건을 갖춘 동래복합환승센터 역세권입니다
- 유동인원 상주인원 부산 최고의 환경과 조건
- 대지106평, 건물 330평(신축)
- 월수익 900만원 받고 5억 6천만원 투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주)금호부동산
051)861-2233
010-8676-2278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고면 후암리 375
- 대지 : 154평,건평11평 외 8평정도
- 작은마을 뒤 산밑 조용함
- 마르지 않는 샘
- 가격 : 3800만원

011-527-1157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715번지 무무선원
- 대지 1500평, 특수조립식 35평
- 방3, 화장실2, 거실 겸 선방, 심야보일러,농업용수 설치되있음
- 주차장완비, 호두나무 20그루
- 가액 : 2억7천만원

010-9609-191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사찰
- 대지 : 209평
- 법당 요사채 약 80평
- 은행 3억 안고 3억5천 인수

(주)한길부동산중개
연제구 / 서보호, 이재무
010-3808-4499
051)925-3800

사 찰 터 안내
- 좌청룡 우백호가 살아있는 소쿠리터
- 갓바위뒷편 영천신령면 1066번지의 5필지
- 논 약3천평 내외 성토작업 완료. 가옥 60평
- 마당앞에 계곡물이 흐르고 마당까지 대형차 진입
- 가액 : 4억 5천만원
- 위치: 경북 청도군 각남면 화리 산48
- 임야 8,250평 • 가액 : 7천만원

010-6253-3107
(철호스님 합장)

사 찰 안 내
- 위치 : 의령군 부림면 소재지 근처
- 면적: 400평
- 법당: 목조 10평
- 요사채: 통유리, 심야전기 적벽돌 반기와 30평
- 가액 : 1억 9천만원

017-310-6482

포교원안내
- 위치 : 김해 장유 신도시 위치최고
- 3층 건물 2층 약40평
- 삼존불, 신중, 소불 연등설치
- 법당, 공양실, 방2개 실내 화장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함. 철학 및 포교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22만원 시설일체 2천300만원

010-4017-099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 총평수 800평 건물, 법당,
- 요사채 합 50평, 산신각 5평, 용왕당 2평
- 가액 : 3억 2천만원

010-8034-8309

시골집안내
-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 건평 24평, 창고 8평, 건물만 양도
- 가액 : 1천 6백만원
- 사정상 급안내

※ 인수시 살림도구 모두 드림

010-8460-6377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신림동 3층 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 봉안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1, 약 30평
-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77만원 시설비 2,700만원

011-309-3535
(답사후 절충가능)

전 원 주 택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좋은환경 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경남 창녕군 부곡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 황토방, 정자
- 가액: 3억1천5백만원

010-3703-5879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4천만원(가격조절가능)

010-7466-7701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장보살, 삼신당, 호신불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2천 월66만 3천 월55만 /4천 월44만 선택
-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4590-6777
010-3869-6799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50년된사찰)
- 대지 300평, 미륵불상4.5M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존불, 텃밭,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3,500만원. 양도도 가능

010-6311-4920
010-7128-503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 1, 실외 2), 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 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 천만원, 월80만원 / 시설비 협의
- 바로 법회가능

055)221-518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김천시 면소재 중심가 남김천 대로변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요지, 남향, 법당넓고,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7천 4백만원

054)43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창녕군 부곡온천 및 화왕산, 군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30평, 종교부지 600여평
- 요사채(60평), 화장실,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 칠성각)
- 산밑에 위치, 도로인접, 심야보일러, CCTV설치, 집기일체
- 가액 : 3억5천만원(답사후 조정, 평당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100평, 건평 52평
- 삼존불, 소불 50불
- 법당, 산신각, 큰방2, 화장실
- 가액 : 1억 2천

010-3857-230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5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경기 이천 장호원 5분, 15년절터
- 평수 : 약 300평
- 뒤 언덕은 공짜땅, 해화나무 소나무 약 20주
- 현재- 세1,000만에 월35만 5월에 나감
- 볼곳 3곳 더 있음
- 보증금 2천만원, 월10만원 전세 3천만원

010-6253-6892
031)641-1159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산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전원주택 및 토굴
- 위치: 인제 원통에서 15분거리
- 사용가능 : 총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5평
- 잘 가꾸어진 밭 900평, 2중 흙벽돌 심야보일러
- 잘가꾸어진 마당, 멀리큰강이 흐름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337-9736

도심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로타리 육거리 근처
- 넓은 면적, 5층 94평(7층, 지하주차장 지분 별도15평 있음)
- 방3, 공양간(약10평), 실내화장실, 실외남녀 별도 화장실
- 경전철 역 가까워 도보 이용(대중교통편리함) 대단지 아파트 인근으로 불교신자 많음 근처 교회는 많으나 절이 없음
- 임대(시설금 없음)및 양도(현 시세에 비교 매우저렴)
- 도심 사찰하기에 내부 구조가 매우 편리함

010-6570-1000
055)247-7000

사찰(터)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회화면
- 평수 : 3만 6천평
- 평당 : 만 오천원
- 최적의 절터, 분할 가능

010-8616-57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시내중심지
- 평수: 60평
- 완벽한 시설 완비, 시장과 인접함
- 시설비 3,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 중산리 부근
- 평수: 130평
- 황토 이중벽으로 완공 된 법당 및 요사채(방 3칸), 후원 9평, 몸만 오시면 됨 수양 정진 도량,
- 가액: 2억 6천만원 (시설비 포함,절충가능)

011-895-2258

절 (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
- 평수 : 3,500평
- 평당 10만
- 절터나 요양원, 연수원 적합지

010-4038-434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 한옥 38평
- 법회하고 있음
- 보증금 5백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

010-3381-0800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2억(융자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승려)

〈1〉 통찰지의 필요성

고정된 실체 없음 보는 것…고통 해결 지름길

달라이 라마의 명상 수행법인 〈마음 길들이기〉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명상 수행법을 제시한다. 명상 수행을 통해 '나' 라는 것이 본래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님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를 계발하게 되면, 우리를 괴로움에 빠뜨리는 해로운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본지는 〈마음 길들이기〉(이솔 刊)의 내용을 5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지로 인한 해로운 마음 때문
무지 극복하는 자애명상 수행은
통찰지를 통해 괴로움 없애줘

통찰지를 위한 기초 다지기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까? 그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해로운 마음들 때문이다. 우리가 일으키는 해로운 마음들이 우리 자신에게 크고 작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일일이 대응해서 그런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 아마도 끊임없이 나와의 싸움을 벌여야 할 것이다.

자애 명상은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수행법이다. 자애 명상을 통해 어떤 대상에 미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랑스러운 대상으로 바꾸어 보게 되면 성냄이라는 해로운 마음이 일시적으로 다스려진다. 하지만 자애 명상은 탐욕을 다스리는 데에는 별로 효과가 없다. 특정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쓰이는 약이 그 병에만 효과가 있고 다른 병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갖 해로운 마음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근본 원인을 없애야 한다.

우리에게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은 '무지(無知)' 다.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을 모르는 무지 때문에 해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지를 극복하는 수행을 하면 우리에게 온갖 괴로움을 가져오는 해로운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다. 무지를 없애 주는 약,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이 바로 '통찰지' 이다.

무지란 무엇인가

통찰지를 계발하려면 먼저 무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단순히 무엇을 '모르는 것' 이 아니라 사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사물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즉 '고정불변한 실체, 혹은 자성이 있다' 고 착각한다. 이것이 바로 무지다. 물론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 같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탐욕과 성냄 같은 온갖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식을 알아차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은 통찰지를 얻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로 인해 사람이나 사물에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실체성을 부여하고 그로 인해 온갖 해로운 마음에 끌려다닌다. 무지로 인해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모습을 잘못 알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다른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기(緣起)' 해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비롯한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그들에게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첫걸음이다.

문제의 근원 찾아내기

우리가 무지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감각' 때문이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몸으로 느끼는 다섯 감각들을 통해 우리는 외부의 대상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곡된 정보로 인해 외부의 대상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사물의 겉모습에 현혹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면 무엇이 진실이겠는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수록 무지로 인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은 커져만 간다.

우리는 원하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의 매력은 부풀리고 그것의 결함이나 단점은 외면한다. 그 대상으로 인해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면서 마치 소가 코뚜레에 꿰여 끌려가듯 탐욕에 빠져들게 된다. 반대로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의 추함을 과장하고 사소한 결함을 큰 결함으로 여기면서 그 대상이 가진 좋은 점들을 외면한다.

그 대상으로 인해 괴로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가 코뚜레에 꿰여 끌려가듯 그것을 싫어하게 된다. 그 대상이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이면 탐욕이나 성냄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지의 상태는 계속된다.

우리는 '나' 그리고 '나의 것' 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아만이나 남을 해치려는 파괴적인 마음을 일으키고, 결국 나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심지어 국가에까지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식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마음은 단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뿐이다. 세계를 볼 때 탐욕이나 성냄과 같은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세계로 보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 다른 마음은 대상이 좋은지 싫은지를 판단하기는 하지만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단지 좋은 것을 좋다고 싫은 것을 싫다고 인식할 뿐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상이 고정된 실체로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 근본적인 무지가 생겨난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탐욕이나 성냄이 생겨나는 것이다.

단순한 인식이 탐욕이나 성냄으로 변질되는 전환점은 무지로 인해 대상의 좋은 점과 싫은 점이 부풀려짐으로써 그 대상이 본래 좋거나 본래 나쁜 것으로, 본래 매력적이거나 본래 혐오스러운 것으로, 혹은 본래 아름답거나 본래 추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할 때부터다.

왜 진실을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생각 중 대부분은 모든 존재와 현상들에 대한 '과장된 생각들' 이다. 이처럼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과장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의 무지 때문이다. 중립적 인식에서 시작돼 점차 해로운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면 무지가 없어지고 해로운 마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의 실제 모습에 대한 통찰지가 없으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알아보고 제거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도 제대로 알고 제거할 수가 없다. 통찰지가 없으면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도 없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고정된 실체로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없애려면 우선 자신의 마음을 잘 관찰해야 한다. 내 마음을 관찰함으로써 무지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무지로 인해 어떻게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다.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추함을 과장하면 탐욕이나 성냄, 자만, 질투, 분노 같은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존재와 현상의 실제 모습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내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외적인 방법으로는 탐욕이나 성냄을 없앨 수 없다. 손에 가시가 박히면 바늘로 빼 버리면 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없애려면 그 생각의 바탕이 되는 잘못된 인식을 분명히 보아야만 한다. 모든 존재의 실제 모습 위에 자신이 덧씌워 놓은 잘못된 관념을 걷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성적으로 현상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통찰지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문제들이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지를 없애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무지를 없애려면 먼저 모든 존재와 현상에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존재와 현상에 고정된 실체, 즉 자성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는 명상을 해야 한다.

명상을 의미 있게 하는 방법

자신이 그와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깊은 명상을 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은 명상을 통해 단지 자신을 방해하는 외부 대상들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됐다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모든 대상이 고정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문 바로 앞에 뱀이 있다고 잘못 생각해서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에게 저쪽 편에 나무가 있으니 그쪽으로 올라가 피하면 된다고 아무리 알려 줘 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문 앞에 뱀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을 극복하려면 고정된 실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대상들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그 대상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상을 보는 세 가지 방법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작용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는 대상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무지의 작용이다. 둘째는 대상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통찰지의 작용이다. 셋째는 대상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으로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도 보지 않는 것' 이다. 이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대상을 그냥 중립적으로 보는 것이다.

대상을 '스스로 존재하는 것' 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대상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 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범주와 같이 무지의 작용에도 통찰지의 작용에도 속하지 않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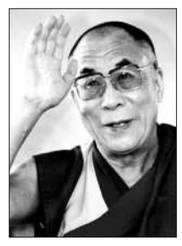
무지가 없어지면 대상의 실제 모습 위에 아름다움이나 추함 같은 성질들을 덧씌우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탐욕, 성냄, 질투심, 호전성 같은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해로운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들이 더 이상 행동을 부추기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행동으로 인해 생겨난 성향들, 즉 업으로 인해 윤회의 굴레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없게 된다. 그것이 바로 해탈을 얻는 것이다.

깊은 명상을 통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고통의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이해하면 모든 존재와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잘못된 인식을 없앨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탈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겠지만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되면 해탈에 이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진다. 통찰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 길들이기〉(이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달라이 라마는 1935년 티베트 북동부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2세 때 제14대 달라이 라마의 환생으로 인정받았고 4세 때 티베트 수도 라싸의 포탈라 궁에 들어가 티베트의 지도자로 교육받았다. 중국의 티베트 침공 이후 인도로 망명해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 정부를 수립한 달라이 라마는 철저한 비폭력 노선을 견지하며 티베트의 자치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89년 노벨 평화상을 받으며 세계인의 정신적 스승으로 떠오른 달라이 라마는 불교계 최고의 지도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다. 자애와 연민, 환경 보호,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그의 강연과 법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7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010-4747-3164

문경 토굴터 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산 154-4
- 문경 IC에서 10분, 문경온천에서 5분거리
- 면적 225평
- 소나무숲 전원주택 부지로 현재 10여동이 입주한 상태
- 가액 : 4천5백만원(평당 20만원)

010-8555-4480

사 찰 안 내(신축)

- 위치 : 경남 합천
- 면적 :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 25평(동남간, 목조, 기와)
- 사채 : 25평(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 융자3천안고, 2억 2500만원

010-8517-8526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 영능력개발과정 전수자모집

전 수 내 용

❶ 그 자리에서 환자의 몸을 통한 빙의 일반병 확인 하는 방법
❷ 환자의 몸에서 나오는 영가의 대화법 (6하원칙 대화법)
❸ 사주와 전생의 수행능력과 빙의 영혼 구별법
❹ 고혈압, 당뇨, 아토피, 심혈관질환. 다이어트의 치유법, 영적인 질환은 冷氣(냉기) (스님, 신도분, 종교인,누구나 환자 상담시 2개월 치유프로그램 시행)
❺ 몸, 마음, 정신, 영혼의 작용력 이해, 영가 빛 천도법
❻ 과학적인 오오라장을 통한 빙의 수준의 이해
◆저급빙의 – 육체적인 질병을 통한 빙의 영혼의 고통 호소
◆중급빙의 – 마음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을 통한 방황과 혼돈
◆고급빙의 – 삶의 목적과 영혼의 목적 의식에 따른 방황
❼ 인간의 속마음을 읽는법 (인체전기장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
◆수강자 – 스님. 대체의학연구자, 종교인, 영적인 현상을 이해 하고자 하는 분. 삶의 목적의식을 찾고자 하는 분, 깨달음의 이해.윤회의 법이해 이론, 책자(전수용) 실습 – 강의는 수강자와 협의 후 결정
❽ 효소찜질 : 사찰내의 난치병,빙의 환자치유, 목적 설치 상담
■ 보시금은 영혼 확인 상담비 : 십만원 전수료는 협의

풍운 합장

인체전기파동원 (고덕선원)

문의전화 : 010-9242-5259
오시는길 :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93 64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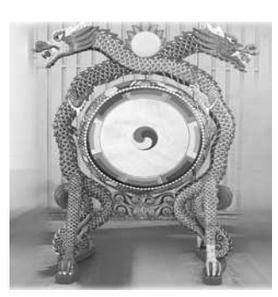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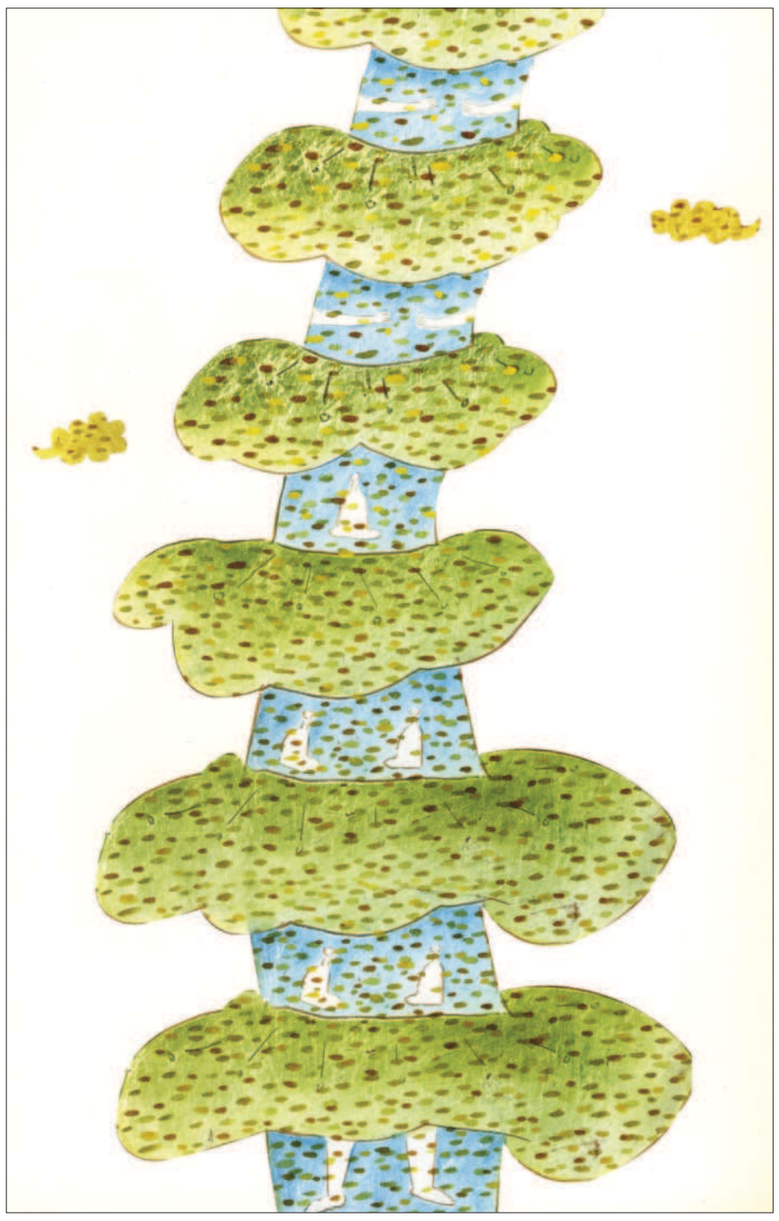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갤러리 색즉시공



하나로 돌아가기

여러분이 있어
내가 있구요.

내가 있어
여러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로 돌아가기"
공부를
처처에서 하시겠지요?

부디
정진 여일
하십시요.

그림·글 희상 스님

여성의 '여성성' 자각은 곧 '수행'

이란보살의 인과이야기



생활관 역할 한 여여회

가끔 내 집을 법당으로 삼아 20여 년 동안 지속해왔던 여여회를 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상념에 젖을 때가 있다.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자아를 완성시키는 역할도 했으나 한편으론 여성성을 완성시키는 생활관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대부분 주부들이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군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보살님은 원이 무어세요?"

"저는 주부로 성불할 거예요. 제 원의 첫째는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주부로서 내가 처한 가장 일차적 환경이 가정이라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들에게 항상 말한 것이 "우리가 여성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성의 힘은 자신은 물론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원천인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는가. 가정과 남편, 자식을 지키는 것은 오직 오직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이것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수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내 생각이었다.

미흡하고 부족한 면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단지 할 뿐이었고, 내 온 몸이 법회를 향해 움직였다. 어디에 가도 찻잔을 보면 저것을 사다가 여여회 식구들에게 차를 대접할 때 써야지 했고, 여름이면 모시방석, 겨울이면 면방석을 만들어서 깔아놓았다.

예부터 한국 여인의 멋은 다섯 가지의 씨(오씨)가 고루 배합되어야 한다고 했고 이 오씨가 완성된 사람이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했다. 씨는 생명의 근원이자 원형이다. 이 근원과 원형이 없이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할 수 없듯이, 여성은 가장 원형적인 솜씨(손재주), 마음씨(마음가짐), 맵씨(몸가짐), 말씨(말), 글(판단력)을 고루 갖출 때 여성성을 갖춘다는 뜻이다.

철학자 안병욱 교수는 성숙한 인간의 모습을 솜씨, 맵씨, 말씨, 마음씨, 글씨의 오씨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인상적이어서 노트에 메모해 두었다. 내용은 이렇다.

"솜씨는 조직관리를 잘 하는 일, 잘 가르치는 일 등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이고, 맵씨는 단정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말하며 이는 첫인상을 좌우한다. 말씨는 정확하고 바르며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이며, 마음씨는 명심(明心)과 온심(溫心)을 가리키는데 명심이란 밝은 마음 밝은 생각, 밝은 음색을 말하며, 온심은 따뜻한 마음, 따뜻한 생각, 따뜻한 음색을 말한다. 글씨는 인물과 교양을 나타낸다 하였으며, 옛날에는 글씨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낸다 하였다."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성숙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5씨의 철학"을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다섯 가지 씨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며 세상을 훈훈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여여회 식구들에게 이렇게 강조했던 기억이 난다.

"솜씨 말씨 맵씨 글씨 마음씨를 오씨라고 한답니다. 여성은 저 오씨에 주의하고 능해야 합니다. 그게 여자의 예요 도며 중생에 수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다섯 가지에 능하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잘 고르는 것이고 여성성을 지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여회 회원들은 적어도 이 다섯 가지 씨가 완성된 보살이 되기를 바라며 힘이 닿는 대로 돕고 싶습니다."

마음씨가 중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사람의 일생은 마음을 어떻게 닦고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내 마음의 흐름을 수시로 돌아보고, 마음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 수심과 용심이다. 마음을 알면 만 가지 행을 구비한다고 했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마음 하나 먹기에 달렸다고 하니,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잘 쓰는 것이 삶의 행불행을 갈라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씨 또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성 것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으니 조심스럽게 말하고 덕담을 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 말씨라는 말은 말에 내일의 씨가 들어있다는 뜻이다. 가능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해야 자신의 운명도 그렇게 되어진다. 말은 행동의 시작이요 운명을 좌우한다.

여성의 힘은 세상 살리는 원천
여성성의 완성은 '5씨' 갖추는 것
(솜씨 맵시 말씨 마음씨 글씨)

글씨는 마음을 고르고 단정한 글씨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좋은 글을 쓰는 것도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이루게 한다면 훌륭한 보시가 될 것이다.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고 희망을 주는 무외시가 되기 때문이다.

솜씨는 여성에게 있어 음식솜씨, 바느질 솜씨 등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다.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려면 많은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할 테니 솜씨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표증이기도 할 것이다.

맵씨는 단정하고 품위 있게 몸가짐을 가지는 것인데 무엇보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 옷을 품위 있게 입는 것을 맵씨라고 볼 수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이왕이면 단정한 모습 깨끗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격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섯 가지가 안팎으로 안정되게 자리할수록 내가 속한 가족, 시회가 풍요롭고 아름다워진다.

조선시대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昭惠王后)가 1475년(성종 6) 부녀자의 교육을 위해 편찬한 책인〈내훈〉에 의하면 여자가 지켜야할 네 가지 행실이 있다. 첫째는 부덕(婦德)으로, 재질이나 총명보다는 맑고 조용하고 바르게 처신하며 절개를 지키고 부끄러움을 알며 모든 행동에 다소곳한 태도를 임해야 한다. 둘째는 부언(婦言)인데, 항상 말을 가려서 하되 악한 말이나 남이 싫어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셋째는 부용(婦容)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이나 장식물도 청결하게 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부공(婦功)으로 쓸데없이 웃고 놀지 말고, 집안살림살이를 잘 해야 한다. 길쌈에 전념하고 바느질을 잘 하고 음식을 정갈하게 장만하여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의 다섯 가지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여성성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긴 적이 있다.

여여회를 운영하면서 언제나 뒤에 서서 공양주를 자처했지만, 저 생각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도반들을 대했던 것 같다. 어머니 제자리 찾기가 나의 평생 화두였기에 수행하는 사람 이전에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어머니이자 아내이기를 바랐던 것이다.

여여회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하기 싫다거나 쉬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경전을 공부하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동안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가장 기쁘게 다가왔다. 한 달에 이 날 하루, 한 번 부처님들이 우리 집에 나툰다는 생각을 했다. 아니, 사실은 그런 생각도 없이 무심으로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 오겠는가? 전화해서 오라고 하면 오겠는가?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 그들을 맞았다. 그날만큼은 연화대처럼 집을 장엄하고 대접해주되 그들이 돌아가면 내 삶으로 돌아와 나 자신에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

사람은 일이 있어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여여회 회원들을 받드는 게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포교라고 생각했다. 포교를 하려면 길에라도 나서야 집에서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며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 모임은 어디를 가도 잘 뭉쳤고, 벌써 반듯함이 드러나 긍지를 느꼈다.

내가 모범이 되어야 하니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했다. 나는 지금껏 시장에 가면서 슬리퍼 한 번 신은 일도 없으며 홈웨어를 입고 간적도 없다. 그곳 또한 나의 우주고 전부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에게 배울 점만 취했고, 그들이 모두 부처임을 잊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여여원 원장〉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아들아, 불교란 이런 거란다!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붓다의 가르침,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한 어머니의 삶과 불교 이야기!

홀로, 게다가 병든 몸을 이끌고 이국 땅(태국과 프랑스)에서 아들을 키워낸 한 어머니의 평탄치 않은 삶의 여정과 그 속에서 만난 불교 이야기!
그녀는 어떻게 고해의 바다를 헤쳐 나올 수 있었는가?
이 책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삶의 길을 찾은 한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남기는 정신적 유산으로,
그 간절함과 진정성이 가슴에 와닿는다.

최혜자 지음 | 신국판 | 388쪽 |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대행 스님

모든걸 근본에다 되놓고 활발하게 인연 따라 활용하라

(지난호에 이어서)

질문자2(남): 큰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질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대사께서 지은 『선가귀감(禪家龜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과 조사가 세상에 나오심이 마치 바람 없는 데 물결을 일으킴과 같다. 대자대비로 어리석은 중생 건지심이지만, 한 물건으로 본다면 사람마다 본래면목(本來面目)이 절로 이루어졌거늘 어찌 남이 연지 찍고 분 발라주기를 기다리리요. 고로 이 세상에 나오심은 잔잔한 물결에 파도 일으킴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조사 스님이 오신 것을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크나큰 복이었는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해놓으신 것인지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가령, '큰스님 오심이 바람 없는 데 물결 일으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허허허. 어떻게 사람이 웃기만 하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웃지 않고만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한다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다.' 하는 것이 지금 그 말이죠. 오히려 그 파도를 일으킴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잘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은 일으킴과 가라앉힘과 동시에 작용이 돼야만이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파도로 비유를 한다면 파도가 일지 않으면 고기 떼가 다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태양은 물 바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항시 돌아야만이 고기 떼가 살 수 있거든요. 그 말을 한번 비유해본다면, 모든 거를 그래서 정(定)에 들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발, 사람이 이걸 들었다가 놓을 수 (컵 뚜껑을 들었다가 놓아 보이시며) 없다면 그, 사람 노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될 수 없죠. 사람의 작용이라고 볼 수 없겠죠. 들기만 하고 놓지 못하면은 병신이요, 놓고 들 줄을 모른다면 병신이요. 어떻습니까?

질문자2(남): 맞습니다.

큰스님: 네. 주먹을 쥐었다 펼 줄 모른다면 병신이요, 또 펴놓고선 주먹을 쥘 줄 모른다면 병신이요. 그러니까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쥐었다가 작용을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것을 일축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좀 잘 들으셔야죠. 응?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선근을 심어주는 일이죠.

질문자2(남): 두 번째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세 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주인공에 믿고 맡기는 것으로 세 번 죽기가 가능합니까?

큰스님: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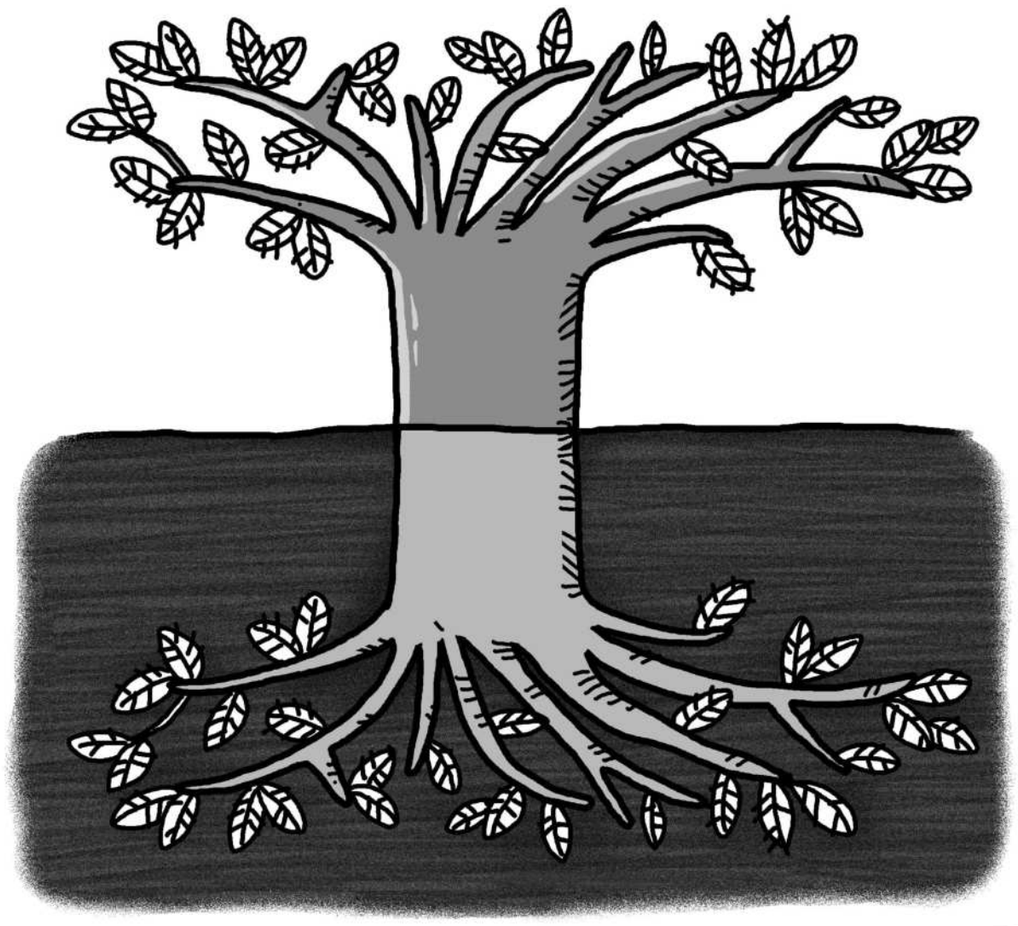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2(남): 아니면 큰스님께서 해오신 바와 같이 목숨을 떼어놓고 들어가야 합니까?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주인공을 일심(一心)으로 발견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거지든 거지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막론해놓고 말입니다.

아까 동자 얘기를 했듯이, 사람은 다리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즉 무심(無心)과 유심(有心)이 절름발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동시에 같이 돌아간다는 자체를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과 마음내는 거와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와 동시에 돌아가죠? 어디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눈과 귀가 따로따로 돌아갑니까, 어디? 얼굴이?

그러니까 이것을 악과 선도 거기 놔라. 악한 거는 '선하게 이끌어줄 수 있지 않으냐.' 하고 놓고, 선하게 돌아가는 거는 감사하게 놓고, 모든 거를 한군데다가 놓는 것이 자기가 공(空)해서 본래 없는 것인데, 따로 내가 없다 하는 소립니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따로 내가 없는데 따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돼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 따로 독불장군이 될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알 때까지는 모든 것을 '내가 따로 없으니까.' 하고 거기다 놔라 이겁니다. 그게 죽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따로 없는 반면에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 모두가. 안 그렇습니까? 공생(共生)이며 또는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共食化) 하고 그냥 모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 도리를 완전히 알게끔 하려면 겉으로,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서 '한마음 속에서 모든 게 들고 나는 그 무쌍한 만법이 그대로 더불어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말입니다.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 속으로 확철히 알려면은 거기다가 또 놓고 돌아가야 하니까 또 두 번째도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소리가 '죽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세 번째도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가 인연에 따라서 이 손수건을 쥐었으면 손수건은 들고만 있는 게 손수건이 아니라 땀을 씻는 겁니다. 응? 어디를 씻든지. 그러면 나와 수건과 인연이 마주쳤기 때문에 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발전의 작용입니다, 발전의 작용. 그렇 때문에 나툰다고 하는 겁니다. 나툰다. 예를 들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먹고 땀이 나면 손수건을 들고, 말소리를 내려면 이 마이크를 들고. 야, 모든 일체 만물이 만 가지가 다 나 아님이 없이 나투면서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또 놓고 가야 된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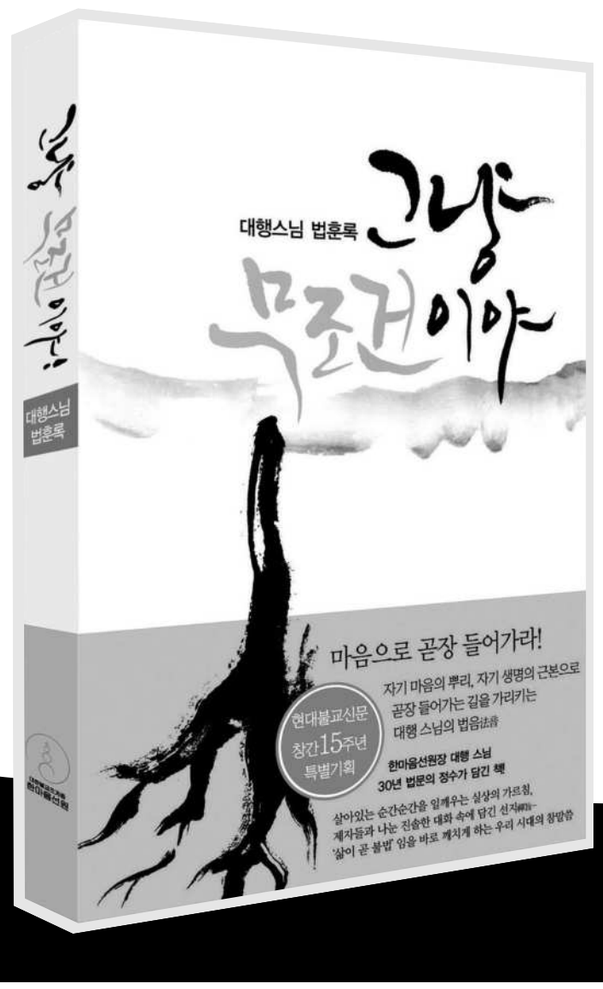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래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구경경지(究竟境地)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 내가 죽지 않는다면 전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도 모를 거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 원리가 바로 공(空)했다는 사실도 모를 것이다.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 번도 죽어야 하고 두 번도 죽어야 하고 세 번도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처님과 동자가 얘기를 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부처님 발과 그 어린 동자의 발과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자2(남): 잘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한 번 한 번 실험하고 나가는 게 진짜 참선입니다

☞ 21면에서 계속

큰스님: 그럼 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자3(여): 제가 몸이 자꾸 아픕니다, 허리가요. 피가 순환이 잘 안되고요. 겨울 내내 아파가지고 지금도 자꾸 이래 아픈데, 두 번째 왔는데 좀 덜하긴 덜하지만 어찌 하면 몸이 나을는지요. 허리가 영 꾸부정하던 게 조금 펴졌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그것도 그 몸속에서 한마음으로 작용하는 그 모든 의식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업식이니까, 모두 업식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보살님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한마음에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맡기시고 '이놈들아! 이놈들, 네놈이 이렇게 아프게 한 거니까, 네놈이 아프게 하지 말고 끌고 다녀라.' 이렇게 하세요.

질문자3(여): 예.

큰스님: 그럭하시면 됩니다.

질문자3(여): 그렇고 또 둘째 아들이….

큰스님: 아, 그것도 거기다가 그렇게 맡기십시오.

질문자3(여): 그것도 거기다가 맡기면 됩니까?

큰스님: 네.

질문자3(여): 예. 허허, 고맙습니다.

질문자4(남): 오늘도 이렇게 큰스님을 뵙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죽는 쪽도 사는 쪽도 양면을 다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느 한 방향으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주인공한테 관하는 게 아니라, 그 양면을 다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도(道)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한쪽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관하는 것은 그 중용의 도를 벗어난 것인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함인데 그것을 중용의 도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큰스님: 모든 일체 만법이, 바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났으니까 당신으로 인해 들이고 내시죠?

질문자4(남): 예.

큰스님: 그래서 중심에서 모든 일들을 하시니까 그 중심에다, 당신 뿌리에다가, 뿌리가 있어야만이 모든 가지, 이파리 또는 그 나무가 스스로 열매도 잘 맺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뿌리 없는 나무는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뿌리에다 놓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모든 것이 뿌리에서 나옴으로써 싹도 있지 뿌리가 없는데 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댁도 주인공 그 자체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몸이 있는 겁니다. 몸이 있으니까 움죽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중심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대로 자기 생각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중용입니다. 이리로 저리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리로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집착이 아니요, 저리로 집착을 한다 하더라도 집착이 아니요, 망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망상이 아니요, 모든 게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되놓고 활발하게 인연에 따라서 활용해라 이겁니다.

질문자4(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십대제자(十代弟子) 중에서 신통제일(神通第一) 목련존자(目連尊者)와 지혜제일(智慧第一) 사리불존자(舍利佛尊者)가 계셨는데, 하루는 그 두 존자께서 내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신통력 내기를 했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신통력 부분에 있어서는 목련존자가 위기 때문에 목련존자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사리불존자께서 이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련존자가 사리불존자한테 가서 그 비결을 사리불존자에게 물으니까, 사리불존자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제가 이긴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긴 것입니다. 저는 내기를 하는 순간에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제가 이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사리불존자께서 부처님께 하신 그 기도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할 때 그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리불이 기도라고 했으니까, 지금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상대를 놓고 기도를 한 걸로 돼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즉심(卽心)입니다, 즉심! 자기, 지금 이름해서 주인공이라 하고, 이름해서 즉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 지혜롭게, 말하자면은 이 사람한테 이것을 똑바로 있는 대로 대답을 하려니 그쪽에 해가 갈 테고, 똑바로 대답을 안 하자니 거짓말이 될 테고 그런데, 지혜롭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가 안 가게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즉심으로서 중용을 했기 때문에, 바로 그건 기도라고 거기다 붙일 바가 없습니다. 즉심입니다.

그러나 목련존자라 그랬죠? 목련존자는 한 번 뺐으면 낄 줄을 몰랐기 때문에 진 겁니다. 자유스럽게 끼고 빼고, 끼고 빼고 지혜롭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또 그 신통력과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지 지혜와 도력이 어떻게 둘이겠습니까? 그거는 즉심의 도리입니다.

질문자4(남): 감사합니다. 가르침 잘 받았습니다.

질문자5(남): 그 동안 한마음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생각나는 것을 여쭈려고 합니다. 한마음 주인공 수행을 하다보니까 저의 인상에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또 제 오장 육부를 흔들어서 청소해서 믿음으로 연결이 된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해오면서 생활하고 시험 관계니 이런 걸 하다보니까 확실히 주인공을 믿으니까는 주인공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을, 생활하는 데 주인공을 찾는다고 해서 밑천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믿고 맡긴다고 해서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 허허허.

질문자5(남): 그래서 주인공에 대해서 99%는 부정을 하고 1%만 한번은 믿어봤습니다.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여기 올 때 합장을 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천수경(千手經), 신묘 독경을 할 때 이 마음이 주인공을 긍정할 때는 한 번도 잘 틀리지 않고 잘되는데, 첫째 스님의 목탁소리와 스님 목소리와 저와 삼위일체가 돼서 잘되는데, 한 번 주인공을 부정을 했더니, 들어올 때 합장도 안 하고 99%를 믿질 않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천수경이니 신묘 독경을 하는데 아주 자꾸 틀려요, 많이. 부정을 하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자꾸 노력을 해도 틀리고 틀리고 해서 나중에는 주인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에이, 이왕 내가 한번 끝까지 실험을 해보자.' 하고 했는데 계속 틀려요.

그래 끝날 때까지 하고선 주지스님 방에 올라가서 또 했는데, 주지스님이 "왜, 지금 문을 닫고 왔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마에 땀이 났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땀을 흘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나와보니까 사실 땀이 무지하게 났어요. 안되는 거죠. 모든 게 갑자기 잘 안되는 거예요, 부인을 했더니. 그래서 '아, 이게 참 그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주인공을 찾아서 긍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묘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자기가 편리할 때 제가 찾는데, 뭐 찾는 데는 남녀노소가 없고 때와 장소 배경도 없이 내 옆에서 찾는 것이 항상 이렇게 좋아요. 그러다보니까 99% 부정하고 1%를 믿었는데, 잘 안되는 것이 그 자기 믿음의 척도가 있는지요?

큰스님: 허허허. 그거는 믿음과 믿지 않음이 자유입니다. 척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지, 그거는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험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지켜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관세음입니다. 그래서 관(觀)해 보고 관해 듣고 관찰하고 말하고, 이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관세음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만 바깥으로 들입다 '세상아, 세상아!' 이러고 찾으니 그게 찾아집니까?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내가 실험하고 나가시는데 그게 진짜 참선입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예.

질문자5(남): 감사합니다.

사회자: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큰스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뚝뚝하게 말을 해? 허허허. 양념도 없이 그냥, 배추무를 갖다가 쓸어넣고는 그냥 먹으라는 셈이지. 허허허, 무뚝뚝해도 무뚝뚝하지 않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만 여러 시간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과 더불어 일심으로써 내면세계를 근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내 고깃덩어리를 믿지 말라. 내 이름을 믿지 말라. 모든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발견이 되면 내 마음도 첨보돼서 둘이 아니니라. 너희가 이 도리를 깨달으면 나와 더불어 같으니라." 이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더, '왜 우리 대행스님은 부처님 경전 말씀을 안 하시고 만날 저렇게 얘기만 하시나.' 이러시지 말고 경전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팔만사천의 법입니다. 번뇌가 아니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라고 해서 이거 내가 얼마나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까, 업보가 얼마나 많길래 이런가?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악한 것이 닥칠까? 이런다면 점점 더합니다. 응. 그냥 불나는 데 기름 갖다가 퍼붓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담요로다가 탁 덮으시면 불은 잔잔하게 꺼지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음성 공양이 끝난 후) 오늘 서산대사의 설을 아주 잘 질문해주셨는데요, 허허허.

※위 법문은 1992년 5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팔만사천의 법입니다.
번뇌가 아니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업보를 지어서 이렇게 번뇌가 일어날까?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악한 것이 닥칠까?
이런다면 점점 더합니다.
그냥 불난 데 기름 갖다가 퍼붓는 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담요로다가 탁 덮으시면 불은 잔잔하게 꺼지듯이
그렇게 하십시오.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불자 세상보기

6.4 선거, '생활정치' 실현의 장으로



정천구
서울디지털대학교 석좌교수

6월 4일에 있을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5월 22일부터 개시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법현수막 설차, 향응 및 선물제공, 허위선전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제시를 통해 표심을 움직이려고 하기보다 게임의 규칙을 어겨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자 하는 구태(舊態)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이직도 후진적 선거문화에서 탈피하지 못한 일부 후보자들의 탈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배경이 있다. 우선 유권자의 선택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쟁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이 있지만 어린 영혼의 희생을 선거의 쟁점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무상복지를 둘러싼 전면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굵직한 쟁점이 있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명분으로 삼은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당원 여론조사 형식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새누리당과 같이 정당공천을 결정했다. 정책 이슈가 되기 힘들다.

기초선거의 정당공천문제는 찬반 모두 그럴 듯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정당공천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정당공천이 없으면 후보자 식별이 어려워 정당공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정당 무공천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정당공천을 하면 기초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지방의원을 특정정당의 지역관리자로 전락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는 여야가 대선기간에 함께 내걸었던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정치 불신, 공약경시 풍조를 키웠다는 점이다. "약속(합의)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이고 공동체가 지켜야 할 당위이다. "거짓말하지 말라(不妄語)"는 붓다의 계율 역시 개인관계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기본원칙으로 설하신 것이다. 이번에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정치에서 약속이 지켜지는 선례를 만들 좋은 기회를 놓쳤다. 정치현실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정치현실이란 6.4지방선거가 대선 후 치루는 첫 전국선거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과 함께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이다. 7개 선거(①시 · 도 교육감 선거, ②시 · 도 지사 선거, ③시 · 군 · 구의 장 선거, ④지역구 시 · 도의원 선거, ⑤지역구 구 · 시 · 군의원선거, ⑥비례대표 시 · 도의원 선거, ⑦바례대표 구 · 시 · 군의원 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여야 간의 사활을 건 공방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공약은 해당지역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 복지, 경제민주화, 교육문제, 안보문제 등 지자체의 공동관심사를 한데 묶어 정당의 색깔을 강하게 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함으로 후보자들의 인물과 공약, 그리고 소속정당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선택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장들을 잘 살펴보고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큰 약속인 헌법정신을 잘 지키면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진정으로 추구하는지를 판단해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인물의 선택에서는 말과 행동의 일치성, 경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공약은 주민생활 향상에 대한 기여도와 실천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또한 유권자들이 모든 문제를 무차별하게 선거쟁점으로 삼는 풍조에 휩쓸리지 말 것을 권고한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전문분야들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 조항(20조 2항)이 있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31조 4항)하고 있다. 국가안보문제를 무차별하게 정치쟁점으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의 양식이다. 6.4선거가 국법과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선거가 되어 생활정치를 실천할 유능하고 모범적인 후보자들이 당선되도록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는 퇴색됐고, 구조는 붕괴됐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에서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는 미혼 인구는 지난 40년 사이 7배나 늘었다.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고 기초이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 주〉

가족 간 대화와 소통 절실한 때



자우 스님
비로자나국제선원장

다섯 시간 걸려서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다녀왔다. 모든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숙연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다. 한쪽에서는 유가족과 기자들의 언성이 높다.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차 있다. 아이를 잃은 부모심정을 감히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가정이란 참으로 소중하다. 십년이 넘게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새삼 더 크게 느낀다.

어린이 영어캠프를 하면서 늘 하는 질문은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그리거나 이야기하기'다.

게임을 좋아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답은 놀랍게도 가족과 연관된 이야기이다. 가족 여행 갔을 때, 동생이 태어났을 때, 아빠에게 칭찬 받았을 때 등등.

하지만 어른들에게는 어떠한가? 스무살 된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어머니를 알고 있다. 그 부모는 아들의 죽음으로 삶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을 보여 주었다면 슬픔이 조금을 덜 할 것 같다.

부처님 말씀처럼 가족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면 좋겠다. 돈이 좀 넉넉하지 않더라도,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남보다 좋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로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을 잘 몰라 서로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원망한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아이는 부모를, 부모는 아이를. 이얼마나 아이러니컬한가?

불교가 물질문명으로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속 보석과 같은 법신불을 만나게 도와 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나오게 될 것이다.

5월은 가족이 마음공부하는 달



정규열
한마음과학원 기획조정실

온 나라가 가정의 달, 은혜의 달이라고 소리내기도 송구하고 죄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동안 수면 아래 잠들어 있던 여러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억눌렸던 마음들이 크게 부딪히는 것 같다.

불가에서는 큰 일 일수록 오히려 외부로 쏠려 있는 시선을 거두어 자기 내면에 집중하라 가르친다. 그래서 올 5월은 더욱 마음공부에 집중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내가 몸담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는 가정이다. 가정에서 '나'라는 존재는 부모도 되고, 배우자도 되지만, 형부, 며느리, 처제도 되고,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도 된다. 이처럼 인연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며 각기 다른 역할과 소임을 하고 산다.

하지만 참된 삶이란, 수많은 인연 업과로 만들어진 배우 역할로서의 내가 아닌 주인공으로서의 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자신을 살피고 자각하는 마음공부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개설된 '한마음아버지마당'과 5월 13일부터 진행하는 '학부모프로젝트'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아버지이기 이전에, 또 학부모이기 이전에 '나'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내' 가족과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헤쳐 나갈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새롭게 조망해 보는 여정으로 짜여져 있다. 한마음아버지마당에 참여했던 수료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5월은 감사의 달이자 은혜의 달이다. 가정에서 마음공부할 수 있는 한마음아버지마당과 학부모프로젝트는 내가 있기까지 인연되어 준 조상님들의 은혜에 보답하고 자녀들과의 인연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의 시간이다.

社說

동국대 세계 불교학의 '동행선지식' 되길

5월 9일 동국대에서는 개교 108주년을 기념해 의미있는 행사가 열렸다. 제 1회 동아시아 4개 대학 불교학 국제학술대회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을 비롯해 대만의 대만대 불학연구중심, 일본의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과, 중국의 북경대 철학과 등 동아시아 4개국 불교대학이 인문네트워크를 형성해 불교학의 중심축을 동아시아에 세우는 시금석이 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장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유수대학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불교학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뜻깊은 자리다.

특히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국가간 갈등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불교로 동아시아의 소통과 화해의 길을 모색하기에 더욱 시의적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동아시아 불교는 같은 한역 불전을 근간으로 대승불교를 신행하는 공통의 불교문화권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의 불교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인류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불사에 있어서는 모두 같이 절차탁마하며 동행해야 할 '동행선지식'이다.

특히 이번 주제인 '동아시아 불교전통과 근대 불교학'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해 이상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동국대의 건학이념과도 잘 부합된다. 올해로 108주년을 맞은 동국대는 개교 이후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다른 학문과 달리 불교학은 종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행과 둘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동아시아의 각 지역이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불교학 전통을 이해하고 새로운 불교학을 건설하는데 함께하는 동행선지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기 종교엔 신념을, 이웃 종교엔 예의를

2006년 6월을 기억하는 불자들이 있는가. 당시 불교계와 개신교는 매우 불편했다. 부산기독청년회연합이 부산 벡스코에서 'Again 1907 in Busan' 부흥회를 열고 "사찰이 무너지라"는 주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쯤되면 기도가 아니라 저주다.

당시 행사를 주최했던 목사는 교계 언론에 "선교를 진행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슬람사원이든 사찰이든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하는 몰상식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개신교들의 기도는 불교는 물론 한국사회에 물의를 일으켰고, 부산 개신교는 비판의 화살을 비켜갈 수 없었다. 8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개신교도들의 내면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욱 대담해지고 뻔뻔해졌다.

5월 6일 부처님오신날,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에서 노상 전도를 하던 예수재단이 그 증거다. 조계사로 가기 위한 진입로에서 '예수는 유일한 그리스도' '동성결혼금지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등의 노상 전도를 했다.

불자와 시민들이 막아섰지만 막무가내였다. 도리어 "집회 신고했다", "사찰 연등이 왜 거리로 나오냐"는 등의 억지를 부렸다.

인터넷 기사가 게재된 이후 당시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 "조계사가 치외법권 지역이냐. 집회 신고를 해 문제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도, "부활절과 성탄절에 교회 앞에서 목탁을 치며 법회를 보면 좋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불교도 그렇게 하시오"라는 상식 밖의 대답을 했다.

물론 이 같은 개신교인들은 일부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적어도 부처님과 예수님은 자비와 사랑을 가르쳤지 반목과 갈등을 가르치지 않았다. 자신의 종교에는 신념을, 다른 종교에는 존중과 존경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종교화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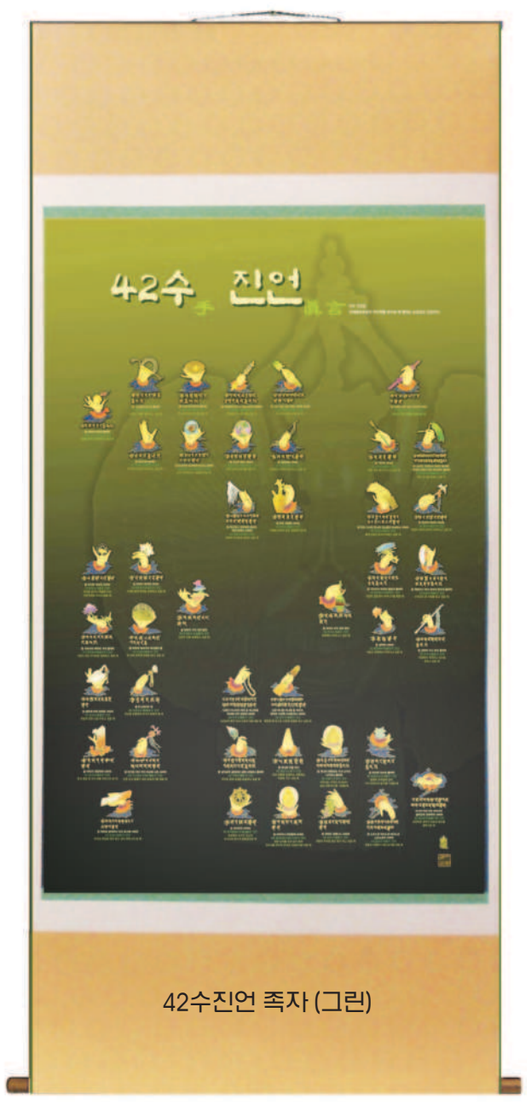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진언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쟈못쟈'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聖鐘社 SUNG JONG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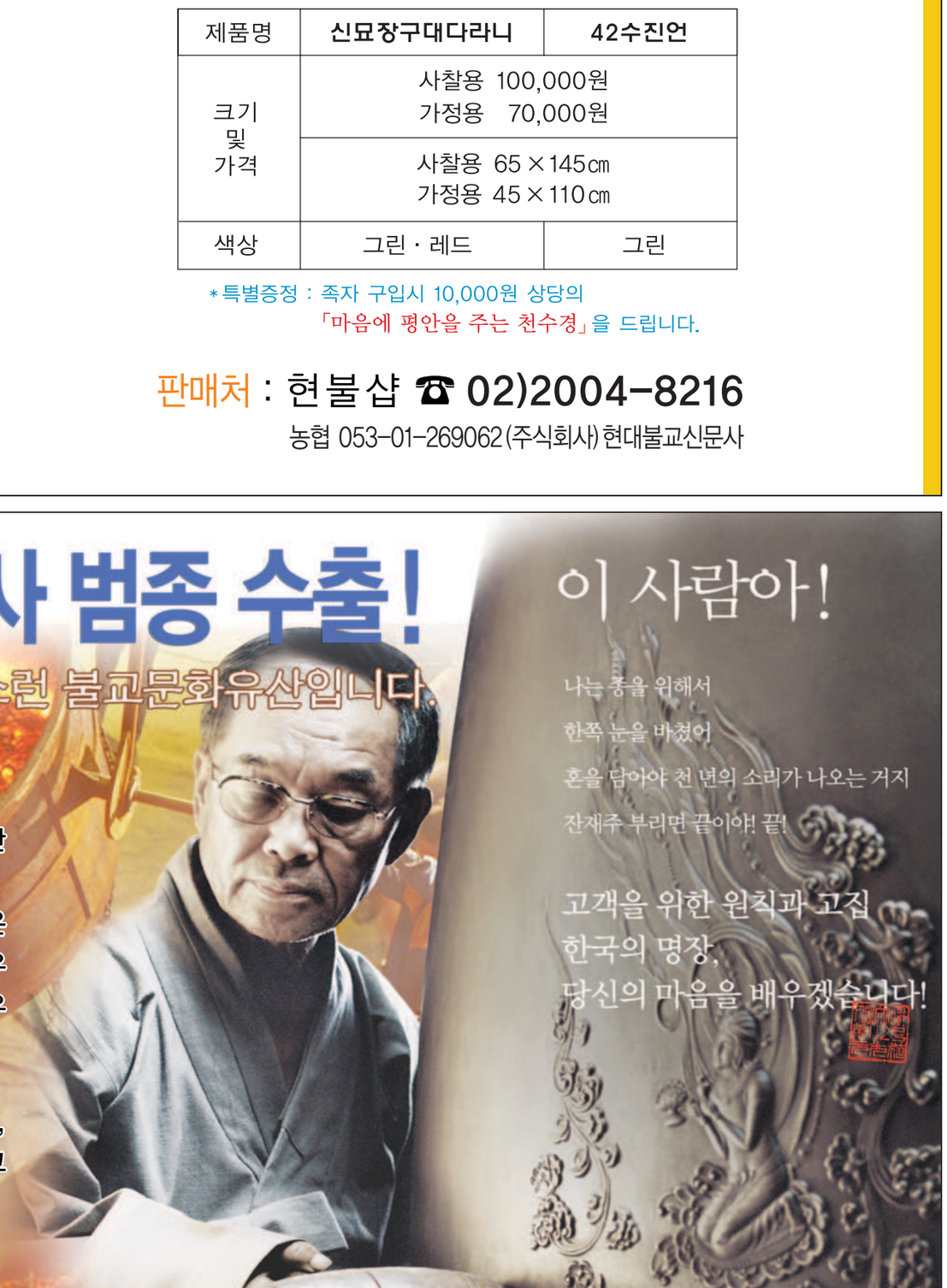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